

俞炳禮教授指導

碩士學位請求論文

盛唐邊塞詩研究

—王昌齡을 中心으로—

2007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張永順

盛唐 邊塞詩 研究

—王昌齡을 中心으로—

俞炳禮 教授 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張永順

인 준 서

張永順의 碩士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論 文 概 要

본 논문에서는 盛唐의 邊塞詩가 흥성하게 된 원인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인 전쟁 이외에 어떤 복합적 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邊塞詩人들 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고찰해보았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한 시인을 중심으로 기타 시인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는 방법도 유용할 것이라 생각하여 王昌齡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필자가 王昌齡을 선택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80년대 이후 邊塞詩의 창작이 애국정신의 발로인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王昌齡은 직접 종군한 경험이 없어 사실성이 결여되기는 하지만 그는 문인의 시각에서 全方位的이고 냉정한 사고로 변세의 상황을 다층적이며 다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이다. 둘째, 성당시인으로서의 처음으로 意境說을 제기하여 詩歌의 興象과 情景交融의 중요성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2 장에서 변세시의 연원과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邊塞詩의 淵源을 살펴보기에 앞서 邊塞詩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본고에서 대상으로 할 邊塞詩의 범주를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先秦·兩漢·魏晉南北朝·初唐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 장에서는 盛唐 邊塞詩의 창작배경을 政治的 배경과 思想 및 社會的 배경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政治的 배경은 邊塞詩의 직접적인 원인인 주변 이민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思想부분에서는 儒·佛·道와 협객정신이 文人들에게 끼친 영향과 社會的 배경으로 唐代 문인들의 습관 중 자유로운 유람과 과거제도, 문인들의 정치참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 장은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王昌齡의 생애와 사상을 고찰하였

다. 생애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여 기존 연구 논문과 작품에 근거하였으며, 그의 사상 또한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다.

5 장에서는 王昌齡의 邊塞詩를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의상의 운용을 어떻게 하였는지 고찰하였다. 아울러 기타 변새시인인 高適 · 岑參 · 王維 · 李頎의 변새시의 풍격을 고찰하였다. 『全唐詩』 卷 140~143에 수록된 王昌齡의 작품 중 邊塞詩와 閨怨詩 30여 수를 기본으로 하여, 李國勝의 『王昌齡詩校注』와 李云逸의 『王昌齡詩注』, 吳彩娥의 『王昌齡詩選』을 참고하였다. 送別詩 또한 邊塞詩와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王昌齡의 送別詩 대부분은 편적된 이후 창작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論外로 하였다. 내용면에서는 시대적 풍조였던 建功立業과 영웅적 기개를 노래한 작품과 종군의 고뇌를 다룬 작품, 그리고 인도주의 정신에 기인한 反戰思想이 보이는 작품으로 구분하였다. 意象의 운용에 있어서는 故事를 인용한 경우와 명사로 된 意象만을 나열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즐겨 사용한 의상 중 山 · 城 · 風 · 雲 · 月 · 馬 · 夜의 의상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기타 변새시인과의 풍격 비교에서는 悲壯한 가운데 각각 특징 있음을 알 수 있었다. 高適은 慷慨한 특징이 있으며, 岑參은 奇麗한 특징이 있었다. 한편 王維는 자부심과 자만심이, 李頎는 雄渾하면서도 沈鬱한 특징이 있었는데, 이에 비해 王昌齡의 邊塞詩에는 悲壯한 가운데 崇高美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邊塞詩, 盛唐詩, 王昌齡, 戰爭, 意象

<目 次>

論文概要

| | |
|---------------------------|----|
| I. 序 論 | 1 |
| II. 邊塞詩의 淵源과 發展 | 8 |
| 1. 先秦時代 | 10 |
| 2. 兩漢時代 | 11 |
| 3. 魏晉南北朝時代 | 13 |
| 1) 建安時代 | 13 |
| 2) 南北朝時代 | 15 |
| 4. 初唐時期 | 19 |
| 1) 初唐四傑 | 20 |
| 2) 陳子昂 | 27 |
| III. 盛唐 邊塞詩의 創作背景 | 33 |
| 1. 政治的 배경 | 33 |
| 1) 吐蕃과의 관계 | 34 |
| 2) 南詔와의 관계 | 36 |
| 3) 奚와 契丹과의 관계 | 41 |
| 2. 思想 및 社會的 배경 | 43 |
| 1) 思想-儒·佛·道와 俠客精神 | 44 |
| 2) 社會的 배경-文人들의 생활방식 | 52 |
| IV. 王昌齡의 生涯와 思想 | 60 |
| 1. 生涯 | 60 |
| 2. 思想 | 64 |

| | |
|--------------------------------|-----|
| V. 王昌齡 邊塞詩의 내용분석과 意象의 運用 | 78 |
| 1. 내용분석 | 78 |
| 1) 建功立業과 英雄的 氣概 | 78 |
| 2) 從軍의 苦惱 | 84 |
| 3) 人道主義에 기인한 反戰思想 | 91 |
| 2. 意象의 運用 | 106 |
| 1) 故事를 인용한 意象 | 106 |
| 2) 意象의 나열 | 111 |
| 3) 즐겨 사용한 意象 | 114 |
| 3. 기타 邊塞詩人과의 비교 | 123 |
| 1) 高適 · 岑參 | 125 |
| 2) 王維 | 139 |
| 3) 李頎 | 143 |
| VI. 結 論 | 148 |

主要參考文獻

ABSTRACT

I. 序論

唐代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 따라 문학을 비롯하여 서예, 회화, 음악 등 문화 예술방면에서 空前의 번영을 이룩한 시기였다. 특히 盛唐 시기(713~765)¹⁾는 시 분야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그중 邊塞詩는 山水田園詩, 社會詩 등과 함께 盛唐詩를 크게 갈래짓는 詩派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전쟁을 배경으로 한 詩가 盛唐 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先秦시대 『詩經』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魏晉南北朝 시기를 거쳐 끊임없이 창작되었고 唐代에 이르러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盛唐시기 시인들 가운데는 邊塞詩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며, 작품의 내용이나 숫자 면에서 前代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점은 다시 말하면, 盛唐시대에 異民族과의 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唐제국 주변에는 북쪽의 突厥, 동북쪽의 奚와 契丹, 서북의 西突厥·回紇, 서쪽의 吐蕃·高昌·吐谷渾·龜茲·疏勒, 서남의 南詔 등이 포진하고 있어, 漢族은 自國의 利害得失을 위해 이들과 침략 혹은 방어전쟁을 벌였다. 이렇듯 異民族과의 갈등과 대립이 盛唐 邊塞詩의 흥성을 촉진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盛唐 邊塞詩의 흥성과 그 質的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그렇다면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

첫째, 변방 異民族과의 우호적 선린 관계에 수반되어 유입된 異民族 문화가 唐 왕조를 세계화로 이끈 내적 동력이 되었음을 꼽을 수 있다. 異民族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文人들의 정신세계를 보다 자유롭게 해

1) 唐詩의 분기에 관해서는 高棅이 『唐詩品彙』에서 제기한 4唐說 외에 여러 설이 있으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盛唐의 邊塞詩 특히 부제로 삼은 王昌齡의 활동시기와 부합하므로 高棅의 4唐說을 따르기로 한다.

주었고 그 결과 지식인들은 어느 하나의 특정한 사상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사상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되었다. 예컨대 漢나라 지식인들은 오로지 유가경전에만 몰두하여 그것을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은 데 반해, 唐代 지식인들은 儒家·佛家·道家 등 諸 사상을 두루 받아들여 사상적으로 매우 자유로웠다. 따라서 당대 지식인들은 호수궁경(皓首窮經)하는 유학자들을 조롱하면서 칼을 차고 변방으로 나가 봉후가 되기를 추구하는 俠客氣質을 발휘하였다. 이는 개방형 문화가 그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文人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의식과, 변방으로 나가 공을 세우는 길을 입신양명의 지름길로 여겼던 시대적인 풍조를 들 수 있다. 唐代 이전 南北朝 시기 정치참여는 권문세족들의 특권이였다. 그들은 “평범한 재주로 관직을 얻고, 앉아서 공경까지 이르렀다”²⁾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별다른 재주 없이 단지 가문에 의지하여 순조롭게 관리가 되고 고관대작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권문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재주는 빼어났어도 신분이 미천하여 벼슬길이 막혀 있었으며,³⁾ 권문세가의 자제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데 뛰어난 인물들은 낮은 관직에 머물러 있었다.⁴⁾ 庶族 출신이 관리가 되는 것은 이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唐代의 평범한 지식인들은 前代와 달리 정치참여에의 포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 그 원인은 隋代부터 시작된 과거제도가 唐代에 완전히 확립됨으로써 권문세가 이외의 지주층인 庶族지주들이 벼슬길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庶族지주들은 정치무대에 우뚝 서서 唐代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세력이 되었다. 初唐四傑을 비롯하여 李白·王昌齡·高適·岑參 등 역시 庶族출신들이다. 이렇듯 唐代 사회의

2) 『南齊書·褚淵王儉列傳』: “平流進取, 坐至公卿.”

3) 鍾嶸, 『詩品』에 포조에 대해 “才秀人微, 故取湮當代.” 라 하였다.

4) 左思, 「詠史·其二」: “世胄躡高位, 英俊沈下僚.”

개방적인 시대적 여건은 文人들의 의식에 각성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주체의식이 정치활동의 영역에서 고도로 발휘될 수 있었다. 원대한 정치적 포부와 신념을 펼 수 있는 길은 관직으로 나아가는 것임에는 두 말 할 필요 없다. 그러나 오로지 과거시험만을 통해서 관직에 나갈 수 있다는 편협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출세의 지름길로 從軍 出征하여 功을 세우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文人들의 功業에 대한 갈망은 初唐四傑을 필두로 盛唐 시기 더욱 고양되었다. 이러한 풍조는 당면한 세상사에 관심을 갖게 하여 자신의 공명 외에도 세상을 구제하려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러한 시대정신은 邊塞詩의 흥성을 촉진시켰고, 文人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邊塞詩의 風骨을 형성시켰다.

셋째, 盛唐의 邊塞詩가 邊塞詩 중의 최고봉으로 평가되는 까닭은 風骨과 興寄를 추구하는 唐詩의 질적 특징⁵⁾이 잘 구현되어있을 뿐 아니라, 韻律과 辭調의 균형된 아름다움을 지닌 盛唐시 만의 秀越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唐代 邊塞詩에 대한 기존 연구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邊塞 전쟁의 성격, 邊塞詩의 전쟁 반영 상태, 邊塞詩의 사상과 예술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지만, 盛唐 邊塞詩의 흥성원인을 당대 시문학 자체의 질적 특징과 연결하여 고찰한 巨視的 연구와 각 작자간의 풍격의 차이점을 탐구한 微視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선 전쟁의 성격에 대한 연구로는 1980년 吳學恒·王綏靑이 「邊塞詩派評價質疑」⁶⁾에서 唐代의 開元 연간 후기 이래의 異民族과의 전쟁은 통치 계급의 私慾을 만족시키기 위해 진행된 不義의 전쟁에 속한다고 주장한 이후, 唐代 邊塞 전쟁의 성질을 규정짓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5) 陳伯海, 『唐詩學引論·正本篇』, 東方出版中心, 10쪽: “風骨確實成了唐詩成熟的顯要表征”

6) 『文學評論』, 1980, 3기.

게 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徐元渠는 「談岑參的邊塞詩」⁷⁾에서, 劉先照는 「評邊塞詩」⁸⁾에서 後突厥과 吐蕃에 대한 전쟁은 不義의 전쟁이 아닌 防禦性的의 전쟁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쟁점으로 唐代 邊塞詩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전쟁의 防禦性과 侵略性을 규정짓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이는 論者들의 민족주의적 시각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듯해 좀 더 객관적인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쟁 반영 상태에 대한 연구는 앞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邊塞詩가 애국주의 표현이나 아니냐로 兩分되고 있다. 吳學恆·王綏青은 앞의 논문에서 이전에는 대부분 邊塞詩과 시인들의 애국정신을 긍정하는 분위기였으나 邊塞詩과 시인들의 詩와 當時의 민족 모순, 전쟁의 성격 등을 고찰해 볼 때 이전의 평가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단언하였다. 이밖에 전쟁의 성격과 전쟁의 수용태도에 대한 연구로 戴世俊과 白堅의 연구가 있다. 戴世俊은 「論盛唐邊塞詩的反戰精神」⁹⁾에서 盛唐의 邊塞詩는 대체로 전쟁에 대한 반대와 혐오를 드러내고 있는데,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白堅은 「關於盛唐邊塞詩的評價問題」¹⁰⁾에서 唐代 邊塞詩는 애국주의 사상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전체 아래, 애국주의는 단편적으로 민족의 자신감과 自尊을 표현한 시에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천 경물과 민족간의 문화 교류, 그리고 변세 군영의 모순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데에도 드러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논문으로는 최근 俞炳禮가 「邊塞詩에 나타난 反戰思想—盛唐詩를 중심으로」¹¹⁾에서 開元·天寶 연간의 전쟁은 방어전이라기보다는 침략적인 전쟁

7) 『文學評論』, 1981, 1기.

8) 『文學評論』, 1981, 3기.

9) 『社會科學研究』, 1985, 3.

10) 『北方論叢』(哈爾濱師大學報), 1985, 5.

11) 『中語中文學』第 17輯, 1994.

이 주를 이뤘으며 이로 인해 양식 있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변방전쟁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반성하고 검토하는 기풍이 조성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邊塞詩의 사상과 예술성 평가에 대한 연구로는 禹克坤이 「如何評價唐代邊塞詩」¹²⁾에서 邊塞詩에 반영되어 있는 현실주의적 특성을 고찰하고 예술적 특성의 평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외에 邊塞詩의 발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주로 邊塞詩가 唐代에 흥성하게 된 원인을 고찰한 연구로 秦紹培¹³⁾, 胡大浚¹⁴⁾이 있고 국내에서는 崔庚鎭¹⁵⁾의 업적이 대표적이라 할 만하다.

王昌齡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생애에 대한 연구와 詩論 저작에 관한 연구, 그리고 작품에 대한 연구 세 방면으로 개괄할 수 있다.

생애에 대해서는 자료가 불충분한 관계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그의 일대를 재구성하고 작품의 편년을 확정짓는 작업을 하였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도 많다.

詩論 저작에 관해서는 저작이 독립되어 전하지 않고 宋代 이후 散失되었다가 취합되었기 때문에 그 본래 형태에 대해 규명하는 일이다.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文鏡秘府論』도 역시 여러 저작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의 저작의 범위가 확정되고 王昌齡의 詩에 관한 의식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작품에 대한 연구는 작품 전체에 대한 연구와 邊塞詩, 閨怨詩, 送別詩 등 주제 별 연구와 七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최근에는

12) 『文學評論』, 1981, 第 3 期.

13) 「論唐代邊塞詩及其繁榮原人」, 『新疆大學學報』, 1992, 1.

14) 「邊塞詩之涵義與唐代邊塞詩的繁榮」, 『西北師院學報』, 1981.

15) 『高適岑參의 邊塞詩 比較研究』, 延大 博論, 1994.

七絶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국내에서는 『王昌齡 詩 研究』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姜慧園 · 任元彬 · 徐盛 · 金姬廷이 王昌齡 詩 전반에 관한 연구를 했으며, 최근에는 姜旼昊가 『王昌齡 七言絶句 研究』에서 七絶의 특성인 抒情性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邊塞詩에 대한 전쟁의 성격, 전쟁 반영 상태, 邊塞詩의 사상과 예술성 연구에 치중되었고, 국내에서도 작자 개인의 연구에 편중되어 盛唐 邊塞詩에 대한 巨視的 조감과 微視的 통찰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盛唐 邊塞詩의 창작배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王昌齡과 기타 邊塞詩인과의 비교를 통해 王昌齡 邊塞詩의 특징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필자가 王昌齡을 선택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80년대 이후 邊塞詩의 창작이 애국 정신의 발로인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王昌齡은 직접 종군한 경험이 없어 사실성이 결여되는 점은 있지만, 文人의 시각에서 全方位的이고 냉정한 사고로 변세의 상황을 多層的 · 多角的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이다. 둘째, 盛唐시인으로서 처음으로 意境說을 제기하여 詩歌의 興象과 情景交融의 중요성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¹⁶⁾

연구 방법으로는 2 장에서 邊塞詩의 연원과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邊塞詩의 연원을 살펴보기에 앞서 邊塞詩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본고에서 대상으로 할 邊塞詩의 범주를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先秦 · 兩漢 · 魏晉南北朝 · 初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 장에서는 盛唐 邊塞詩의 창작배경을 政治的 배경과 思想 및 社會的

16) 畢士奎, 「秦月漢關寄邊情-王昌齡邊塞詩思想價值論略」, 『甌州教育學院學報』, 第 18卷 第 3期, 2001.9. 11쪽.: “王昌齡到邊塞, 并不是儘儘滿足于親歷前線, 一味地赴邊從戎, 而與此同時, 他却又能從一個文人士子的視覺, 對邊塞生活進行全方位的觀點 `冷靜的思考, 從而更客觀 `更準確地對邊塞情況作多層次 `多角度的反映.”

배경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政治的 배경은 邊塞詩의 직접적 원인인 주변 異民族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상 면에서 唐代는 儒佛道 三敎가 공존하였으며 개방적 심리가 반영된 俠客의 풍조가 前代에 비해 성행했던 시대인 만큼 儒佛道 三敎와 任俠풍조가 당대 文人들에게 끼친 바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배경에서는 唐代 文人들의 습관 중에서 자유로운 유람과 과거제도, 文人들의 정치참여의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 장에서는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王昌齡의 생애와 사상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생애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기존의 연구 논문과 작품에 근거하였으며, 그의 사상 또한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다.

5 장에서는 邊塞詩의 내용을 분석하고 意象의 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王昌齡의 詩는 『全唐詩』 卷 140~143에 수록된 작품 중 邊塞詩와 규원시를 기본으로 하여 李國勝의 『王昌齡詩校注』와 李云逸의 『王昌齡詩注』, 吳彩娥의 『王昌齡詩選』을 참고하였다. 送別詩 또한 邊塞詩와 동전의 양면 같지만 王昌齡의 送別詩 대부분은 편적된 이후 창작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論外로 하였다. 내용면에서는 시대적 풍조였던 建功立業과 영웅적 기개를 노래한 작품과 從軍의 고뇌를 다룬 작품, 그리고 人道主義 정신에 기인한 反戰思想이 보이는 작품으로 구분하였다. 또 王昌齡이 邊塞詩에 있어서 意象을 어떻게 운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王昌齡과 동시대 시인 高適·岑參·王維·李頎의 풍격상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5 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였다.

Ⅱ. 邊塞詩의 淵源과 發展

중국 詩派의 하나인 邊塞詩는 개념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학자들 간에 오랜 논쟁이 되어 왔다. 따라서 邊塞詩의 연원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邊塞詩의 범주를 확정지은 후 그 연원과 시대별 발전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邊塞詩를 唐詩의 한 유형으로 간주한 최초의 기록은 宋 姚鉉의 『唐文粹』에 보이며,¹⁷⁾ 그후 葉夢得的 『石林詩話』, 嚴羽의 『滄浪詩話』 등에서 일치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변방 제재의 시를 독창적인 하나의 유형으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邊塞詩의 개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격론 끝에 광의의 개념으로 시대와 관계없이 邊塞를 제재로 한 내용은 모두 포함하자는 의견과, 협의의 개념으로 시대성과 특성의 내용으로 제한한다는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¹⁸⁾ 이는 사실 개념이라기보다는 邊塞詩의 범주를 확정지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필자 또한 위의 邊塞詩의 범주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을 범주를 정하고자 한다.

‘邊塞’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때는 秦이 천하를 통일한 후이며, 지역은 주변국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한 長城과 연접한 국경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다음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다.

“변방에서 이마를 조아렸다고 하였는데, 注에서 ‘邊은 국경이다’ 라고 하였다.”¹⁹⁾

17) 李浚植, 「中唐 邊塞詩에 나타난 反戰意識」, 『中語中文學』 제 26집, 46쪽 재인용.

18) 1984년 蘭州에서 열린 中國唐代文學學會 第 2次 學術討論會의 결론이다.

19) 『國語吳語』: “‘頓頹于邊’ 注云: ‘邊, 國境也.’”

“秦나라는 천하를 아우른 후에 蒙恬으로 하여금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가서 용적을 내쫓고 하남(河套)²⁰⁾ 지역을 점령하여 장성을 쌓게 하였다. 지형에 따라 험난한 곳을 이용하여 성채(塞)를 쌓으니 임조에서부터 요동까지 길이가 만여 리나 되었다.”²¹⁾

“한나라는 드디어 하남(河套) 땅을 탈취해서 삭방군을 설치하고 진나라 때 몽염이 만들었던 요새(塞)를 재정비하고 황하를 따라 방비를 굳혔다.……그 후 한나라는 남쪽으로 양월을 무찔렀고 흉노는 치지 않았다. 흉노 역시 변경을 침입하지 않았다.……이 무렵, 천자는 변방(邊)을 순행하여朔方에 이르러 18만 명의 기병을 통솔함으로써 군사력을 드러내 보이고 광길을 사신으로 하여 선우에게 은근히 경고했다.”²²⁾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邊’과 ‘塞’는 역시 長城을 경계로 한 지역을 이르는 말이다. 이후 漢代에도 ‘邊’과 ‘塞’를 連用해 사용한 예가 여러 곳에 보이는데²³⁾ 이는 漢代에도 역시 邊塞가 胡·漢의 국경지역인 長城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邊’ ‘塞’ ‘邊塞’ 모두 ‘中心’, 즉 長安과 洛陽이 모든 지역의 중심이 된다는 관념에서 출발한 상대적 개념이며, 後代에 詩史에 ‘邊塞’란 漢

20) 여기서 河南은 河套를 가리킴. 하루는 반원을 그리며 굽이도는 물줄기, 또는 그렇게 에워싸인 지역을 말하는데, 寧夏, 內蒙古, 陝西 사이를 굽이돌아 흐르는 황하강 부근.

21) 『史記·蒙恬列傳』: “秦已併天下, 乃使蒙恬將三十萬衆北逐戎狄, 收河南. 築長城, 因地形, 用制險塞, 起臨洮, 至遼東, 延袤萬餘里.”

22) 『史記·匈奴列傳』: “漢取河南地, 築朔方, 復繕故秦時蒙恬所爲塞, 因河爲固.……其後漢方南誅兩越, 不擊匈奴, 匈奴亦不侵入邊.……是時天子巡邊, 至朔方, 勒兵十八萬騎以見武節, 而使郭吉風告單于.”

23) 『史記·匈奴列傳』: “單于既約和親, 於是制詔御史曰: 匈奴大單于遺朕書, 言和親已定, 亡人不足以益衆廣地, 匈奴無入塞, 漢無出塞, 犯約者殺之.…….”
『史記·衛將軍驃騎列傳』: “兩軍之出塞, 塞閔官及私馬凡十四萬匹, 而復入塞者不滿三萬匹.”

代의 長城과 관련된 典故로써 국경에 접한 변방이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쓰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邊塞詩란 변새를 제재로 한, 즉 변방지역의 異民族과의 전쟁, 병사의 고뇌, 고향·부모·형제·처자와의 이별과 그리움, 변새의 풍광 등등을 제재로 다룬 시이다. 혹자는 실제로 종군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도 거론하지만 직접적인 체험여부와 관계없이 변새를 제재로 다룬 시는 모두 邊塞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邊塞詩는 전쟁시와도 구별되어야 하는데 전쟁시에는 국내 전쟁에 관련된 작품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邊塞詩의 범주는 공간적 개념에서 변방을 제재로 하여, 시간적으로는 秦 이후 한족과 異民族 사이의 대립구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결론짓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1. 先秦時代

앞에서 언급한 대로 秦 이전의 시는 전쟁을 제재로 했다 할지라도 邊塞詩로 볼 수 없다. 先秦의 전쟁은 중앙의 王朝가 수행한 전쟁이 아니었고 더욱이나 異民族과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秦·漢 이래의 전쟁과는 성격이 다르다. 先秦의 전쟁과 관련된 작품이 수록된 것은 『詩經』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邊塞詩로 볼 수 없지만 邊塞詩의 초기 형태로 보이는 시들이 여러 편 수록되어 있고 후대 邊塞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한다.

『詩經』에 수록된 전쟁 관련 시의 편수나 전쟁의 죄악을 폭로하고 전쟁의 잔혹함을 비판하는 시들은 적지만, 문사가 질박하고 함축적이며 서정적이다. 내용으로 보면 戰績을 칭송한 작품으로 「大雅·大明」과 「大雅·尚武」 등이 있으며, 그중 「大雅·尚武」는 오랑캐를 토벌한 것을 기린 노래로 先秦 시기 전쟁시 중의 걸작이며 서사시의 걸작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²⁴⁾ 大雅는 원래 朝會 때 쓰이던 음악으로 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가사가 典雅하고 莊重한 반면 小雅는 민요의 가사를 많이 인용함으로써 大雅에 비해 서정적이다. 따라서 小雅에는 전쟁의 죄악과 비통함을 노래한 것이 많다. 그 중 「采薇」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병사의 비애와 용맹함, 행군의 고초 등을 장황하게 묘사하였다. 「何草不黃」은 周나라가 망하고 여러 나라끼리 전쟁이 계속 될 때, 짐승처럼 광야를 헤매며 전장에 끌려 다니는 병사의 고통을 노래하였다. 「出車」는 전쟁터에서 적을 무찌르고 돌아온 尙武精神을 노래한 시로 出陣의 威容, 전쟁터에서의 感懷, 고향에 홀로 남은 아내의 비애, 개선하는 광경 등으로 전개되어 있다. 그밖에 王風의 「君子于役」과 衛風의 「伯兮」는 수자리 떠나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전쟁으로 야기된 사회 문제와 가정의 비극을 반영한 작품이다.

『詩經』 중의 전쟁시는 전쟁에 대한 언급은 피상적이고 주로 행군의 고통과 고향·부모·처자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감정을 묘사하는데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변세지역 전쟁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작품은 다음에 살펴볼 漢·魏의 樂府와 古詩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2. 兩漢時代

兩漢時代에는 강력한 기마병들로 구성된 匈奴가 국경을 끊임없이 유린하였다. 그러나 漢 武帝가 즉위한 후 匈奴에 대해 적극적인 강경책으로 선회하여 기원전 129년부터 전면전을 벌이는 한편, 張騫을 西域에 보내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화친을 하는 등,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시행하였다. 張騫은 武帝의 명을 받고 서역을 두 차례나 오가면서 실크로

24) 洪讚, 『唐代戰爭詩研究』,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7, 12쪽.

드를 개통시켰고 이로 인해 동서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도로가 張騫의 활약에 의해 확보되었다. 이러한 서역경영의 성과에 힘입어 邊塞詩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詩歌 창작이 성숙되지 않은 시기여서 邊塞詩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고 단지 악부 민가에 남아있는 여러 작품을 통해 당시 邊塞詩의 창작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漢代 樂府詩는 『詩經』 속의 작품과 같이 진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였지만 표현수법은 좀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詩經』의 작품이 주관적인 서정과 영탄에 치중했다면 한대 악부는 객관적 서술로 사회에 대한 비판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漢代 樂府詩 중 전쟁과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은 「戰城南」·「飲馬長城窟行」·「十五從軍行」·「木蘭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宋書·樂志』에 수록되어 있는 「漢饒歌」 18 곡 중의 한 곡인 「戰城南」은 전쟁으로 인해 유능하고 용감한 젊은이들이 들관에서 죽어 까마귀밥이 되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죽은 사람의 입을 빌어 노래하고 있으며, 「飲馬長城窟行」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전쟁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 「十五從軍行」은 잔혹한 전쟁의 폐해와 백성들의 오랜 병역의 고통을 폭로하고 있다. 15세에 종군하여 80세에 고향에 돌아왔으나 가족은 모두 죽고 집안은 잡초와 들풀로 뒤덮여 있고, 겨우 끼니를 때우기 위해 밥을 지었으나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 자신도 모르게 눈물만 빗물 내리듯 하는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이상의 작품들은 이후 후대 시인들에 의해 많이 모방되었다. 이 밖에 제목만 전해오는 「隴頭水」·「出塞」·「入塞」·「關山月」 등의 詩題나 「李陵歌」·「匈奴歌」 등의 내용은 漢代 이후 盛唐의 邊塞詩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詩題이자 意象으로, 唐代 邊塞詩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3. 魏晉南北朝時代

1) 建安時代

建安時代(196-220년)는 後漢 末葉과 魏初로 曹操가 패권을 잡은 시기를 말하며, 중군과 관계된 시의 창작이 민간에서 文人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文人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의식적으로 邊塞詩를 짓게 되는 등 개인적 자유가 팽배해진 시대였다.²⁵⁾

蔡邕의 딸인 蔡琰은 박학다재하였으며 음률에도 정통하였다. 漢末 전란 중에 흉노에 붙잡혀 12년간 포로생활을 하면서 흉노와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고 살다가 돌아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悲憤詩」에 담아내었다.

陳琳(?~217)은 자신이 직접 목도한 사회적 현실을 「飲馬長城窟行」에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

| | |
|------------|--------------------------|
| 飲馬長城窟, | 장성 굴의 물을 말에 먹었더니, |
| 水寒傷馬骨. | 물이 차 말의 뼈가 상했다. |
| 往謂長城吏; | 가서 장성의 관리에게 이르기를 |
| 「慎莫稽留太原卒。」 | 제발 태원의 병졸을 더 붙잡아두지 마십시오. |
| 「官作自有程, | 관청의 노역은 기한이 있으니 |
| 舉築諧汝聲。」 | 성 쌓는 일을 즐겁게 하거라. |

25) 서경호, 『중국문화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년. 289~290쪽 참조. 한대 마지막 시기인 건안 연간에 비로소 일부 文人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시를 짓게 되었다.

「男兒寧當格鬥死, 남아가 차라리 싸우다 죽을지언정
 何能佛鬱築長城。」 어찌 분하고 억울하게 장성만 쌓을 수 있겠는가?
 長城何連連, 장성은 어찌 이리 길고 길어
 連連三千里. 삼천리나 이어졌는가.
 邊城多健少, 변방 장성에는 건장한 젊은이가 많고
 內舍多寡婦. 집안에는 과부가 많다.
 作書與內舍; 집으로 편지 쓰기를
 「便嫁莫留住, 개가하시오 머물지 말고
 善侍新姑嫜, 새로운 시부모 잘 모시고
 時時念我故夫子。」 때때로 옛 남편인 나를 생각해주시어.
 報書往邊地, 변방으로 답장이 왔는데,
 「君今出語一何鄙! 당신은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십니까.
 身在禍難中, 당신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何為稽留他家子。」 어떻게 남의 집으로 시집가란 말입니까.
 生男慎莫舉, 아들을 낳으면 절대로 기르지 않을 것이며,
 生女哺用脯. 딸을 낳으면 육포를 먹여 기르겠어요.
 君獨不見長城下, 당신만 유독 장성 아래에
 死人骸骨相撐拄. 죽은 해골이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걸 못 보셨는지요?
 結髮行事君, 머리 얹고 결혼하여 당신을 섬긴 이후,
 慊慊心意關, (신혼에 헤어져) 원망스럽지만 마음은 걱정했는바,
 明知邊地苦 변방에서 고생하시는 걸 뻔히 아는데
 賤妾何能久自全 천첩만 어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장성을 쌓는 역졸과 관리의 문답. 역졸과 아내의 대화가 생동적으로 그려져 있고 민가색채가 선명하다. 대부분의 邊塞詩가 전쟁의 참상과 병사들의 고통을 읊는데 비해 위의 詩는 장성 축조 현장에 끌려간 젊은이의

입을 통해 장성 쌓기의 고통스러움을 편지 속 대화 형식을 빌어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다. 특히 “生男慎莫舉，生女哺用脯”는 두보의 시구 “信知生男惡，反是生女好”²⁶⁾와 함께 전쟁과 부역을 증오하는 친고의 절창이며,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은 宗法사회에서 “아들을 낳으면 기르지 않겠다는 것”은 극도의 반전 의식을 드러낸 패러독스라 하겠다.

王粲(177~217)의 대표작 「從軍行」 5수와 「七哀詩」도 邊塞의 전쟁이 초래한 비극적 사회 현실을 진실되게 반영하고 있다.

晋代에는 張華, 陸機, 左思, 劉琨 등이 있지만 사변적인 색채의 현언시 시단을 지배하였기에 邊塞詩는 이렇다할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중 난세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劉琨(270-317)의 「扶風歌」는 영웅의 기개와 애국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비장·강개한 정조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²⁷⁾

2) 南北朝時代

南朝 170년간(420-589)은 정치적으로는 宋·齊·梁·陳을 거치면서 혼란한 시기였다. 그러나 문학사적으로는 자각과 독립을 주창한 변혁의 시기이기도 하다. 永嘉의 난 이후 中原의 文人들이 강남으로 내려감으로써 중국 문화와 문학의 중심도 바뀌게 되었다. 當時의 문풍은 대체로 화려하고 형식이 완미한 유티주의 경향으로 흘렀다. 특히 宋文帝 元嘉時期는 문체는 排偶를 사용하고, 언어는 조탁을 추구하였으며 친고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런 풍조 속에 주목할 만한 작가는 宋 鮑照(414?~466)이다. 鮑照는 漢의 악부 민가를 계승하여 현실주의와 낭만주의적인 정신으로 邊塞詩의 체재를 개척하였으며, 5언보다 구식이 길고 자유분방한 7언 위주의 잡언

26) 「兵車行」

27) 洪謙, 『唐代戰爭詩研究』, 文史哲出版社, 29쪽.

시체를 창조하였다. 이로 인해 王夫之는 “7言詩의 비조는 단연코 포조이며, 이전에 작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희미한 가운데 새발자국일 뿐이다.”²⁸⁾ 라고 하였다. 5언과 7언 시 모두 처음에는 민간에서 발생한 노래였다. 5언 시가 7언 보다 늦은 東漢 시대에 文人들이 처음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악부에 수록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7언보다 빠르게 보편화되었다. 이렇게 5언 시가 주류를 이루고 7언 詩가 홀대받고 있던 시기에 鮑照의 7언 詩 「擬行路難」은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風格 면에 있어서도 元代 陳繹曾은 鮑照가 비분강개한 漢·魏의 風骨을 계승했다고 하였다.²⁹⁾ 다음 작품은 젊어서 從軍하였으나 백발이 성성하도록 귀향하지 못하고 戰場을 유랑하는 늙은 군인의 망향의 정을 읊은 「擬行路難 18首」의 제 14首이다.

| | |
|-----------|------------------------------|
| 君不見少壯從軍去， |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젊고 건강할 때 종군하여, |
| 白首流離不得還。 | 백발이 되어도 떠돌며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
| 故鄉杳杳日夜隔， | 고향은 아득하게 밤낮으로 멀어지고, |
| 音塵斷絕阻河關。 | 소식은 강과 산에 가로 막혀 끊어졌다. |
| 朔風蕭條白雲飛， | 삭풍은 스산하고 흰구름 날리는데, |
| 胡笳哀急邊氣寒。 | 북쪽 오랑캐의 피리소리 애절하고 변방날씨 차갑다. |
| 聽此愁人兮奈何， | 이 소리 들으니 시름을 어이할까나, |
| 登山遠望得留顏。 |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젊음을 잡아볼까? |
| 將死胡馬跡， | 장차 오랑캐 말발굽 아래에서 죽으리니, |
| 寧見妻子難。 | 아내와 자식은 만나기 힘들겠지. |

28) 王夫之 評選, 張國星 校點, 『古詩評選』, 文化藝術出版社, 45쪽: “七言之制, 斷以明遠爲祖, 何? 前雖有作者, 正荒忽中鳥徑耳.”

29) 元代 陳繹曾이 “六朝文氣衰緩, 唯劉越石·鮑明遠有西漢氣骨, 李杜筋取此.(六朝 시대 문장의 기세는 약하고 느슨한데 반해, 오로지 西晉의 劉琨과 宋의 鮑照만이 西漢의 氣骨을 지니고 있는데 李白과 杜甫는 여기에서 筋力을 취하였다.”

男兒生世轆軻欲何道? 남아로 세상에 나서 때를 만나지 못했으니 무슨
말 하리?

綿憂摧抑起長嘆. 끝없는 시름을 억지로 누르자니 한숨만 나는구나.

잡은 전쟁은 출정군인은 물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부녀자에게도 고통을 안겨주었다. 포조가 몇 번 종군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³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던 종군의 고뇌와 슬픔을 애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늙은 군인의 회고적 토로는 정작 포조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서 오는 비애감과 맞물려 매우 침울한 정서를 느끼게 하며, 남아로 태어나 때를 만나지 못한 懷才不遇의 울분을 토로하였다.

邊塞詩에 있어서 鮑照의 공헌에 대해 蘭翠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하여 평하였다. 첫째, 曹植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영웅의 형상을 발전시켜 壯士의 사업을 노래하고 시인의 원대한 포부를 표현하였다. 둘째, 장기간 변방에 종군하는 병사들의 고통을 묘사하면서 懷才不遇한 인사의 원망과 분노를 기탁하였다. 셋째, 경물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비교적 뛰어난 예술 효과를 거두었다. 넷째, 7언 잡언체의 형식으로 종군한 병사가 아내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보편화 시켰다³¹⁾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분방한 필체로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토로한 鮑照의 악부시는 李白을³²⁾ 비롯한 唐代 시인에게 영향을 미쳐 「擬行路難」과 동일한 제목의 시가 18명의 작가에 의해 무려 35수나 지어졌다.³³⁾

30) 金志恩, 『鮑照「擬行路難」18首 研究』, 한대석논, 2005. 46쪽 참조.

31) 蘭翠, 「論唐以前征戍詩的發展」 『烟臺大學學報』 1992, 3. 76쪽.

32) 朱熹, 『朱子語類』 권140, 「論文下詩篇」, 上海古籍出版社, 2002, 4321쪽: “鮑明遠才健, 其詩乃選之變體, 李太白專學之.”

33) 盧照隣, 張絃, 李白 3수, 崔顥, 賀蘭進明 5수, 顧況 3수, 高適 2수, 張籍, 聶夷中, 韋應物, 柳宗元 3수, 鮑溶, 僧貫休 5수, 僧齊己 2수, 翁綬, 薛能 이 擬作을 했으며, 駱賓王은 從軍中行路難 2

北朝는 北魏의 건국에서 北周가 隋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근 200년간의 기간이다. 문학의 중심이 남쪽으로 옮겨감에 따라 북조의 文人들은 참고 견디거나 異民族들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빈번한 전쟁으로 인한 작품의 유실로 현존하는 작품이 많지 않고, 질적인 수준이 南朝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도 기인하겠으나, 南北朝 연구에 있어 무게 중심은 南朝에 있고 北朝에 대한 연구는 구색 맞추기의 일환으로 부차적인 위상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北朝 문학에 관한 전문 연구물이 나와 이전 보다는 많은 진전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³⁴⁾

北朝의 주목할 만한 작가는 庾信(513-581)과 王褒(513-576)가 대표적이다. 梁나라의 文人 庾信은 庾肩吾의 아들로 48세 때 北朝에 사신으로 갔다가 梁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돌아오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억류당했다. 庾信은 梁나라의 궁정에 출입하면서 화려하고 관능적인 궁체시를 잘 지었으나 이후 고향인 강남을 떠나 풍토가 다른 북조에 살면서 느끼는 망향의 정과 망국의 비애를 예민한 감각적 묘사와 교묘한 典故, 對句를 통해 잘 묘사하였다. 작품으로는 「哀江南賦」와 「詠懷」시가 유명하다. 王褒는 庾信과 同時代 사람이면서 庾信과 같이 魏나라에 억류되었으며 결국 돌아가지 못했다. 현존하는 작품은 모두 北朝에 있을 당시 오랜 나그네 생활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탄식으로 풍격이 웅건하다. 작품으로는 「從軍行」 2수와 「關山篇」 등이 있다. 이들 두 시인에 대해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고, 화려하면서도 전아할 수 있다.”³⁵⁾라는 평은 이들이 남북의 문풍을 융합하여 새로운 문풍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로 王昌齡은 變行路難으로, 18 명의 작가가 무려 35 수의 시를 지었다.

34) 李開元·管芙蓉의 『北魏文學簡史』(1993), 周建江의 『北朝文學史』(1997), 吳先寧의 『北朝文化特質與文學進程』(1997).

35) 『周書王褒庾信傳論』：“和而能壯，麗而能典。”

일반적으로 南朝와 北朝 문학에 대해 고정된 관념을 지니고 있다. 즉 “江左는 宮商의 가락이 드높아 경쾌한 아름다움을 중시하였고, 河北은 詞義가 강직해 氣質을 중시하였다”³⁶⁾는 것이다. 그러나 唐代의 邊塞詩가 호방한 기개를 지녔다고 하여 북조문학의 영향만을 받아 발전된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과해서 안 될 것은 南朝의 文人들 역시 100여 수의 邊塞詩를 창작하였으며 이러한 작품들이 初·盛唐 邊塞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初·盛唐 邊塞詩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남조 邊塞詩에서 慣用되던 악부고제를 사용한 점이나 詩語의 활용 등으로 볼 때 남조 邊塞詩가 初·盛唐 邊塞詩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³⁷⁾

4. 初唐時期

30여 년 만에 隋 왕조가 끝나고 李淵에 의해 唐 왕조가 세워지면서 중국은 다시 공고한 단일 제국의 시대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隋末부터 계속된 突厥, 吐谷, 契丹 등 변방 異民族들과의 충돌은 더욱 빈발하였고, 唐朝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唐의 초기 정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변방의 여러 민족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 정책과 화친정책을 혼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唐에 일시적으로 안정을 가져다주었고 또한 오랫동안 혼란의 와중에 있던 일반 백성들의 이익에도 합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펼쳤음에도 변방에서의 충돌은 끊이질 않았고, 異民族과의 잦은 충돌은 조정뿐 아니라 많은 文人들의 관심을 끌었다. 대외적으로 異民族을 제압하고 영토확장을 계속하게 되자 文人들에게도 投筆從軍

36) 陳伯海, 『唐詩學引論』, 東方出版中心, “江左宮商發越, 貴于輕綺; 河朔詞義貞剛, 重乎氣質.”

37) 王文進, 『南朝邊塞詩新論』, 臺北, 里仁書局, 2000.

하여 愛國報恩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어 넣어 주었고 아울러 개인적으로 원정에 참가함으로써 문학적 견문도 넓히고 建功立業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初唐詩에 전쟁을 지지하고 승리를 찬양하며 기꺼이 從軍하는 애국정신을 노래한 시가 많은 것도 모두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한편으로 인류에 극심한 불행과 재난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시인들이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들이 詩歌 안에서 적극적인 主戰意識을 반영한 이유에 대해 胡雲翼은 “두 가지 원동력 즉 개성을 중시하는 內的 원인과 功名에 대한 유혹이라는 外的 원인이 귀결되었기 때문”³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초당 邊塞詩 내용상의 전형적인 특징은 ‘建功立業의 바람’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군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병사들의 종군 상황이나 군대생활 등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표현해내기도 하였고, 변방의 풍광과 먼 이역 땅의 새로운 풍물을 묘사하였으며, 변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初唐시기 邊塞詩를 창작한 文人은 唐太宗을 비롯하여 初唐四傑, 陳子昂, 張說(667-730), 李嶠 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初唐四傑과 陳子昂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初唐四傑

初唐四傑이라고 불리던 王勃(648~675)과 楊炯(650~692), 盧照隣(637?~676?), 駱賓王(640~680?)이 시단에 등장함으로써 시가의 기풍에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다. 그들은 지위는 높지 않았으나 재주와 명성이 자못 높았던 젊은 시인들로 宮庭詩의 협소한 내용과 공허한 형식에 불만을 가졌다. 이에 공업을 세우려는 시인의 웅대한 포부나 悲歡離合의 갖가지 인생감개를 묘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聞一多是 『唐詩雜論·

38) 胡雲翼, 『唐代的戰爭文學』, 臺灣商務印書館, 1977. 25쪽: “曾經把它歸結爲兩種原動力:一種是在內的原因-重意氣. 一種是在外的原因-功名的誘惑.”

四傑』에서 시가의 표현범위를 “宮庭에서 市井으로, 樓臺와 殿閣에서 강산과 변새와 사막으로 옮겨가게 하였다.” 39)고 하였다. 四傑의 邊塞詩 수량은 駱賓王 22수, 40) 王勃 2수, 41) 楊炯 9수, 42) 盧照隣 12수 43) 등이며, 앞에 언급하였듯이 초당 邊塞詩의 특징 역시 建功立業에 대한 바람이다. 그들은 대부분 생활이 빈궁하여 불우한 인생을 살았다. 王勃은 28세에 南海를 건너다 익사하였고, 44) 盧照隣은 40년의 생애에서 1/4인 10여 년을 병고의 세월을 보내다가 45) 40세에 지병을 비관한 나머지 潁水(지금의 하남성 登封縣)에 빠져 자살하고 말았다. 駱賓王은 정치운동에 실패한 후 도망하던 중 53세에 살해되었다는 설도 있고 자취를 감추었다는 설 등 異說이 분분하다. 4인 중 楊炯만이 43세에 온전하게 생을 마쳤으니 이만하면 그들의 불우함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겠다.

初唐四傑의 작품은 從軍의 상황이나 군대의 생활을 제재로 하였지만 駱賓王을 제외한 3人 王勃·楊炯·盧照隣은 실제 從軍한 경험이 없어 단지 변방의 장사나 중군의 경력이 있는 知人과의 접촉을 통해 전해들은 바를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표현해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詩題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駱賓王의 경우 「晚度天山有懷京邑」·「宿溫城望軍營」·「夕次蒲類津」 등과 같이 실제로 종군하는 동안에 머물

39) 聞一多, 『唐詩雜論四傑』: “由宮庭走到市井, 從台閣移至江山與塞漠”

40) 「從軍中行路難」 「從軍行」 「軍中行路難同辛商伯作」 「晚度天山有懷京邑」 「夕次蒲類津」 「西行別東臺詳正學士」 「在軍中贈先還知己」 「邊城落日」 「宿溫城望軍營」 「邊庭有懷」 「早秋出塞寄東臺詳正學士」 「久戍邊城有懷京邑」 「在軍城登樓」 「蓬萊鎮」 「詠懷古意上裴侍郎」 「至分水戍」 「晚泊江鎮」 「早發諸暨」 「遠使海曲春夜多懷」 「海曲書情」 「晚泊河曲」 「晚渡黃河」 「望月有所思」 「權歌行」

41) 「秋夜長」 「采蓮曲」

42) 「從軍行」 「劉生」 「紫驄馬」 「出塞」 「有所思」 「梅花落」 「折楊柳」 「戰城南」 「驄馬」

43) 「劉生」 「隴頭水」 「巫山高」 「芳樹」 「雨雪曲」 「折楊柳」 「梅花落」 「關山月」 「上之回」 「紫驄馬」 「戰城南」 「結客少年場行」

44) 安炳國, 『初唐四傑詩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92, 57쪽.

45) 洪讚, 앞의 책.

렸던 지명들을 사용하여 변방의 생활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한편, 기백이 웅건하고 忠君의 사상이 강렬한 내용을 읊었다. 그밖에 기이한 변세의 풍광을 군대 생활 중의 감회와 융화시켜 묘사하거나 비분강개한 병사들의 투지와 처량하게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읊기도 하였다. 반면에 나머지 3인은 「劉生」·「折楊柳」·「紫騮馬」·「戰城南」·「梅花落」 등의 전통적인 樂府題를 사용하여 주로 떠나간 님을 그리워하거나 고향을 생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盧照隣은 특히 7언 가행의 작품을 많이 지었으며 建安 문학뿐 아니라 나아가 南朝의 문학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였다.⁴⁶⁾ 특히 鮑照의 「擬行路難」과 같은 제목인 「行路難」은 7언 위주의 잡언체로 표현기법이나 내용에 있어 鮑照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楊炯은 盧照隣과 같이 전통적인 樂府題를 사용하여 ‘離愁別恨’을 주로 노래하였다. 邊塞의 풍광이나 군대생활을 묘사하는데 있어서도 전통적인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웅건한 기백이 駱賓王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애국적 격정은 그에 못지않았다. 王勃은 요절한 관계로 작품 수는 많지 않다. 그의 邊塞詩는 있어서도 다른 3인과 같은 호방함은 느껴지지 않고 전쟁의 고통과 변세 생활의 설움을 노래하는데 주로 치중하였다.

初唐 邊塞詩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建功立業의 바람’은 四傑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建功立業함으로써 애국보은하고 출세해 보려는 강렬한 욕망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초기 邊塞詩는 매우 유사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楊炯과 駱賓王의 「從軍行」은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從軍行」－楊炯－

烽火照西京， 烽燧燭 塞垣。 匈奴 未滅 漢 軍 安 可 休。

46) 安炳國, 앞의 논문, 101쪽.

心中自不平. 마음이 절로 편치 않구나.
 牙璋辭鳳闕, 출정군 위용을 갖추고 궁성을 떠나
 鐵騎繞龍城. 드높은 사기로 적진을 에워쌌다.
 雪暗凋旗畫, 펄펄 날리는 눈발에 깃발은 축 처지고
 風多雜鼓聲. 썩썩 부는 바람 속에 북소리 들린다.
 寧爲百夫長, 병사들의 우두머리 되는 것이
 勝作一書生. 일개 서생보다 나으리!

위의 시는 楊炯의 「從軍行」이다. 첫째 구는 전화의 기운이 서북 변경에서 전해옴으로 長安은 전쟁 준비로 부산해지고 작자도 建功立德의 바람으로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간의 네 구는 장사가 명을 받고 변방에 나가 적을 무찌르고 공을 세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는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백발 서생이 되느니, 전쟁터에 나가 북방 異民族과 싸우는 즐거움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尙武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 작품은 駱賓王의 「從軍行」이다.

平生一顧念, 지극한 보살핌 받으니,
 意氣溢三軍. 의기가 삼군에 넘쳐흐르네.
 野日分戈影, 들판의 햇빛 아래 창 그림자 선명하고,
 天星合劍文. 하늘의 별들은 칼의 무늬와 어우러지네.
 弓弦抱漢月, 활을 달빛 아래 끌어안고
 馬足踐胡塵. 말발굽은 먼지 일어나는 오랑캐 땅 달린다.
 不求生入塞, 변방에서 살아서 돌아오길 원치 않으리니
 唯當死報君. 오직 죽기로 임금께 보답하려네.

威亨 元年(670)에 駱賓王이 처음으로 종군하면서 지은 시이다. 당시 그는 東臺詳正學士의 관직에 있는 동안 견책을 받고 벼슬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다행히 吏部侍郎으로 있던 裴行儉의 추천으로 吐蕃 정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나머지 격분한 심정을 죽음으로써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로 답하고 있다. 씩씩한 기상과 원대한 포부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다음은 盧照隣과 楊炯이 同題로 지은 작품이다.

「劉生」-盧照隣-

劉生氣不平， 유생은 기분이 평안치 못하여
 抱劍欲專征. 칼을 품고서 정벌에 나서기를 원하네.
 報恩為豪俠， 은혜를 갚으면 호걸이 되리니,
 死難在橫行. 죽음의 간난이 가로막고 있다.
 翠羽裝刀鞘， 푸른 깃으로 장식한 칼 집,
 黃金飾馬鈴. 황금으로 새긴 말의 방울.
 但令一顧重， 단지 의리를 중히 여길 뿐,
 不吝百身輕. 목숨 바치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

「劉生」-楊炯-

鄉家本六郡,⁴⁷⁾ 그대의 집은 본래 육군에 있었는데
 年長入三秦.⁴⁸⁾ 나이가 들어 삼진으로 들어간다.
 白璧酬知己， 흰 옥으로 지기에게 보답하고
 黃金謝主人. 황금으로 주인에게 사례한다.
 劍鋒生赤電， 칼날에는 적색의 전광이 생겨나고
 馬足起紅塵. 말의 발에는 붉은 먼지가 일어난다.

47) 六郡:漢의 隴西, 天水, 安定, 北地, 上郡, 西河의 육군을 가리킴.

48) 三秦:진나라가 망한 후 項羽가 關中을 三分한 지역으로 지금의 陝西省 일대.

日暮歌鐘發， 해가 저무니 노래 소리 울려
喧喧動四隣. 시끄럽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네.

俠客 劉生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들의 建功立業에 대한 열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작품으로, 이러한 표현법도 盛唐 邊塞詩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법이다.

이처럼 唐 제국 창업 초기에는 영토확장에 따른 민족적 우월감과 이 기회를 이용하여 출세하고자 하는 主戰的인 분위기와 尙武정신이 각 시인들 시속에 넘쳐흐른다. 이러한 기풍은 駱賓王의 초기 작품 속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붉은 깃대와 깃발 하얀 깃털 장식과 대비되는데 나는 단심과 흰 칼날로
훌륭한 임금에게 보답하리라. 임금이 나의 마음 알아주기만 한다면, 누가
변방에서 정역의 고통을 마다하리오.(絳節朱旗分白羽， 丹心白刃酬明主。
但令一被君王知， 誰憚三邊征戰苦。) 「從軍中行路難·二首」 제 1수

붓을 던지고 종군한 반초의 업적을 생각하고, 전쟁에 임해서는 顧榮의
공훈을 생각하네. 마땅히 한나라의 수치를 설욕하여, 이것으로 명군에 보
답하리라.(投筆懷班業， 臨戎想顧勳. 還應雪漢恥， 持此報明君.)

「宿溫城望軍營」

용정에는 단지 괴로운 전쟁만이 있는데, 제비턱 관상만 가지고 봉후가
되려 하는구나. 賀蘭山⁴⁹⁾ 아래에서 공연히 한나라를 부끄럽게 하지 마
라.(龍庭但苦戰， 燕領會封侯. 莫作蘭山下， 空令漢國羞。) 「夕次蒲類津」

49) 내몽고자치구에 있는 山名, 당나라와 접경을 이루고 있었음.

웅장한 뜻은 창시를 능가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흰무지개 해를 뚫으니,⁵⁰⁾
 임금의 은혜 어찌 보답할 수 있으랴? 한 쌍의 신검으로 보답하리.(壯志
 凌蒼兕，精誠貫白虹。君恩如可報，龍劍有雌雄。) 「邊城落日」

四傑 詩에 보이는 이러한 적극적인 主戰의식은 이들만이 가졌던 생각
 이 아니라 當時 初唐 文人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었다. 예를 들
 어 초당 후기 유미풍을 계승하면서 율시 완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문장사우⁵¹⁾의 한 사람인 李嶠(645-714)의 시구 “변방을 회수하라는
 조서를 받들으니 병졸 거느리고 삭방을 축조하리. 저 개나 양 같은 족속
 을 몰아내어, 이 오랑캐와 중국의 경계를 바로 하리니(奉詔受邊服，總徒
 築朔方。驅彼犬羊族，正此戎夏疆.)”⁵²⁾와 같이 충군애국사상이나 승전을
 독려하는 영웅적 기개, 승리에서 오는 공명심의 발로 등의 주전의식을 표
 현하였다.

唐 太宗·高宗 연간에 적극적인 변방 공략으로 인해 변방의 생활을 실제
 로 경험한 文人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시로 표현해냄으로써 邊塞詩의 발
 전에 공헌했으나 하나의 풍격을 형성하기에는 아직 미흡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발전에 있어 초당은 盛唐 시가의 준비 기간이며, 邊塞詩의 질과
 양에 있어서 盛唐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초당 나름대로 웅장한 특색을 지
 냈다.⁵³⁾ 현종 연간에는 前期만큼 판도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국세가 크

50) 『史記·魯仲連鄒陽列傳』：“昔者荊軻慕燕丹之義，白虹貫日，太子畏之。”의 고사인용. 상서롭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흰색의 긴 무지개가 해를 뚫고 지나가는 (白色長虹穿日而過)등, 하늘에 변
 화가 일어남을 의미함.

51) 문장사우:崔融, 李嶠, 蘇味道, 杜審言

52) 李嶠, 「奉使築朔方六州城率爾而作」

53) 洪謙, 앞의 책, 42쪽.

게 신장됨에 따라 高適·岑參·王昌齡·王之渙 등의 시인들이 앞 다투어 변방으로 나아가 실제로 경험한 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해냄으로써 邊塞詩가 비로소 하나의 유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2) 陳子昂

詩歌 발전사상 四傑이 齊梁 遺風의 영향과 격률형식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일정 부분 창조성과 진보적인 면에서 한 시대의 詩風을 열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초당사결 이후 武則天의 통치 후기 시단은 사결의 시가에서 기골과 성률의 요소가 각기 발전하는데⁵⁴⁾ 그중 기골의 요소를 발전시킨 이가 陳子昂이다.

陳子昂은 四傑의 뒤를 이어 진정 자각적으로 齊梁 이래로 내용 없이 겉만 화려한 악습을 일소하고 漢魏風骨로 돌아갈 것을 주창하여 시가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다.⁵⁵⁾ 이것을 계기로 陳子昂은 제량의 여풍을 말끔히 제거하고 사결의 성취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 이후 風骨은 당시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표식이 되었다. 陳子昂에 대해 盧藏用은 “퇴폐적인 물결을 가로막고, 내용과 수식을 일변시킨 것”⁵⁶⁾이라 하였는데 이는 평소 그의 이론과 신념이 선명하고 자각적이었기에 가능하였다.

54) 氣骨은 陳子昂에 의해서 성률은 沈全期(656?~713?)·宋之問(656?~713?)에 발전되었다.

55) 陳子昂, 「與東方左史糾修竹篇序」: “文章道弊五百年矣! 漢魏風骨, 晉宋莫傳, 然而文獻有徵者. 僕嘗暇時觀齊梁間詩, 採麗競繁而興寄都絕, 每以永嘆, 思古人常恐逶迤頽靡, 風雅不做, 以耿耿也. 一昨於解三處, 見明公詠孤桐篇, 骨氣端翔, 光英朗練, 有金石聲, 遂用洗心節視, 發揮幽鬱. 不圖正始之音, 復睹於茲, 可使建安作者相視而笑(문장의 도가 퇴폐한 지 5백 년이 되었다. 漢魏의 風骨은 晉宋에 전해지지 않았으나 문헌으로는 살펴볼 만한 것이 있다. 내가 일찍이 한가할 때 齊梁 간의 시가를 보니 화려함을 좇아 번잡함을 다투어 興寄는 모두 끊기고 매번 긴 탄식만 하였다. 古人을 생각하니 文風이 계속해서 쇠락 퇴폐해져 風雅의 문풍이 진작되지 못할까 늘 걱정되어 마음이 편치 못하였다. 언젠가 解三의 처소에서 公의 「詠孤桐篇」을 보았는데, 風骨과 기백이 강직하고 고귀하며 音情은 변화가 풍부하고 리드미컬하고 아름답고 빼어난 문사는 명쾌하고 응련되어 있어 훌륭한 절주를 이루었다. 마침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눈을 닦고 살펴보니 가슴에 쌓였던 근심 걱정이 싹 가졌다. 정시의 노래를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못했다. 건안작자들로 하여금 마주 보며 웃게 하리라).”

56) 盧藏用, 「右拾遺陳子昂文集序」: “橫制頽波: 質文一變.”

陳子昂(661-702)의 字는 伯玉이며 梓州 射洪(지금의 사천성 사흥현) 사람이다. 그는 호족 출신이었지만 소년 시절 名敎(유가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한 俠客을 숭상하였다. 陳子昂의 문학창작의 배경에는 호탕한 翫객 기질을 지녔던 부친의 영향이 있었다. 陳子昂의 부친은 元敬(元敬)으로 명경과에 합격하였으나 집에 은거하여 많은 책을 두루 읽었다. 盧藏用的 『陳氏別傳』에 보면 부친 元敬의 인품에 대해 “20세에 호탕한 翫객으로 이름이 났으며 때마침 향인들이 굶주리자 하루아침에 만종의 곡식을 풀고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⁵⁷⁾ 라고 기록하고 있다. 부친의 이런 성품이 陳子昂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盧藏用도 『陳氏別傳』에서 陳子昂의 성품을 “재물을 경시하여 베풀길 좋아하였으되, 남에게 보답을 원치 않았다(好施輕財, 而不求報).” 라고 평하고 있다.

그의 문학 창작의 또 하나의 배경은 그의 淵博한 학문에 있다. 그가 학문에 뜻을 둔 것은 20세 가까워서였다. 그는 처음에는 방탕아로 翫기를 부리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17-8세에 이르도록 책을 읽지 않았다. 그러다가 향학에 입학한 후 학문에 뜻을 두고 분발, 노력하였다. 문객들을 거절하고 수년간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하여 經·史·百家書를 두루 섭렵하였고 특히 詩文에 능통하게 되었다.⁵⁸⁾ 陳子昂은 정치에 투신하여 공적을 세우길 원해 21세에 고향을 떠나 낙양에 가서 태학에 입학을 하고 24세 때 진사에 급제하였다. 당시는 측천무후가 중종을 폐하고 중종의 동생인 예종을 즉위시켜 연호를 바꿔 문명 원년이였다. 子昂은 하잘것 없는 신분으로 조정에서 상소를 거듭하여 재능을 인정받아 관직을 받게 되었다. 그는 당시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해 꿰뚫고 있어 국가와 백성에게 이로운 점과 변방의 문제 등을 솔직하게 간언하였다. 그는 전쟁의 종식을 주장하였지만 契丹의 반란이 있자 從軍을 자청하였으며 국가와 백성에게

57) 盧藏用的 『陳氏別傳』: “年二十以豪俠聞, 屬鄉人阻飢, 一朝散萬鍾之粟而不求報.”

58) 盧藏用, 『陳氏別傳』

해가 된다고 여기면 적극적으로 충고를 서슴지 않았다. 두 차례 從軍에서 자신의 애국적 열망이 큰 타격을 입자 실의와 비통함에 빠졌다. 이 때의 懷才不遇한 심정과 비참한 마음이 「登幽州臺歌」 등에 잘 나타나 있다.

「登幽州臺歌」는 변세의식이 풍부하고 風骨·興寄의 미적 특성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⁵⁹⁾ 陳子昂의 邊塞詩는 모두 34수로 자신의 전체 시 127 수 가운데 거의 1/4에 해당하며 그의 두 차례 출세의 경험과 작품 속에 나타나는 전쟁에 대한 태도는 모순된 측면이 보이기도 한다.

陳子昂의 邊塞詩는 내용에 따라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시와 개인적인 이상과 정회를 읊고 있는 시, 변세의 풍광을 묘사하고 있는 시로 나눌 수 있다.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시들은 당시의 사회 풍모를 여실히 반영하고 강건하고도 질박한 풍격과 기세 넘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가 주장한 시가 이론에 일치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시들을 세분하면 백성들의 고난과 중군하는 병사들을 동정하고 있는 시와 위정자의 부패함을 폭로하고 풍자함으로써 대개 반전사상이 나타나 있다. 다음의 「感遇」 제 3수는 전쟁의 죄악을 폭로하고 병사들에 대한 동정심을 그리고 있는 시이다.

蒼蒼丁零塞, 아득히 드넓은 丁靈⁶⁰⁾의 국경에는
今古緬荒途. 예부터 황량한 길 아득히 뻗어 있었다.
亭堠何摧兀, 수루는 우뚝 섰는데
暴骨無全軀. 길가에 드러난 해골은 온전한 것 없도다.
黃沙幕南起, 누런 모래바람 사막의 남쪽에서 일어나고,

59) 蘇珊玉, 『盛唐邊塞詩的審美特質』, 臺北, 文津出版社, 2000.

60) 丁靈: 丁令, 丁靈이라고도 칭하며 漢나라 때 흉노의 속국이 되었다. 중국 북부와 서북부 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했던 소수민족.

白日隱西隅. 밝은 해는 서녘으로 숨는구나.
 漢甲三十萬, 삼십만 한나라 군사
 曾以事匈奴. 흉노와 전쟁을 벌였었지.
 但見沙場死, 사막에는 죽은 자만 보일 뿐,
 誰憐塞上孤. 뉘라서 변세의 고독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랴.

이 시는 陳子昂이 喬知之를 따라 종군하던 일을 회상한 것인데 당시 종군하면서 전후의 참상을 목도한 것이다. 첫째 연에서는 광대한 丁靈地의 황량한 광경을 묘사하였고, 둘째 연에서는 황량한 사막에 나뒹구는 해골을 묘사하여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였다. 셋째 연은 황량하고 열악한 사막의 기후조건을, 넷째 연은 과거 匈奴와의 전쟁 사실을, 다섯째 연에서는 북방 從軍의 실패와 그로 인한 무고한 군사들의 희생을 담고 있다. 시 전체적인 흐름은 당나라 장수의 전략적 실패를 던지시 비판하면서 무고한 병졸들의 덧없는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상과 정회를 읊은 시는 영웅적인 기개로 忠君愛國의 호방한 뜻과 建功立業의 염원을 담고 있고, 이러한 이상과 염원의 좌절로 야기되는 실의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 「感遇」 제 37수는 建功立業에 관한 내용의 시이다.

朝入雲中郡, 아침에 운중군에 들어가
 北望單于台. 북쪽 선우대를 바라본다.
 胡秦何密邇, 오랑캐쪽 땅이 어찌도 가까운지
 沙朔氣雄哉. 사막의 찬 기운 세기도 하여라.
 藉藉天驕子,⁶¹⁾ 구름떼처럼 많은 오랑캐,

61) 天驕子:天之驕子의 약칭, 흉노가 스스로를 칭하는 호칭, 강성한 변세의 소수민족, 혹은 그 수령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임.

猖狂已復來. 미쳐 날뛰며 다시금 몰려오네.
 塞垣無名將, 변새엔 명장이 없으니,
 亭堠空崔嵬. 수루만 부질없이 우뚝 섰도다.
 咄嗟吾何嘆, 한숨지으며 내 무얼 탄식하는가?
 邊人塗草萊. 변방 지키던 병사들 들판을 메웠구나.

이 시는 陳子昂이 契丹 정벌에 희생된 무고한 병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군통수권자의 무능함을 고발하고 있다. 셋째 연까지는 雲中郡과 單于台 형세와 북방의 추운 날씨 풍토를 묘사하였고, 넷째 연에서는 변새에 명장이 없어 적군에게 힘없이 무너진 당나라 군사의 무력함을, 末연에서는 전장의 참상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皎然은 “子昂의 감우시는 그 근원이 完적의 영회시에서 나왔다.” 62)라고 하였고, 明代 王世貞은 “完적의 영회시는 어디에 있든 간에 경치를 만나면 교감을 이루어 읊어내고, 흥이 다하면 그만 두었다. 그의 영회시에는 조금도 의론의 색채가 들어있지 않다. 사람들도 陳子昂이 그 면에서는 完적을 능가한다고 하였는데 어찌 陳子昂이라고 해서 감흥이 없었겠는가?” 63)라고 完적과 陳子昂의 다른 점을 평하였다. 그밖에 중군 생활로 야기된 향수와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작품도 있으며, 변새의 기이한 초목과 풍광을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도 있는데 그 작품 속에서 애국정신을 느낄 수 있다.

陳子昂의 邊塞詩의 예술적 특성은 漢魏風骨을 선양하는 동시에 興寄의 개념도 제기하였는데 그가 말한 ‘比興寄託’은 漢代 儒家의 教化說과는 달리 시가 작품에 깊이 있는 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헛되이 수식에 힘쓰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그가 제창한 풍골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으로

62) 皎然, 『詩式』: “子昂感遇, 其源出于阮公詠懷.”

63) 王世貞, 『藝苑卮言』卷三: “阮公詠懷, 遠近之間, 遇境卽際, 興窮卽止. 坐不着論宗佳耳. 人乃謂陳子昂勝之, 何必子昂, 寧無感興乎哉.”

로 일치하고 있으며, 풍격은 비장·강개하고 강건·질박하여 建安 시기 邊塞 詩풍과 흡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 陳子昂의 시가 성취는 唐代 寒士 계층의 정치적 성숙과 문학적 진전을 나타내지만 한편으로는 “되돌린 것은 많으나, 변화는 적다.”⁶⁴⁾는 폐단을 지니게 했다는 지적과, 齊·梁을 초월하여 漢·魏로 거슬러 올라갈 때, 六朝시인이 장기간 누적한 창작경험과 생명력이 풍부한 표현형식에 대해 합당한 존중을 하지 못했고 전면적인 흡수도 하지 못했거나 고의적으로 가볍게 여겼던 것 같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⁶⁵⁾ 어찌되었건 결론적으로 唐詩 발전에 있어서 陳子昂의 詩歌 창작 이론은 초당 백여 년을 이어온 齊·梁의 詩風을 끊고 興象과 氣骨이 풍부한 盛唐 시풍의 막을 올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로써 盛唐시인의 시가 창작에 있어 風骨과 興寄의 싹이 트게 하였던 것이다.⁶⁶⁾

64) 皎然, 『詩式·復古通變體』: “復多而變少.”

65) 陳伯海 『唐詩學引論』 112쪽

66) 최경진, 『高適·岑參의 邊塞詩 비교연구』 49~52쪽 참조, 연세대 박사논문, 1994.

Ⅲ. 盛唐 邊塞詩의 創作背景

1. 政治的 배경

唐 왕조는 대부분 戰禍에 휩싸인 시대라 할 수 있다. 盛唐의 前期는 왕조 초기의 불안정한 제반 요인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상당히 안정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가 유지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資治通鑒』의 기록에 의하면 玄宗 재위기간 동안 전쟁 횟수는 대략 6-7십여 차례나 되며 쌍방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만큼 전쟁은 치열하였다. 수많은 젊은 목숨을 앗아갔고 막중한 군수물자의 조달로 국가재정은 갈수록 피폐해졌다. 그 일례로 개원 전에 매해 변방에 지급되는 군량과 의복이 2백만에 불과하던 것이 천보 후에는 의복 2천만 필, 군량 190만 곡에 이르렀다고 한다.⁶⁷⁾ 이렇게 잦은 전쟁의 원인은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주변 異民族들이 끊임없이 변방을 어지럽혔다. 唐을 중심으로 한 북방의 突厥, 東北의 奚와 契丹, 西北의 西突厥·回紇 서쪽의 吐蕃, 高昌 吐谷渾, 龜茲 疏勒 및 西南方의 南詔 등이 불모의 땅인 大漠으로 둘러싸여 있어 酷暑나 酷寒이 계속되는 악천후 속에서 초원을 따라 끊임없이 유랑하며 유목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지리적 구조와 생활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상대적으로 늘 풍요로운 중원 땅을 탐내었다.⁶⁸⁾ 다음으로는 내부의 정치적 불안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주변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을 취한 데도 원인이 있었다. 특히 玄宗은 강력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방어위주였던 변방정책을 적극적인 영토확장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였

67) 兪炳禮, 「邊塞詩에 나타난 反戰思想」 『中語中文學 卷 17집』 86쪽 재인용(『資治通鑒唐紀 31조』)

68) 兪炳禮, 위의 논문 참고.

다.⁶⁹⁾ 盛唐의 邊塞詩는 바로 이와 같은 태평과 전란이 共存하는 독특한 시대상황이 주된 원인이므로 唐의 주변 異民族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吐蕃과의 관계

吐蕃은 오늘날 藏族의 선조로 한대의 羌族에서 비롯되었다. 南北朝 末期에 羌族은 라싸를 중심으로 일찍이 蘇毗國을 건립하였는데 隋에서는 女國이라고 칭하였다. 蘇毗의 남부에는 강족의 다른 한 부족인 耗牛部가 토번국을 세우고 수령은 贊普라고 칭하였다. 贊普의 뜻은 ‘웅건한 장부’ 라는 뜻이다. 隋末 唐初에 토번의 贊普 朗日論贊은 蘇毗를 병합하고 그 아들 松贊干布는 또한 羊同(티베트 아리 지역), 孫波(칭해성 옥수 지역) 등 여러 부족을 소멸 시켜 티베트 고원을 통일하고 라싸에 수도를 세웠는데 그 세력이 매우 강대하였다.⁷⁰⁾ 玄宗 이전, 太宗 때에는 文成公主를 松贊干布에게 시집을 보내는 등 관계가 밀접하였는데 松贊干布가 죽은 후 토번은 국력이 강해짐에 따라 자주 전쟁을 벌임으로써 唐과 긴 장관계를 조성하였다. 토번이 唐과의 전쟁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서역(지금의 新疆)이었다. 서역지역은 원래 서돌궐이 통치하였는데 당이 서돌궐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두 개의 도호부 昆陵, 濛池와 10개의 도독부와 州를 두어 이곳을 직접 관할구역으로 두었으며 뒷날 安西와 北庭의 도호부를 두어 서역을 다스렸다. 670년 토번은 서역의 중요한 전략거점인 安西 四鎮(龜茲, 于闐, 焉耆, 疏勒)을 침범하여 서역 전체를 점령하려 하였다. 무척천 때 당은 다시 四鎮을 빼앗아 왔다. 이후 토번과 당 사이 이곳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다. 당과 토번 사이에 일어난 가장 큰 전쟁이었던 石堡城 싸움에 대해 살펴보자.

69) 김학주·이동향·김영구·김진곤 공저, 『중국고전문학의 전통』,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70) 徐連達·吳浩坤·趙克堯 저, 중국사연구회 옮김, 『中國通史』, 청년사, 1989. 404-405쪽.

天寶 6년(747) 玄宗이 石堡城 강공을 명령하였으나 隴右節度使 王忠嗣는 석보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이므로 수만 군사의 목숨이 희생될 것이며, 설사 이긴다 해도 吐蕃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극력 반대하였다.⁷¹⁾ 결국 王忠嗣는 좌천되고 天寶 8년 야심에 불타오르던 哥舒翰에 의해 힘겹게 함락되었다. 싸움에는 이겼지만 그 치른 대가가 너무 컸던 탓에 승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했다.⁷²⁾ 李白은 「答王十二寒夜獨酌有懷」에서 哥舒翰의 무모함을 탓하고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의 대가로 자주색 관복을 입게 되었음을 꼬집고 있다.

| | |
|-------------|----------------------------|
| 君不能狸膏金距學鬪鷄, | 그대는 할 수 없으리, 여우기름 바르고 쇠발톱 |
| | 끼워 닭싸움 시키는 우리들 본받아, |
| 坐令鼻息吹虹霓。 | 임금 총애 얻어서 그 기세 하늘에 닿게 되는 것 |
| | 을. |
| 君不能學哥舒, | 그대는 배울 수 없으리, 가서한처럼. |
| 橫行青海夜帶刀, | 밤에도 칼을 차고 청해성 종횡무진하여, |
| 西屠石堡取紫袍。 | 석보성 싸움에서 수많은 병사 죽이고 그 공로로 |
| | 자주색 겹옷을 하사 받았던 것을. |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모한 전쟁을 수행하여 무고한 병사들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한 哥舒翰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실로 唐軍은 隴右, 河西, 突厥의 阿布思兵에다가 朔方과 河東의 병사까지 총 육만 삼천 명을 이끌고 몇 차례 격전을 벌였다. 결국 석보성을

71) 『資治通鑑』 권 205, 玄宗天寶六載: “石堡險固, 吐蕃舉國守之, 今頓兵其下, 非殺數萬人不能克, 臣恐所得不如所亡, 不如且厲兵秣馬, 俟其有釁, 然後取之.(석보성은 험하고 견고하며 토번이 온 힘을 다해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성 아래로 병사들이 주둔해 있지만 수만 명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신은 얻는 것이 잃는 것만 못할까 두려워 차라리 병사를 단련하고 말을 키우다가 약점이 생길 때를 기다려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2) 高適의 「同李員外賀哥舒大夫破九曲之作」에서와 같이 전적으로 찬동하고 있는 작품도 있다.

얻었으나 수만 병사의 목숨을 잃었고, 적의 포로는 고작 400명에 불과했다.⁷³⁾

천보 12년(753)에는 隴右節度使 哥舒翰이 吐蕃의 洪濟, 大漠門 등의 성을 함락시키고 원래 唐의 영토였던 河西, 九曲 일대를 수복하였다. 이곳에서의 승리로 唐은 吐蕃과의 80여 년에 걸친 긴 대치 끝에 마침내 뚜렷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安史의 亂이 발생하자 토번은 다시 安西, 四鎮을 공격하여 西域의 광대한 지역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文宗 開成 5년(840)에 回紇이 이 지역으로 옮겨와 吐蕃을 물리칠 때까지 계속되었다.⁷⁴⁾

2) 南詔와의 관계

南詔는 지금의 雲南省 일대에서 일어난 소수민족을 가리킨다. 隋唐 시기 운남 지역에 여러 부락이 복잡하게 산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蠻族이라 하였다. 그 가운데 白蠻과 烏蠻이 있었는데 백만은 백족의 조상으로 滇海나 洱海 사이에 거주하면서 농경에 종사하며 언어 문자 풍속 등이 漢族과 비슷하였다. 오만은 이족의 조상으로 운남 경내 및 귀주 서북부의 산간지대에 살면서 목축을 주업으로 삼고 한족과의 접촉도 매우 적었으며 언어도 번역을 통해야 했고 문명적으로 白蠻에 미치지 못했다. 당 초기 烏蠻은 끊임없이 洱海지역으로 이주하여 白蠻을 정복하고 六詔를 건립하였다. 詔는 곧 왕이라는 뜻이며, 六詔⁷⁵⁾는 바로 여섯 개의 부락 왕국을 의미한다. 그 중 蒙舍詔의 세력이 가장 강대하였고 남쪽에 거주하므로 南詔라 하였다.

南詔와 唐의 관계는 비교적 밀접하여 8세기 초 五詔가 토번에 귀의하

73) 『資治通鑒』 권 215, 玄宗天寶八載, 天寶五載에 각각 보임.

74) 『新唐書·哥舒翰傳』

75) 六詔:蒙舍詔, 越析詔, 浪穹詔, 遼澗詔, 施浪詔, 蒙舍詔

자 唐은 토번과 洱海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쟁탈하기 위해 남조를 극력 지지하였다. 그러나 天寶 연간에 들어 변방장수들의 행패에 대해 唐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南詔는 唐에 반기를 들게 되었고 이후 양국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開元 19년(731) 이후부터 시작된 唐과 南詔의 충돌은 天寶 후기 극에 달하게 되었다. 즉 唐의 관료가 부정부패를 저질러 변경의 장군이 南詔의 왕을 압박함에 따라 南詔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때 南詔의 강화제의를 唐이 거절하고 군대를 동원했다가 크게 패하였다. 이때부터 唐과 南詔는 원수가 되어 南詔는 당시 唐의 주위에서 가장 세력이 강했던 吐蕃과 손을 잡고 唐을 위협하였다.

天寶 11년(752) 唐은 외척인 楊國忠이 劍南節度使에서 재상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재상이 된 후 줄곧 南詔를 정벌하고자 했던 楊國忠은 마침내 天寶 12년(753)에 漢中郡 太陽太守인 賈俊에게 명을 내려 南詔의 근거지인 姚州를 장악하게 하였으나 도리어 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楊國忠은 天寶 13년(754) 李密에게 20만의 대군을 주며 南詔 정벌을 명하였다. 그러나 南詔의 왕 閣羅鳳이 大和城의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應戰을 하지 않으니 전쟁은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때문에 성밖에 주둔하고 있던 唐軍은 군량미가 떨어져 병에 걸리고 굶어 죽는 병사가 속출하였고 이에 李密은 후퇴를 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南詔의 閣羅鳳이 후퇴하는 唐軍을 추격하여 大和城 북쪽에서 대파하였는데 이 때 唐의 20만 병사가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했다.⁷⁶⁾ 그러나 楊國忠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玄宗에게는 도리어 승리했다고 허위보고를 올렸다. 양국충은 또 총애하던 鮮于仲通을 劍南節度使로 등용하고 교활한 張虔陀를 운남 태수에 임명하였다. 張虔陀가 남조 왕 閣羅鳳의 처를 능멸하고 대대적으로 조공

76) 江應梁 『中國民族史』, 北京, 民族出版社, 1990. 225-226쪽 참조.

을 바칠 것을 요구함에 억울함을 알리는 表文을 올렸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격분한 나머지 군사를 일으켜 張虔陀를 살해하였다. 이에 鮮于仲通이 8만 군대를 이끌고 남조를 공략하자 세가 불리해진 남조는 吐蕃과 연합하여 唐軍을 대파하였다. 그러나 양국충은 참패를 은폐시키고 오히려 敗將 鮮于仲通을 京兆尹으로 승진시키니 이에 감격한 선우중통은 양국충의 송덕비를 성문에 세우기까지 했다. 한편 양국충은 권력을 이용해 長安·洛陽·河南·河北의 병사들을 대거 발동하여 劍南留后 李密에게 남조를 공격케 하였으나 唐軍은 끝내 전멸하고 말았다.

『資治通鑒』에 남조와의 관계에 대해 “운남은 한 이래로 중국의 속국이였다. 양국충이 까닭도 없이 그들을 괴롭혀 그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했다(雲南自漢以來臣屬中國，楊國忠無故擾之使叛)”⁷⁷⁾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 현종이 皮邏閣을 운남왕으로 책봉할 만큼 우호적이던 관계가 관료의 부패로 인해 원수가 된 것이다. 다음 李白의 「古風」 34首와 杜甫의 「兵車行」은 南詔와의 전쟁을 언급한 작품들이다.

「古風」 -李白-

羽檄如流星， 급한 격문은 유성처럼 날아가고，
 虎符合專城. 징명의 호부는 태수에게 전해졌다.
 喧呼救邊急， 변방을 구하자는 고함소리에，
 群鳥皆夜鳴. 둥지에 든 새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울어댄다.
 白日曜紫微， 태양은 자미성을 비추고
 三公運權衡. 삼공은 천자를 보필한다.
 天地皆得一， 천하가 하나 되어
 澹然四海清. 고요하게 사해가 맑은데，

77) 『資治通鑒唐紀』 卷 233.

借問此何爲， 이계 무슨 까닭이나 물으니,
 答言楚征兵. 남쪽에서 전쟁이 난 탓이라니.
 渡瀘及五月, 풍토병 많은 오월에 노수를 건너,
 將赴云南征. 운남으로 가야 하다니.
 怯卒非戰士, 겁에 질린 졸개들 군인이 아니니,
 炎方難遠行. 뜨거운 지방 먼 길 가기 어려우리.
 長號別嚴親, 부모와 이별하며 길게 흐느끼고,
 日月慘光晶. 햇빛과 달빛도 애처롭게 비춘다.
 泣盡繼以血, 눈물이 다해 피눈물이 나오고,
 心摧兩無聲. 마음을 억누르고 이제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困獸當猛虎, 나약한 짐승이 맹호를 감당하고,
 窮魚餌奔鯨. 지친 고기가 날쌔고래를 이겨내야 하다니.
 千去不一回, 천명이 가도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데,
 投軀豈全生. 온몸을 던져 싸운들 어찌 목숨을 부지하리오?
 如何舞干戚, 싸움 없이 간척의 춤으로
 一使有苗平. 묘씨족을 설복시킨 순임금의 덕행은 없을 것인가

이 시의 배경은 天寶 9년(750)이며, 전쟁에 휘몰린 선량한 백성의 형상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시의 大義는 마지막 두 구절에 담겨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순임금 시절 묘씨가 말을 듣지 않자 禹가 군대를 일으켜 정벌하자고 청한다. 그러나 순임금은 자신의 덕이 깊지 못한 것일 뿐 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도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삼년이 지나서 그는 창과 도끼로 춤을 추는 의식을 거행했을 뿐인데 묘씨는 순의 인품에 감복하여 귀순하였다.” 78)는 전고를 인용한 것으로, 부질없는 전

78) 『名家鑑賞唐詩大觀』, 上海辭書出版社, 1986년, 209쪽.

쟁으로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질책과 분노가 담겨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杜甫의 「兵車行」의 일부를 節錄한 부분이다.

車麟麟，馬蕭蕭， 수레는 덜커덕, 말은 히힝대며,
行人弓箭各在腰. 병졸들 허리춤엔 활과 화살 꼽혔다.
爺娘妻子走相送， 부모처자 달려나와 이별을 하니,
塵埃不見咸陽橋. 먼지 자욱하여 함양 다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牽衣頓足攔道哭， 옷깃 잡고 발 구르며 길을 막고 우는데,
哭聲直上干雲霄. 통곡소리 곧 바로 하늘을 찌른다.
道旁過者問行人， 길 가던 나그네 장정에게 물으니,
行人但云點行頻. 오직 징집이 잦다는 말뿐.
或從十五北防河， 열다섯엔 북에 가서 황하 지키고,
便至四十西營田. 마흔 되니 서쪽에 가서 둔전을 짓는다.
去時里正與裹頭， 나갈 땐 이장이 머리를 싸주었는데,
歸來頭白還戍邊. 백발 되어 돌아오니 또 수자리 간다네.
邊庭流血成海水， 변방에 흘린 피가 바다 되어도,
武皇開邊意未已. 임금의 변방개척의 뜻 아직 끝나지 않는다.
.....

위의 작품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생이별을 하는 모습이 처절하게 묘사되어 있다.

天寶 연간에 발생한 두 차례에 걸친 南詔와의 전쟁으로 守勢에 몰리기 시작한 唐은 天寶 14년(755) 安史의 亂이 발생한 후 이 亂을 진압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였으므로 南詔의 優位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⁷⁹⁾

79) 余嘉華 「試論唐代有關南詔的詩歌—兼談邊塞詩評價的幾個問題」 『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 (西北師範學院中文系編, 蘭州, 甘肅教育出版社, 1988. 5.) 88-108 쪽 참조.

3) 奚와 契丹과의 관계

奚와 契丹은 모두 唐의 동북 변경의 소수민족이 세운 부락정권으로 지금의 河北 북부와 遼寧 서부 지역에 해당한다. 契丹은 목축을 주업으로 하며 요하의 상류에 거주하였는데 그 영역은 동쪽으로 고구려에 인접하고 서쪽으로는 奚에 연접하며 남쪽으로는 營州에 이르렀다. 奚族은 濡水 상류에서 유목을 했으며, 隋末과 唐初에는 契丹과 함께 돌궐의 통치를 받았다. 돌궐이 쇠망한 후 契丹과 奚族의 수령은 서로 각 부락을 인솔하여 唐朝에 귀향하였다. 貞觀 22년(648) 唐 太宗은 契丹 지역에 松漠도독부를 설치하고 그 추장 窟哥를 도독으로 임명하여 李氏 姓을 하사하였다. 奚族의 지역에는 饒樂도독부를 설치하고 그 추장 可度를 도독에 임명하였다. 이후 契丹과 奚族은 항시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고 唐과 시장을 열어 교역하기를 청했다. 이후 696년 契丹은 山海關을 통해서 河北의 영평을 약탈하고 심지어 북경 평원까지 진출했지만 武后 치세의 唐朝가 東突厥의 可突干과 연합하여 그들을 배후에서 공격해 契丹은 697년에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렇게 과거의 어두운 면이 있긴 했지만 현종은 開元 초기 奚와 契丹에 대해 회유책을 썼다. 그러나 開元 18년(730) 契丹의 牙官 哥突干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奚를 협박하여 唐을 배반하고 突厥에 귀속될 것을 요구하였고 奚가 이에 응함에 따라 奚 역시 唐과 충돌하게 되었다.

開元 20년(732) 唐은 信安王 李禕에게 명하여 奚와 契丹을 정벌하게 하였다. 이 때 契丹의 통제를 받던 奚의 추장인 李詩가 唐에 투항하자 哥突干은 契丹의 부중을 이끌고 북쪽으로 달아났다. 唐은 투항해온 李詩를 左羽林軍大將軍과 歸義州의 都督으로 삼아 비단 10만 단을 하사하고 그의 부락을 幽州쪽으로 옮기도록 조치하였다.⁸⁰⁾ 그러나 북쪽으로 달아났

80) 『資治通鑑』 권 217.

던 契丹의 哥突干이 唐을 계속 괴롭혔으므로 開元 22년(734) 唐의 幽州 長吏였던 張守珪가 契丹의 親唐 세력인 憂捷 등과 내통하여 哥突干을 죽였다. 그 이듬해 哥突干的 일파였던 涅里가 민심이 불안하다는 구실로 憂捷을 살해하고 추장이 된 후, 開元 23년(735) 사신을 보내 唐에 신하의 예를 갖추었으나 契丹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에 天寶 6년(747) 張守珪가 병사를 동원해 契丹을 대파하여 涅里는 漠北으로 달아나 다시 契丹을 규합하였다. 그 후 安祿山이 수차례 奚와 契丹을 토벌하려고 군대를 움직였으므로 安祿山과 奚·契丹과의 전쟁은 한동안 계속되었다.⁸¹⁾

開元 末부터 安史의 亂이 일어나기 전까지 唐과 奚·契丹과의 전쟁은 대부분 安祿山이 玄宗의 총애를 받고 공을 세우고자 하는 동기에서 자행된 침략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天寶 4년(745) 奚와 契丹이 和親政策의 일환으로 시집갔던 唐나라 공주를 각각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는 安祿山이 수차례에 걸쳐 연회를 베풀어 그들 추장에게 독주를 먹여 생매장시킨 것이 원인이 된 것이다.⁸²⁾ 天寶 9년·10년·11년 安祿山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契丹을 침략하였는데 그 결과 국가의 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수많은 장수들이 희생되었으며 6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몰살되는 참상을 당했다.⁸³⁾

이와 같이 唐 玄宗의 치세기간은 대단히 창성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변경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시종 불안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시대 배경은 당연히 當時의 詩壇과 詩人에게 영향을 끼쳐, 앞을 다투어 변방으로 종군하였다. 詩人들은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국가를 위해 공을

81) 崔庚鎭 「高適·岑參의 邊塞詩 比較研究」,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94. 29-32쪽 참조.

82) 『資治通鑑』 권 216, 「唐紀」 32: “安祿山屢誘奚契丹, 爲設會, 飲以苜蓿酒, ……醉而阬之, 動數千人, 函其酋長之首以獻”

83) 『資治通鑑』 권 216, 217에 보임.

세우고자 하는 응지를 품고 봉화불 타오르는 변방으로 달려갔으며 자신의 경험이 시가에 반영되어 盛唐 邊塞詩의 흥성을 가져온 것이다.

2. 思想 및 社會的 배경

唐 왕조의 천하 통일은 이전 漢代의 통일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秦에 이은 漢代의 통일은 각 지역의 문화를 문화적 용광로에 집어 넣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제도를 정착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비하면 唐 왕조의 통일은 사실상 漢代 500년간에 걸쳐 형성된 정치사회적 제도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唐 제국은 상당히 세계화된 시대로 바깥 세계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다. 외국의 상인들이 唐 제국에 들어와 교역을 할 수 있었으며 당 왕조는 이들에게 교역의 편의와 자유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외부의 문화적 요소가 중국 사회에 유입되었고 그중 일부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행위가 발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唐 제국의 세계화 현상 저변에는 막강한 경제력이 있었다. 秦이 楚를 멸할 때 중국 문화권으로 흡수된 남방의 경제력을 唐 왕조가 고스란히 접수했기 때문이며, 이 경제적 풍요가 문화적·문학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⁸⁴⁾

이렇게 변영된 경제와 강성한 국력은 문학이 발전하는데 적합한 물질적 환경을 제공했으며 정치면에서의 상대적인 진보와 문화 정책에서의 전반적인 수용은 사람들의 사상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유가사상 이외에도 道敎, 佛敎 등이 자유롭게 신봉되었으며, 이 3교 이외에 唐代 사회의 개방심리를 반영한 俠客의 기풍이 대두되었다. 俠客은 비록 儒·佛·道 같이 체계를 갖춘 이론적 관점과는 다르지만 확실히 唐人 자신의 중

84) 서경호, 『중국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문학과 지성사, 2003.

요한 습성이었다. 따라서 3教와 더불어 俠客정신이 文人들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른 文人의 생활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盛唐 邊塞詩인들의 인생관과 시가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해보기로 한다.

1) 思想-儒·佛·道와 俠客精神

儒·佛·道는 중국 전통사회에서 가장 큰 세력을 지녔던 세 가지 사조이다. 儒·佛·道는 전통적 통치에 적합했기 때문에 장기간 병존하였는데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사상, 教義의 차이로 인해 서로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黃老는 漢初에 한동안 성행하여 文帝 · 景帝 兩대에 이르러 유학과 첨예한 충돌을 일으켰으며, 魏晉의 현학 시기에는 또한 ‘貴無’와 ‘崇有’의 논쟁을 일으켰다. 道家에서 파생된 道教는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단으로 여겨져 금지되었으나 葛洪·寇謙之 같은 이들이 개혁한 뒤에는 바야흐로 통치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佛敎는 서역에서 전입되어 처음에는 方術에 종속되었다가 다시 玄學의 도움을 받아 東晉 이후에 점차로 자신의 면모를 드러내었다. 儒敎·道敎와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梁 武帝 때에는 국교가 되기에 이르렀으나 北魏의 太武帝와 北周의 武帝 때에는 대규모의 滅佛운동도 있었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계속된 사상의 혼란은 唐代에 이르러 3교를 모두 숭상하는 정책으로 마침내 완화되고 진정되었다. 간혹 쟁의가 있었던 것은 대부분 3교 지위의 선후 배열 문제 때문이었을 뿐, 근본적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상황 하에서 唐代의 사대부 文人들은 3교를 자유롭게 넘나들으로써 3교의 상이한 문화 전통에서 사상적 자양분을 폭넓게 섭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3교의 병존을 唐代만의 특징으로 볼 수는 없으며, 唐代의 특징적인 현상은 사회의 개방심리가 반영된 俠客

의 기풍을 들 수 있다.

俠客의 기원은 春秋·戰國시대로 소급된다. 옛날의 宗法 관계가 해체되자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린 일부 武士와 생산활동에서 遊離된 유민들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俠’이라는 말이 출현하였다. 俠은 고정된 직업 없이 빈둥뚱으므로 遊俠이라 불렸다. 俠의 직능은 어떤 집단 혹은 개인에게 고용되어 고용주를 대신하여 자신의 폭력적 행동으로 어떤 임무를 완성하는데 있었다. 俠은 戰國時代 귀족 정치 투쟁의 도구로 국가법령을 통일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하여 韓非子是 “儒生은 유가 경전에 근거하여 일을 행함으로 법을 어지럽히고, 협객은 무력으로 금령을 위반한다” 고 하여 儒生과 협객 두 부류를 똑같이 비난하였다.⁸⁵⁾ 그러나 司馬遷이 『史記·遊俠列傳』에서 俠客에 대해 “오늘날 俠客은 그 행위가 반드시 正義에 의거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의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었고 행동은 과감하였으며 이미 승낙한 일은 반드시 성의를 다하였다. 또한 자신의 몸을 버리고 남의 고난에 뛰어들 때에는 생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 공덕을 내세우는 것을 오히려 수치로 삼았다.”⁸⁶⁾라고 한 이후로 俠客 정신은 이미 사회적 덕성으로 승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강렬한 능동성과 개인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강한 자를 무찌르고 약한 자를 돕는 정신은 억압받는 일부 사대부 文人の 예찬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의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과 현실을 개조하고자 하는 희망을 이러한 정신활동에 기탁하였으므로 俠客은 곧 文人の 습성이 되었던 것이다. 漢魏 이후 文人の 詩歌 가운데 俠客에 대한 노래가 적지 않은 것은 대부분 이러한 심리의 결정체인 것이다.

이러한 俠客의 풍조가 唐代에 들어 절정을 이룬 원인에 대해 陳伯海는

85) 『史記·遊俠列傳』: “韓子曰: “儒以文亂法而俠以武犯禁.” 二者皆譏.”

86) 『史記·遊俠列傳』: “今遊俠, 其行雖不軌於正義, 然其言必信, 其行必果, 已諾必誠, 不愛其軀, 赴士之隄困, 既已存亡死生矣, 而不矜其能, 羞伐其德.”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唐이 隋를 계승하여 통일된 봉건왕조를 건립하자 유목하며 武를 숭상하던 북방 소수민족의 풍습이 唐代 유협의 전통에 새로운 기운을 더하게 되었고, 둘째 唐代에는 상품경제의 발달로 도시가 번영하게 되었는데 이는 遊俠 활동이 번식할 수 있는 온상으로 唐人의 俠客행위에 현실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셋째, 시대적인 변혁으로 인해 봉건예교가 상대적으로 이완됨으로써 사람들의 주관적 정신이 양양되고 분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개성의 자유를 강조하게 하였으며 기존의 질서와 예법, 전통의 속박을 떨치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하였다.” 87) 이런 관념은 俠客활동에서 가장 생동하는 표현형식을 찾게 하였고 이것이 六朝의 문벌정치나 唐 이후 宋·明의 전제정치 아래에서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점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俠客정신이 中唐으로 들어가면 쇠락하기 시작하지만 初唐부터 盛唐까지는 俠客 정신이 갈수록 고양되어 建功立業과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이상이 풍부하게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俠客정신이 반영된 경우를 예로 들자면, 첫째 현실생활에서의 俠士와 俠客행위에 대한 찬미를 들 수 있다. 初唐 이래로 俠客을 주제한 詩가 끊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李白과 杜甫는 공개적으로 찬양하였다.

“술 마신 후 풍모를 다투고, 석잔 술에 보검을 휘두른다. 풀 베듯 사람을 죽이고 극맹과 더불어 유유히 노닌다(酒後競風采, 三盃弄寶刀. 殺人如剪草, 劇孟同游遨.)” 88)

“흰 칼날은 불의를 원수로 여기고, 황금을 모두 털어 쓴다네. 속세에서

87) 陳伯海, 앞의책, 59-60쪽 참조.

88) 李白, 「白馬篇」

사람을 죽이니, 보답은 이 순간에 있다(白刃仇不義, 黃金傾有無. 殺人紅塵裏, 報答在斯須).” 89)

둘째 俠客의 정신을 찬양하는 외에 俠士로 자처하기를 좋아하였다. 唐의 개국공신인 李勣은 『隋唐嘉話』에서 이렇게 고백하였다. “나는 나이 12~3세에 무뢰한 도적이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죽였다. 14~5세에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도적이 되어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모조리 죽였다. 17~8세에는 훌륭한 도적이 되어 전투에 나가서야 사람을 죽였다. 나이 20세에는 천하의 대장군이 되어 병사를 써 사람이 죽을 것을 구제하였다.” 90)라고 기록하고 있다. 李勣은 부귀하고 현달한 뒤에 젊은날의 무뢰한 행동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훗날 공업을 세울 수 있었던 성격형성의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이는 俠客이 이미 唐代 사대부에게 있어 영웅적인 기질이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후에 李白도 “중횡술을 좋아하고 칼을 휘둘러 의협을 행했으며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베풀기를 소중히 여겼다.” 91)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俠客의 정신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의리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경시하며, 武를 숭상하는 씩씩한 기개와 품모는 당대 文人들의 몸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셋째, 俠客의 사조가 전반적인 사상 영역에 배어들어 儒·佛·道 등 다른 사조와 결합하기 시작하였다. 唐人の 정치적 이상은 기본적으로 儒家의 범주에 속하지만 특이하게도 당대의 文人들은 儒生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들에서 그러한 의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89) 杜甫, 「遣懷」

90) 劉餗, 『隋唐嘉話』: “我年十二三爲無賴賊, 逢人則殺. 十四五爲難當賊, 有所不快者, 無不殺之. 十七八爲好賊, 上陣乃殺人. 年二十, 便爲天下大將, 用兵以救人死.”

91) 『新唐書·本傳』: “喜縱橫術, 擊劍爲任俠, 輕財重施.”

“차라리 범부 백 명의 우두머리 되는 것이 서생이 되는 것보다 낫다.” 92)

“어찌 서생의 무리들이 창 앞에서 늘 경서에만 몰두함을 배우리?” 93)

“유생은 협객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늠도록 독서에 전심한들 또 무엇이 유익하리.” 94)

“공명을 말 위에서 얻었으니, 참으로 영웅스러운 장부일세” 95)

“사나이로 태어나 차라리 싸우다 죽을지언정 나약한 선비노릇 부끄러워라.” 96)

이렇듯 협객의 기풍은 唐代 文人들로 하여금 능동성과 진취성을 지니도록 하였으며 또한 그들이 관직에 재임해 있을 때에는 공명에 대한 강렬한 의욕을 갖게 하고 은퇴한 후에는 ‘자신을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지도 않는’ 오만한 기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高揚된 주체의식이 邊塞詩 창작에 깊은 흔적을 남겼던 것이다.

다음은 儒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唐代의 儒學은 漢學에서 宋學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이므로 아직은 독자적인 一代의 학술적 풍모를 스스로 조성할 수는 없던 시기이다. 唐代에도 儒家사상이 지도적인 작용을 한 것은 예외가 아니었다. 唐 왕조의 통치자는 3교를 兼崇 하긴 했지만, 治國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면 결국 儒教로 귀의하였다. 唐太宗은 顏師古(581-645)에게 명하여 『五經』을 고증하여 천하에 공포하고 定本으로 삼도록 명하고, 孔穎達(574-648) 등으로 하여금

92) 楊炯, 「從軍行」: “寧爲百夫長, 勝作一書生.”

93) 王維, 「送越都督赴代州得青字」: “豈學書生輩, 窓前老一經.”

94) 李白, 「行行且游獵篇」: “儒生不及遊俠人, 白首下帷復何益.”

95) 岑參, 「送李副使赴磧西官軍」: “功名只向馬上取, 真是英雄一丈夫.”

96) 杜甫, 「送蔡希魯都尉返隴右」: “健兒寧鬪死, 壯士恥爲儒.”

『五經正義』를 편찬하여 남북 各家의 經說을 통일시키고 선비들이 낭송하는 교재로 삼도록 하였다. 또 經義를 시험 보도록 하였으며 각지에 학교를 창설하여 유가의 경전을 강의하도록 하였다. 唐太宗은 신하와 함께 논의한 정치이론을 부문별로 『貞觀政要』에 편집하여 후인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였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唐太宗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 신하들에게 梁武帝父子가 佛老를 좋아하여 난을 초래했다는 교훈을 말하면서 “짐이 좋아하는 것은 오직 堯舜의 道와 周公孔子의 가르침이다. 생각컨대 이는 새에 날개가 있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물에 의지함과 같다. 날개와 물을 잃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일이다.” 97)라고 하였으니 唐太宗의 儒敎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다.

宗儒思想도 唐代 역사 발전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데, 안사의 난 이후 정치형세가 격변하면서 지식인들이 멸망하는 나라를 구원하려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현실을 직면하고 출로를 생각하게 하여 구체적인 사회개혁으로 옮겨가지만, 대체로 前期의 유가사상은 仁政과 德治를 장담하고 功勳과 業績을 세우고 세상을 구제하려는 일반적인 인생관 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王朝의 盛世와 이에 따른 사회정치적 조건의 안정과 기본적으로 서로 상응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佛敎와 道敎 대해 논하기로 한다.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는 사람은 물론 이단으로 묶어 비판하지만, 佛과 道가 본래 다른 사상체계임에도 唐人의 심증에는 이러한 구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하며 불교와 도교가 문학창작에 끼친 영향으로 볼 때 공통점이 있는 까닭에 함께 묶어 논하기로 한다.

佛敎는 東漢 때 중국으로 들어와 魏晉南北朝 시기의 발전을 거쳐 唐代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되었다. 불교는 지배계층의 적극적인 애호

97) 吳兢, 『貞觀政要』 卷六, 內蒙古人民出版社, 315쪽 : “朕今所好者, 唯在堯舜之道, 周孔之敎, 以爲如鳥有翼, 如魚依水, 失之必死, 不可暫無耳.”

에 힘입어 王公, 貴人으로부터 소시민, 백성에 이르기까지 각 사회계층에 널리 보급되었고 중국의 특징과 결합하여 나름의 教義를 형성하였다. 특히 禪宗은 唐 중엽 이후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는데 이는 인도 禪學의 기초 위에 儒·佛·道 3家의 사상을 조화시켜 사대부 文人들의 기호에 가장 잘 맞았기 때문이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佛教의 세력이 하층사회까지 미쳤던 반면 道教는 상층사회에서 더욱 유행하였다. 道教와 道家는 다소 차이가 있다. 道教는 李耳를 祖師로 받들며 唐 왕실의 선조로 僞稱하면서 정치적 지위가 항상 佛教 위에 놓였다. 道教는 신선을 말하고 長生을 추구하였으므로 權勢家의 무한한 향락적 요구에 합치되는 것이었다. 唐代의 역대 황제들은 모두 道教를 존숭하여 高宗 때에는 李耳를 ‘太上玄元皇帝’라는 칭호로 추존하였고 玄宗 때에는 玄學을 중흥시켜 『老子』·『莊子』·『列子』·『文子』 등의 네 책을 경전에 넣어 학생들에게 익히고 암송토록 하였으며 明經의 규정대로 과거시험으로 거행하였다. 道教의 제창은 道家 사상의 연구와 전파를 촉진시킴으로써 唐代 文人들의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佛·老 사조의 성행은 唐代 시인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영향을 미쳐 그들의 시가 창작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陳子昂이 黃老에 마음을 둔 것을 비롯하여 盛唐 시기 文人들은 자신들의 建功立業에 대한 좌절을 겪을 때면 대부분 佛·老정신으로 돌아가 은일을 꿈꾸었음이 작품 안에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고, 佛經 중의 典故 역시 시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채용되었다.⁹⁸⁾

俠·儒·佛·道 네 종류의 사조는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唐代 사회를 일관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각기 唐詩의 風骨·興寄·興象·文辭 등과 같은 측면에

98) 다음 장의 王昌齡 작품 안에서도 엿볼 수 있음.

서 반영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 네 사조는 결코 고립적으로 존재하거나 간단히 함께 결합된 것이 아니며 그것들 사이에는 여전히 서로 복잡하게 엮여 있다. 儒·俠 양자는 상반되면서도 서로 어울려 唐人의 사상적 공간을 조합해 내어 立身處世라는 원칙에서 儒와 俠은 일치되는 점을 찾았다. 儒者는 “등용되면 실천하고, 버림받으면 은둔한다.” 99)거나 “곤궁하면 홀로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며, 현달하면 두루 천하를 바르게 한다.” 100)고 하였다. 그러나 俠士는 窮達을 논하지 않고 어느 경우에도 濟世하고자 하였다. 儒와 俠의 결합은 儒家의 전통에서 백성을 구제하고 사직을 근심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전개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협객에 대한 생각과 행위에서도 비교적 트인 시야를 지니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시가창작에 있어 인생을 묘사하고 민중의 고통을 살피는데 큰 이점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儒와 俠은 개성적인 인격에 대한 견해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 儒家는 예교나 도덕규범을 더 강조하여 개성적인 인격이 이 규범에 속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협객정신은 오히려 개인의 의지를 신장시켜 현존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儒·俠간의 모순은 唐人의 마음에 일종의 특수한 張力을 구축하였으니 때로는 봉건적 윤리도덕의 규범에서 벗어나 예교의 속박에 반항하고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는 반항적인 경향을 드러냄으로써 시가창작에 慷慨하여 분출하는 기세와 豪邁하여 구속될 수 없는 열정을 띠게 하였다. 그러나 當時 佛·老 사상의 역할과 상황은 복잡하다. 일부 士人들 사이에서 공명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儒·俠보다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는 못하였고 佛·老 사상의 중요한 공헌이라면 전통적 사유와 심미적 정취를 변혁시켰다는 데 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사조는 儒·俠을 세로축으로 佛·老를 가로축으로, 한 문화의 기반을 이룬 것이다. 盛唐 이전에는

99) 『論語·述而』: “用之則行, 舍之則藏.”

100) 『孟子·盡心上』: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俠·儒·佛·道 관계가 상대적으로 화해와 균형을 이룬 가운데 협객의 정신이 보다 강렬하게 투사되어 시가창작에 반영되었기에 風骨·興寄·興象·文辭·聲律 제요소의 결합 역시 비교적 원만한 중에 風骨이 영도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社會的 배경-文人들의 생활 방식

어떤 특정한 시대의 생활은 독특한 문화적 심리상태와 심미적 취미를 양성하므로 시인의 시가창작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시인의 문학전통에 대한 선택과 가공·傳承과 變異를 제약하게 된다. 盛唐시기 邊塞詩가 흥성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변방 異民族과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크고 작은 전쟁이라면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른 문화 또한 간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 당대 문화전반을 개괄할 수는 없으므로 논제를 좁혀 시가창작에 영향을 끼친 盛唐 시기 文인생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盛唐의 邊塞詩인들은 대부분이 寒士들이었다. 예컨대 李白은 스스로 隴西의 평민이라 불렀고, 高適도 장기간 실의에 빠져 江湖를 떠돌다가 46세가 되어서야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岑參은 어려서 가계가 몰락하여 장년이 된 이후에 변방을 떠돌면서 하급관직을 지냈다. 王昌齡은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의 작품에서 보면 “오래도록 빈천한지라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많이 압니다.(久于貧賤, 是以多知危苦之事)”¹⁰¹⁾라든가, 진사급제 후 자신을 회고하면서 쓴 시구 중 “본가는 남전 아래인데, 낚시를 하거나 사냥하는 것도 아니므로, 농사일에 시달릴 일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곧 먼 길을 떠나려 한다.(本家藍田下, 非爲漁弋故. 無何困躬耕, 且欲馳永路).”¹⁰²⁾고 하였고, 杜甫는 유학을 신봉하며 벼슬을 하던 집안

101) 王昌齡, 「上李侍御書」

102) 王昌齡, 「鄭縣宿陶大公館贈馮六元二」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장안에서 벼슬길을 구할 때 역시 “아침에 부잣집 문을 두드리고, 저녁에는 고관이 탄 말이 일으키는 먼지를 뒤쫓으며, 술찌기에 식은 안주를 먹으니, 가는 곳마다 슬픔과 고통이 사무친다(朝扣富兒門, 暮隨肥馬塵, 殘杯與冷炙, 到處潛悲辛.)”¹⁰³⁾고 할 만큼 고단한 생활을 했다. 當時 寒士가 六朝의 寒士를 계승했을 지라도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현실과 처해 있는 사회적 지위는 결코 같지 않았다. 寒士들은 거족적으로 약동하는 사회생활의 율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느낌은 그들 자신의 지위변화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唐代 寒士들의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낮았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시험장에서 곤욕을 맛보고는 낮은 지위로 몰락하였으며 심지어 고통 속에서 전전하다가 초라하게 일생을 마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시인들은 과거제도 등을 통해 벼슬길에 나아가 정치에 종사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이루기도 했으며 어떤 이는 이를 통해 조정에게까지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어느 정도 개진하기도 했다. 비록 唐代에도 寒士가 여전히 억압은 받았지만 더 이상 정치적 독립성과 주체성이 없는 종속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당대의 한사들은 사회 정치 생활 속에서 능동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세력 형성은 한사문학이 기존의 귀족문학의 주도적인 지위를 대치하게 된다.

이러한 당대 한사 계급의 文人들은 일반적으로 벼슬길에 나아가기 이전에 대부분 자유로이 유람했던 경력을 지니고 있다. 당대의 文人들의 이러한 기풍이 출현할 수 있었던 데는 국가의 통일과 사회적인 풍요로움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풍요로움에 대한 묘사의 예로 두보의 작품 「憶昔二首」 제 2수 중에,

103) 杜甫, 「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

“개원 연간의 전성시기를 회상해보면 작은 도시도 만 호의 집들로 가득 차 있었다. 쌀은 기름이 흐르며 좁쌀도 새하얗고 관가와 백성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였다. 세상의 모든 길에는 승냥이와 호랑이가 없었기에 먼길도 길일을 택할 필요 없이 떠났다. 제의 명주와 노의 비단을 실은 수레는 끊임없이 오가고 남자는 밭 갈고 여자는 길쌈함에 때를 놓치지 않았다.” 104)

이런 묘사는 詩人의 과장도 있겠지만 당시 물질적 풍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적인 예이다. 唐代에 특히 자유로운 유람이 흥성한 또 다른 원인은 벼슬길과도 연관이 있다하겠다. 당시 벼슬길에 나아가는 방법은 주로 과거와 徵辟¹⁰⁵⁾을 통하거나 幕府에 참여하는 것으로, 고향을 등지고 집을 떠나는 먼 유람을 필요로 했다. 게다가 당대의 과거는 시험지만 잘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명성이 떠돌아 시험관에게 알려져 있어야만 했다. 때문에 오랜 세월 州나 府를 편력하면서 천하의 준걸들과 교류하고 고관대작이나 덕망 높은 명사와 명류들을 방문하여 추천을 받는 일이 필수불가결한 관건이 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文人들로 하여금 협소한 세계에서 벗어나 광활한 세계로 유람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文人의 자유로운 유람으로 當時 文人들이 새로운 예술경지를 개척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邊塞였다. 文人들은 멀리 변방까지 가서 종군하거나 邊陳의 幕府에서 군사적인 공훈으로 신임을 얻어 벼슬길에 오르기를 열망하였다. 邊塞 詩는 바로 文人들의 유람생활의 유기적 구성 성분이 시편에 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文人 생활의 다른 한 측면으로 정치참여를 들 수 있다. 정치참여란 관

104) “憶昔開元全盛日，小邑猶藏萬家室。稻米流脂粟米白，公私倉廩俱豐實，九州道路無豺虎，遠行不勞吉日出。齊紈魯縞車班班，男耕女桑不相失。”

105) 징벽:관리로 등용하기 위해 부름.

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봉건사회 지식인들의 공통적인 출로였다. 唐代 이전에는 권문세족 출신이라는 특권만으로 아무 준비 없이 관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나 진정한 포부를 가지고 행동과 통일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대의 寒士들부터이다.

初唐四傑 중 王勃은 “재질은 풍속을 변화시키기에 족하고, 지혜는 시대를 구제하기에 족하다(材足以動俗, 智足以濟時.)” 106)라고 자부했고, 楊炯은 “장부는 모두 뜻을 품었으니 때를 만나면 공훈을 세우리(丈夫皆有志, 會見立功勳.)” 107)라고 술회하였고, 盧照隣은 「五悲文」을 지어 자신의 불우함을 탄식하였고, 駱賓王은 무측천을 토벌하는 군사활동에 참가하였다. 뒤의 陳子昂의 경우도 “그가 한 말과 드러낸 뜻은 왕도와 폐도의 원대한 지략이었을 뿐이다.” 108)라고 칭송받았다. 그들은 미래가 밝은 시대에 성장하여 능동적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치 참여를 통해 위업을 이루려 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盛唐 시인들 사이에서는 더욱 고양되어 정치적 공명심이 없었던 것으로 일컬어졌던 王維·孟浩然까지도 위업에 대한 포부를 술회하였다. 다음의 예들은 盛唐시인들의 정치참여와 위업에 대한 관심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문구들이다.

“왕도와 폐도의 원대한 지략을 논하기 좋아하였으며 공명에 힘쓰고 절의를 숭상하였으며 어려움이 많은 때를 만났지만 천하를 안정시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다.” 109)

“자주 상소하여 구변 좋고 아침 잘하는 세도가를 꼬집어 말하였다.” 110)

106) 王勃, 「上絳州上官司馬書」

107) 楊炯, 「出塞」

108) 盧藏用, 「陳氏別傳」: “其立言措意, 在王霸大略而已.”

109) 『舊唐書高適傳』: “喜言王霸大略, 務功名, 尚節義, 逢時多難, 以安危爲己任.”

“나의 임금을 바로 잡지 못하면 장부됨이 부질없으리.” 110)

“관중과 안영의 의론을 발휘하고 제왕들의 책략을 목표로 삼아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떨쳐 보필하기 원함은 천하를 안정시키고 세상을 맑게 평정시키려 함이다.” 112)

“하늘이 내게 재주를 주셨으니, 꼭 쓰임이 있으리.” 113)

“목숨 걸고 천자에게 보답하리니 오랑캐 목 쳐서 금의환향하리라.” 114)

“검을 차고 고국을 하직하려 하니, 부모님과 이별하고 먼 길 떠난다.” 115)

“스스로 자못 뛰어나다 하리니 중요한 벼슬자리에 등용되어 임금을 요순보다 낮게 하고 풍속도 순박하게 만들리라.” 116)

“사나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젊어서 봉후가 되어야 하리, 적을 무찔러 공업을 이룰지니 어찌 고향집이나 지키고 있으리?” 117)

“어찌 서생을 본받아 책상 앞에 앉아서 늙도록 경서나 연구하겠는가?” 118)

“일신을 돌보지 않고 궁궐을 사직하고, 흉노의 궁궐을 빼앗아 나라에 보답하리.” 119)

“사나이 나이 서른에 부귀공명 못 이루고 어찌 종일토록 지필이나 대하

110) 杜確, 「岑嘉州集序」: “頻上封章, 指述權佞.”

111) 岑參, 「從軍二首」其二: “未能匡吾君, 虛作一丈夫.”

112) 李白, 「在壽山答孟少府移文書」: “申管晏之談, 謀帝王之術, 奮其智能, 願爲輔弼, 使寘區大定, 海縣清一.”

113) 李白, 「將進酒」: “天生我材必有用”

114) 李白, 「送外甥鄭灌從軍三首」: “丈夫賭命報天子, 當斬胡頭衣錦回.”

115) 李白, 「上安州裴長史書」: “仗劍去國, 辭親遠遊.”

116) 杜甫, 「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 “自謂頗挺出, 立登要路津, 致君堯舜上, 再使風俗淳.”

117) 杜甫, 「前出塞」: “男兒生世間, 及壯當封侯. 戰伐有功業, 焉能守舊丘.”

118) 王維, 「送趙都督赴代州」: “豈學書生輩, 窓間老一經.”

119) 王維, 「送趙都督赴代州得青字」: “忘身辭鳳闕, 報國取龍庭.”

고 있으리오?” 120)

“공명은 말 위에서 취해야, 진정한 영웅이라 할 수 있으리.” 121)

“ 고향 떠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공업을 이루어 기린각에 초상화 그려지고 명광궁에 입조하리니 선비들을 향하여 호탕하게 웃으며 경서는 공부해서 뭐하냐고 물으리라. 옛사람들 이 길을 몰라 글줄만 읽다가 늙어버렸지.” 122)

“십년 동안이나 글공부하였으나 어느 것 하나 이룬 것 없네…… 칼 짚고 먼지 이는 사막을 바라보니, 위장군과 광장군 사무치게 그림구나.” 123)

“한번의 싸움에서 봉후를 얻을 수 있으리니 어찌 규방의 아내만을 생각하리오?” 124)

“건너려 해도 배와 노가 없어 한가로이 은거하니 천자의 밝은 덕에 부끄럽다.” 125)

이처럼 보편적으로 분발 격양된 기상이 시속에 투사되어 盛唐시가 특유의 이상적 정신, 영웅적 성격 그리고 낭만적 기운을 만들었고 또한 명량하고 우렁차며 분방하고 격렬한 시대적인 특색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唐代 文人生活의 또 하나의 항목은 科擧시험이라 할 것이다. 玄宗이 재위한 開元·天寶 이후로는 進士科가 특히 성행하여 이를 통해 입신출세한 士人들은 관직을 받은 후 비교적 쉽게 영전되곤 하였다. 과거가 과연 시

120) 岑參, 「銀山磧西館」: “丈夫三十不富貴, 安能終日守筆硯.”

121) 岑參, 「送李副使赴磧西」: “功名只向馬上取, 眞是英雄一丈夫.”

122) 高適, 「塞下曲」: “萬里不惜死, 一朝得成功. 畫圖麒麟閣, 入朝明光宮. 大笑向文士, 一經何足窮. 古人昧此道, 往往成老翁.”

123) 高適, 「淇上酬薛三据」: “十年守章句, 万里空寥落. …… 倚劍對風塵, 慨然思衛霍.”

124) 王昌齡, 「變行路難」: “封侯取一戰, 豈復念閨閣.”

125) 孟浩然, 「望洞庭湖贈張丞相」: “欲濟無舟楫, 端居恥聖明.”

가창작에 어떠한 작용을 했는가에 대해 嚴羽는 唐詩 흥성의 공을 완전히 ‘以詩取士’의 과거제도로 돌리고 있는 데¹²⁶⁾ 대하여 陳伯海는 唐代 과거의 명목이 대단히 많아¹²⁷⁾ 시부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 점만으로 결코 시가창작의 번영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 장의 시험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응시자의 평소 명성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므로 行卷의 기풍¹²⁸⁾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진사에 급제했다고 하여 바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吏部の 博學宏詞科나 拔萃試에 합격해야 관리로 뽑힐 수 있었다. 唐代의 과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반적인 문화수양이었으므로 ‘以詩取士’로 개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다방면에 걸친 문화수양의 요구는 문학창작에 비교적 풍부한 지식기반을 부여하였고 다시 여기에 기교, 성찰, 형식의 탐구를 거듭함으로써 마침내 시가의 흥성을 촉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唐 왕조는 과거 응시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비교적 관대하여 천민과 상·공인과 같은 계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응시할 수 있었으므로 사회전반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켰으며 詩歌의 대중적인 기반을 확대시켰다.

이상에서 자유로운 유람 · 정치참여 · 과거라는 세 가지 면에서 唐代 文人들의 생활방식과 시가 창작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唐代 文人의 생활내용을 모두 개괄하기는 부족하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앞에서 논한 세 가지 측면과 그들 상호간의 관련이 두드러진 지표라 하겠다. 唐人들은 정치참여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과거를 정치무대로 통하는 주된 관문으로 여겼으므로 자유로운 유람은 바로 과거와 정치참여를 위한 준비

126) 嚴羽, 『滄浪詩話詩評』: “或問, 唐詩何以勝我朝? 唐以詩取士, 故多專門之學, 我朝之詩所以不及也.”

127) 당대 과거의 명목은 進士, 明經, 秀才, 俊士, 明法, 明字, 明算 및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던 각종 제과가 있어 모두 50여 종을 넘는다.

128) 응시자는 평생 심혈을 기울여 편찬한 詩文雜著 등 여러 종류의 문장을 모두 묶어 두루마리를 만들어 높은 관리나 명사들에게 바치고 그들에게 자신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도록 청하였음.

과정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자유로운 유람은 변세의 풍광과 전쟁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唐 이전의 邊塞詩와는 차별화된 풍격을 형성하게 하였다. 즉 남북조 시기의 邊塞詩는 의고악부의 형식을 빌린 책상머리에서 쓴 邊塞詩라면 盛唐 邊塞詩는 변세의 풍물과 전쟁의 고통을 형상적인 언어로 생생하게 묘사하여 盛唐 邊塞詩만의 독특한 풍격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IV. 王昌齡의 生涯와 思想

작가는 객관현실의 제약을 강력하게 받으며, 외부사물로부터 감동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붓을 끌어당겨 글로 쓰기 마련이다. 『詩·大序』의 “마음속에서 움직이면 말로 나타나기 마련이다(情動於中 形於言)”에서부터 백거이 「策林」의 “사람들이 세상일에서 무엇인가 느끼게 되면 반드시 감정이 움직이게 되고, 그런 다음 감탄하게 되며 그것을 읊조려 시가로 나타낸다(大凡人之感於事，則必動於情。然後興於嗟嘆，發於吟詠，而形於歌詩矣.)”에 이르기까지 모두 작품과 객관사물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王昌齡의 邊塞詩를 연구하기에 앞서 그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려는 것은 바로 작품의 외연을 이루는 王昌齡의 생애와 사상이 작품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 生涯

王昌齡(692-757)¹²⁹⁾은 지금의 西安市인 京兆 萬年에서 출생하였으며 字는 少伯이다. 王江寧·王龍標로 불리기도 하는데 江寧은 지금의 江蘇省 南京 부근으로 그가 한때 江寧丞으로 재임했던 곳이며, 龍標는 지금의 湖南省 黔陽縣 부근으로 그가 만년에 貶謫되었던 곳이므로 후인들이 그 지명을 따서 부르는 그의 別號이다.

그는 南朝의 世族인 瑯琊 王氏 출신이지만 그 자신 이전 몇 대에 걸쳐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대에 이르러서는 가세가 매우 빈한하였다. 그가 吏部侍郎 李元紘에게 올린 「上吏部李侍郎書」에 “오래도록 빈

129) 王昌齡의 생졸 년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설이 있으나 이 연대는 胡問濤의 「王昌齡年譜繫詩」에 근거한 것이다.

천한 지라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많이 압니다.”¹³⁰⁾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王昌齡은 開元 25년(727) 늦은 나이인 36세에 進士에 급제하였는데, 그 이전의 행적과 가족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唐 肅宗 때 宰相을 지낸 王璵로 그의 작품 「宿灞上寄侍御璵弟」의 詩題에 보이며 한 사람은 분명치가 않다. 그밖에도 그의 詩題로 보아 伯父·十五舅·姨夫·七兄·從弟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³¹⁾ 중국의 譚優學 등 학자들은 王昌齡이 진사 급제 이후 교서랑이나 강녕승·현위 등 하급관리를 지냈으므로 먼 지역을 오랫동안 다닐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30 세 전후에 潞州와 并州를 유력하고 그 후 수년 간 다시 서북의 변세지방인 涇州·蕭關·臨洮·玉門關 일대와 葱嶺의 서쪽 碎葉까지 갔으리라 추측한다.¹³²⁾ 王昌齡이 여성이 아니면서도 閨怨詩를 썼다는 점과 변세 체험 없이 邊塞詩를 쓴 시인들의 예를 들어 그의 출세 경험에 관하여도 이를 부정하는 설이 있지만, 그의 시 장르 가운데 높이 평가받는 邊塞詩가 실제 체험 없이 쓰여 졌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王昌齡은 변세 지역뿐만 아니라 華陰·大梁·嵩山·并州·潞州·周至 등 여러 지역의 여행을 시에 담았으며, 때에 따라 은거와 은일의 정서를 나타낸 시도 적지 않다. 王昌齡은 歌謠性이 강한 樂府題를 빌려 邊塞詩와 閨怨詩를 썼는데 규원시에서는 여성의 심리에 자신의 처지를 寄託하기도 하였으며, 중군경험 없이도 전장의 긴장감과 살벌함·변방의 황량함을 실감 있게 邊塞詩에 담았다. 이와 같이 상상에 의존하는 王昌齡의 詩作 성향을 들어 日本 立命館大學 文學部の 芳村弘道는 王昌齡의 여행 지

130) 「上吏部李侍郎書」：“久於貧賤，是以多知危苦之事”

131) 「上同州使君伯」의 殘句：“大賢奈孤立，有時起絲綸。伯父自天稟，元功載生人” 「送十五舅」 「上侍御七兄」의 殘句：“天人俟明略，益稷分堯心。利器必先舉，非賢安可任。吾兄執嚴憲，是佐能鉤深” 從弟 王越是 「西江寄越弟」의 시체에 보인다.

132) 譚優學 『唐詩人行年考續編』，巴蜀書社，1987年.

역을 확정할 수 있는 邊塞詩는 「山行入涇州」 뿐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詩 제 5련의 내용 “서쪽을 보면 변방의 마을이 있고 북쪽으로 가면 초소가 끝난다(西臨有邊邑, 北走盡亭戍).” 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王昌齡의 확실한 변새 遊歷의 족적은 국경지대인 涇州(감숙성 경주현 북쪽)까지이며, 王昌齡이 그곳에서 서역과 변새의 풍정을 충분히 체험했다고 보았다.¹³³⁾ 王昌齡이 邊塞詩를 창작하던 시기는 주로 진사급제 이전까지로 보는데 이는 진사급제 이후에 변새로의 여행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開元 15년(727) 36세에 진사에 급제한 王昌齡은 汜水尉를 제수 받고 개원 19년(731)에는 박학평사과에 급제하여 秘書省의 校書郎을 제수받았다.¹³⁴⁾ 이때 그가 李白 · 岑參 · 孟浩然 · 王維 등 長安의 여러 文人들과 사귄 기회였으며 그 가운데 특히 孟浩然과 사이가 각별했다.¹³⁵⁾

開元 26년(738) 47세에 王昌齡은 嶺南으로 폄적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王昌齡이 嶺南으로 가는 도중 襄陽에 있는 孟浩然을 방문하고 이때 孟浩然이 王昌齡에게 「送王昌齡之嶺南(영남으로 가는 王昌齡을 보내며)」를 지어준 것으로 폄적지가 嶺南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開元 27년(739) 嶺南으로 가는 도중 玄宗의 대사면을 받고 다시 長安을 향해 되돌아오고, 2년 뒤인 開元 29년(741) 50세에 江寧丞으로 발령을 받았다.

天寶 6년(747) 王昌齡은 또 龍標尉로 좌천되는데 이에 대해 『河岳英靈

133) (芳村弘道, 「王昌齡に關する一`二の考察-開元年間事跡」, 『立命館文學』, 제 430-432호 합간, 1981.

134) 이에도 이설이 있다. 李厚培, 「王昌齡初士有關問題考辨」: “王昌齡開元十五年九月至開元二十二年制學試前一直在校書郎任上, 開元二十二年又應博學宏詞科, 中第后遷汜水縣尉. 王昌齡은 개원 15년 9월부터 개원 22년 시험보기 전까지 줄곧 교서랑직에 있었고, 개원 22년에 또 박학평사과에 응시하여 급제한 후 범수현의 위로 옮긴 것이다.” (『貴州社會科學』 1995년 제 3기)

135) 孟浩然, 「送王昌齡之嶺南(영남으로 가는 王昌齡을 보내며)」: “數年同筆硯(여러 해 동안 함께 먹을 갈며 글을 지었다)”

集』에 보면 “어찌하랴, 만년에 자질구레한 예절을 소홀히 하여 비난이 점점 들끓었고 먼 벽지를 전전하였으니,…….”¹³⁶⁾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성품이 상당히 호방하고 거침이 없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다음 해인 748년 龍標에 도착하여 龍標尉로 지내던 중 사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은 점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新唐書·文藝傳』(卷 203)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당시 난리로 고향에 돌아갔으나 刺史 閻丘曉에게 살해당했다. 張鎬가 하남에서 군대를 갖추어 병력들을 결집시켰는데 閻丘曉가 기일에 가장 늦었다. 張鎬가 그를 죽이려하자 閻丘曉가 빌며 말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시니 남은 목숨을 관대히 베풀어 주십시오’ 張鎬가 ‘王昌齡의 부모는 대체 누구에게 봉양시킬 생각이었는가’ 라 말하자 閻丘曉는 아무 말도 못했다.”¹³⁷⁾라고 하여 安史의 亂이 일어나자 향리에 돌아가, 閻丘曉에게 살해당했다는 언급 다음에 오히려 張鎬와 閻丘曉와의 관계를 더 길게 적고 있다. 이 내용은 『唐才子傳』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胡問濤는 安史의 亂이 일어난 다음해(756) 조정에서 대사면을 내릴 때 王昌齡은 江東으로 부임했는데 江東은 濠州의 속지로 여기에서 閻丘曉에게 피살당했다고 추측했다.¹³⁸⁾ 胡問濤는 譚優學과 마찬가지로 王昌齡이 閻丘曉에게 살해당한 것은 같은 해인 지덕 2년으로 그의 나이 66세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만의 王夢鷗는 王昌齡의 죽음에 대해 매우 자세한 해설을 곁들이고 있다. 그에 따르면, 王昌齡이 老母를 봉양하기 위해 난을 틈타 棄官하였으므로 閻丘曉는 唐律 捕亡條의 笞杖之刑을 적용하여 王昌齡을 때려 죽였다는 것이다.¹³⁹⁾ 이와 같이 王昌齡의 卒년에 대해서는

136) 殷璠 『河嶽英靈集』: “奈何, 晚節不矜細行, 謗議沸騰, 垂歷遐荒, ……”

137) 『新唐書·文藝傳』(卷 203): “以世亂還鄉里, 爲刺史閻丘曉所殺. 張鎬按軍河南, 兵大集, 曉最後期, 將戮之, 辭曰: 有親, 乞貸餘命. 鎬曰: 王之親欲與誰養. 曉默然.”

138) 胡問濤, 「王昌齡年譜繫詩」(『南允師院學報』, 哲社版, 1984)

139) 이상은 王夢鷗, 『古典文學論探索·王昌齡生平及其詩論』(臺北, 中正書局, 1984)의 내용을

아직 분명히 밝혀진 내용이 없지만 至德 2년(757) 閻丘曉의 사망시기 바로 이전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2. 思想

중국 역사에서 유교와 도교는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와 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魏晉 이후 불교가 번성하면서 불교 또한 유교·도교와 더불어 중국인들의 사상·문화 속에 혼재하게 되었다. 王昌齡이 활동하던 開元·天寶 연間は 특히 불교의 禪宗이 번성한 시기였으므로 그도 이 삼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이 그의 작품 곳곳에서 보인다. 그의 작품에 담긴 내용을 이 三敎의 관점으로 나눈다면 첫째는 유가적 孝敬思想 바탕 위에 창작된 작품을 들 수 있으며, 둘째는 佛家的 사상의 바탕 위에 창작된 작품, 셋째 道家的 사상이 혼재된 작품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는 분명히 유가적 사상을 가졌었음에도 불가의 승려와 밀접히 교류하며 고승을 흠모하고 도가에 심취하여 불로장생을 꿈꾸기도 하였으므로 그의 詩題에 유가적 내용 외에도 ‘廉上人’·‘振上人’·‘岸道上人’·‘素上人’·‘縣壁上人’·‘精法師’ 등 僧侶·道士·鍊師, ‘寺’·‘齋’字가 들어가는 작품만도 20여 수가 된다. 그의 사상을 살피기 위해 그의 작품에 투영된 이들 삼교사상을 고찰해보자. 먼저 유가적 견해가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살펴보자. 유가의 忠臣사상은 근본적으로 孝敬사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敎以臣, 所以敬天下之爲人君者(백성에게 효를 가르치는 것은 널리 천하의 사람들이 임금 된 사람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¹⁴⁰⁾이며, 孔子는 이를 군자의 네 가지 道에 포함하여 설명하였다.¹⁴¹⁾ 동일한 의미에서

요약한 것임.

140) 四庫全書 『孝經·廣至德章』.

141) 四庫全書 『論語·公治長』: 有君子之道四焉, 其行己也恭, 其事上也敬, 其養民也惠, 其使民也

王昌齡의 작품 가운데는 이러한 사상이 농후한 작품들이 적지 않은데 먼저 「九江口作」을 살펴보자.

| | |
|-------|-----------------------|
| 潏潏江勢闊 | 강물이 기세 넓게 흐르는 |
| 雨開潯陽秋 | 비 개인 심양의 가을. |
| 驛門是高岸 | 역문은 높은 언덕, |
| 望盡黃蘆州 | 아득히 누런 갈대 우거진 섬 바라본다. |
| 水與五溪合 | 강물은 오계가 함께 모이고 |
| 心期萬里游 | 마음은 만리의 유람을 기약한다. |
| 明時無棄才 | 밝은 시대에는 버려진 인재 없으니 |
| 謫去隨孤舟 | 좌천가는 이 몸 외로운 배 따라 간다. |
| 鷺鳥立寒木 | 수리는 차가운 나무 위에 서있고 |
| 丈夫佩吳鉤 | 장부는 명검 오구를 차고 있다. |
| 何當報君恩 | 어떻다면 군주의 은덕에 보답하리오 |
| 卻系單于頭 | 선우의 머리를 베어오리. |

이 시는 王昌齡이 51세에 龍標尉로 폄적되어 가면서 지은 시로 “좌천가는 이 몸 외로운 배 따라 간다(謫去隨孤舟)” · “수리는 차가운 나무 위에 서있다(鷺鳥立寒木)” 등으로 유배 가는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장부는 명검 오구를 차고 있다(丈夫佩吳鉤)” 라고 자신의 마음을 다진 후, “어떻다면 군주의 은덕에 보답 하리오(何當報君恩)” · “선우의 머리를 베어오리(卻系單于頭)” 라고 하며 결국 임금에게 충성할 것을 꾀하고 있다. 이 같은 그의 다짐은 유교가 국가 문교의 중심으로 채택된 漢代 이래 지속되어 온 신하로서의 덕목에 가까운 뿌리 깊은 유가사상이

義.

반영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다짐은 「留別武陵袁丞」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皇恩暫遷謫 황상의 은혜로 잠시 유배 떠나며
待罪逢知己 죄인의 몸이 되어 친구를 만났다.
從此武陵溪 이제 武陵의 냇물 따라
孤舟二千里 외로운 배 이 천리를 가리라.
桃花遺古岸 桃花는 옛 언덕에 남아있고
金澗流春水 황금 빛 계곡에는 봄물이 흐른다.
誰識馬將軍 누가 馬장군을 아는가?
忠貞抱生死 충성과 정절에 죽고 사는 것을.

이 시 또한 王昌齡이 龍標尉로 폼적되어 가는 길에 들르게 된 무릉을 떠나면서 이곳에서 자신을 알아주던 벗 袁丞과 이별하며 지은 것이다. “죄인의 몸이 되어 친구를 만났다(待罪逢知己)”는 바로 귀양 가기에 앞서 친구를 만났음을 알 수 있다. “누가 馬장군을 아는가, 충성과 정절에 죽고 사는 것을(誰識馬將軍, 忠貞抱生死)”은 東漢 시기 이곳 무릉 일대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던 馬將軍에 자신의 충정심을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황상의 은혜로 잠시 유배 떠난다(皇恩暫遷謫).”라 하여 유배 가는 것마저도 황제의 은혜라고 말하는 점으로 보아 유가적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宿灞上寄侍御璵弟」·「放歌行」·「從軍行 七首」제 6수를 차례로 살펴보자.

兵糧如山積 군량은 산더미 같이 쌓이고
恩澤如雨霈 임금의 은택은 큰 비 같이 내린다.
羸卒不可興 파리한 병사는 전쟁터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磧地無足愛 사막지대는 아까워할 만한 것이 없다.
 若用匹夫策 만약 필부의 계책을 쓴다면
 坐令軍圍潰 앉아서 호령하여 군대를 붕괴시킨다.
 不費黃金資 황금을 투자하지 않고서,
 寧求白璧寶 어찌 백옥의 위로를 구할 수 있을 손가?
 明主憂既遠¹⁴²⁾ 명철하신 우리 임금 생각이 심원하니,
 邊事亦可大 변방의 일 또한 태평하리라.

南渡洛陽津, 남쪽으로 낙양진 건너
 西望十二樓. 서쪽으로 12루를 바라본다
 明堂坐天子, 명당에서 천자가 앉아
 月朔朝諸侯. 정월 초하루 여러 제후로부터 조회를 받는다.
 清樂動天門, 청상악이 궁중의 천문을 울리고
 皇風被九州. 천자의 교화가 천하를 덮는다
 慶雲從東來, 상서로운 기운 동쪽에서 나와
 決滌抱日流. 광대하게 해를 감싸 흐른다.

胡瓶落膊紫薄汗 胡瓶 어깨에 매고 자줏빛 薄汗馬를 탔는데
 碎葉城西秋月圓 碎葉城 서편으로 가을달이 둥글다.
 明敕星馳封寶劍 밝은 칙명은 별처럼 빠르게 달려 보검을 내리니
 辭君一夜取樓蘭 임금님께 하직하고 오늘 밤 안으로 누란을 취하리라.

이와 같이 「宿灞上寄侍御瑀弟」에서는 “임금의 은택이 큰 비 같이 내린다(恩澤如雨霑)” · “명철한 임금 생각이 심원하니, 변방의 일 또한

142) 『論語衛靈公』: “人無遠慮, 必有近憂(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에서 인용된 구.

태평하리라(明主憂既遠, 邊事亦可大)” 고 하고 “어찌 백옥의 위로를 구할 수 있을 손가(寧求白璧賚)” 라고 하고, 「放歌行」에서는 “천자의 교화가 천하를 덮으니 상서로운 기운 동쪽에서 나와 광대하게 해를 감싸 흐른다(皇風被九州, 慶雲從東來. 泱漭抱日流)고 하는 등 임금의 은덕을 칭송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從軍行 七首」 제 6수에서는 “밝은 칙명은 별처럼 빠르게 달려 보검을 내리니 임금님께 하직하고 오늘 밤 안에 누란을 취하리라(明敕星馳封寶劍, 辭君一夜取樓蘭) “며 장부다운 다짐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從軍行 二首」 제 1수에서는 고단하고 피로한 자신의 심경을 전쟁에 지친 병사에 기탁하여, “술한 싸움을 치르느라 바람먼지 속에서 고생했고, 십 년이나 서리와 이슬을 밟았다.(百戰苦風塵, 十年履霜露)” . “전쟁터의 고통을 진작 알았건만, 이제야 경서를 읽어 과거보지 않았음을 후회한다(早知行路難, 悔不理章句)” 라고 후회하는 감정을 담기도 하였지만, 임금의 은혜를 그리거나 찬양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宮秋怨」의 "부질없이 걸린 밝은 달에 군왕을 기다린다(空懸明月待君王)"와 「長信秋詞 其四」의 “꿈속에서 임금을 보았는데 깨어나 생각하니 꿈인지 생시인지 의심하노라(夢見君王覺後疑)” . 「至南陵答皇甫嶽」의 “임금의 은혜 깊으시니 유배 생활 길지 않으리(明主恩深非歲久)” . 「留別司馬太守」의 “밝은 구슬을 토해내어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리라(明珠吐著抱君恩)” . 「送崔參軍往龍溪」의 “임금님의 큰 은혜가 봄 강물처럼 불어나길 함께 기다리세(鴻恩共待春江漲)” . 「送韋十二兵曹」의 “평생 공업을 세우려 내달려온 것은, 술잔을 채우려고 복록을 구한 것이 아닐세. 출사와 은거는 서로 합칠 수 없으니 충정을 어디로부터 펼치어 낼까(平生馳驅分, 非謂杯酒仁. 出處兩不合, 忠貞何由伸)” . 「別劉譔」의 “행동은 마땅히 공업에 힘쓴다(行當務功業)” 등은 모두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는 유가의 忠孝思想이 반영된

작품들이다. 이로부터 그의 사상은 뿌리 깊은 유가적 덕목이 基底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佛家의 사상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살펴보자.

石溪流已亂 바위 사이 개울물은 어지러이 흐르는데
 苔徑人漸微 이끼 낀 길에 인적 점차 드물어진다.
 日暮東林下 해는 저물어 동림사 아래로 지고
 山僧還獨歸 산승은 홀로 산사로 돌아온다.
 昔爲廬峰意 옛날에는 여산에 은거할 뜻을 가졌는데
 況與遠公違 하물며 그대와 멀리 헤어짐에 있어서랴.
 道性深寂寞 道性은 적막이 깊고
 世情多是非 세상일에는 시비가 많다.
 會尋名山去 마침 (염상인이) 명산을 찾아 떠나니
 豈復望清輝 어찌 다시 맑은 빛과 같은 그대 모습 볼 수 있으리오.

이 시는 康上人이 여산에 있는 동림사로 돌아갈 때 써준 송별시인 「送東林康上人歸廬山」이다. 王昌齡은 “옛날부터 여산에 갈 뜻을 가졌다(昔爲廬峰意)” · “세상일에는 시비가 많다(世情多是非)” 고 여산에 가고픈 마음을 가졌으나 시비가 많은 세상에 남게 되는 자신의 처지를 아쉬워하고 있다. ‘道性深寂寞’은 맑게 비어 있는 이상적인 경지의 적막이며 정신이 추구하는 세계이다. 이같이 속세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靜法師東齋」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筑室在人境 사람 사는 곳에 집을 지으니
 遂得眞隱情 마침내 참된 은거의 마음을 얻었다.
 春盡草木變 봄이 다 가니 초목이 변하고

雨來池館清 비가 오니 연못과 집이 맑다.
 琴書全雅道 거문고와 책으로 바른 도리를 보전하고
 視聽已無生 보고 들음에 이미 생겨남이 없다.
 閉戶脫三界 문을 닫고 삼계를 벗어나니
 白雲自虛盈 흰 구름처럼 절로 비고 찬다.

靜法師가 있는 곳을 찾아가 지은 이 시는 은거하는 사람의 한적한 풍취와 그 세계를 그렸다. 첫 구는 陶潛의 「飲酒」 가운데 ‘結廬在人境’을 연상시키는 句로 靜法師의 隱逸이 市隱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三界’는 불교의 세계관에서 중생이 生死流轉한다는 3단계 迷妄의 세계로, 欲界는 地獄 · 餓鬼 · 畜生 · 阿修羅 · 人間 등 다섯 가지와 六欲天이 여기에 속하며 五官의 욕망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色界는 물질적인 색은 있어도 감각의 욕망을 떠난 淸淨의 세계이며, 無色界는 물질적인 것마저 사라진 순수한 정신만의 세계로 공간적 개념마저 초월한 세계이다. 王昌齡은 “사람 사는 곳에 집을 지으니 마침내 참된 은거의 마음을 얻었다(築室在人境, 遂得眞隱情)” · “문을 닫아 삼계를 벗어나니 흰 구름은 스스로 비고 찬다(閉戶脫三界, 白雲自虛盈)” · “보고 들음에 이미 생겨남이 없다(視聽已無生.)” 라고 하여 불가적 出家와 修道의 단계를 빌어 중생이 六道¹⁴³⁾에 생사유전하는 世間, 즉 凡夫界를 넘어 生死輪廻를 초월한 聖子の 無漏界인 出世間을 지향하고 있다. 이같이 불가에 귀의함으로 脫俗하고 싶은 그의 마음은 靑龍寺 禪院에서 王維와 함께 한 후 지은 詩 「同王維集靑龍寺壇壁上人兄院五韻」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本來淸淨所 본래 청정한 곳

143) 地獄道 · 餓鬼道 · 畜生道 · 阿修羅道 · 人間道 · 天上道 등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해 무지한 중생이 輪廻轉生하게 된다는 여섯 가지 세계 또는 경계.

竹樹引幽陰 나무 그윽한 그늘로 인도한다.
 檐外含山翠 처마 밖에는 푸르른 산을 머금고 있네.
 人間出世心 인간의 세상을 벗어난 마음.
 圓通無有象 불법을 깨우친 마음은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아
 聖境不能侵 마음의 성스러운 경계는 침범할 수 없다.
 眞是吾兄法 참(眞)의 세계는 내 형의 법이니,
 何妨友弟深 어찌 그대와 나 형제처럼 정이 깊지 않으랴.
 天香自然會 천연의 향기는 절로 모이게 만들고,
 靈異識鐘音 신령스런 경지 종소리를 통해 아네.

이 시는 天寶 2년(743) 작자가 강녕승 재직시 잠시 장안에 왔을 때 청룡사에서 지은 시이다. 또한 『全唐詩』에 의하면 王維 · 王縉 · 裴迪 모두 「靑龍寺曇壁上人兄院集」라는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들 네 사람이 모였음을 알 수 있다. ‘圓通無有象, 聖境不能侵’의 ‘圓通’의 뜻은 『三藏法數』에 “本性和 本體가 두루 갖추어짐을 圓이라 하고, 그 쓰임이 신묘하여 막힘이 없음을 通이라 한다. 곧 모든 중생이 본래 지닌 마음의 근원으로, 이는 여러 佛菩薩들이 증험하는 聖人の 경지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無有象’은 ‘非眞象’과 같은 말로 우주 만상에는 형상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정해진 형상이 없이 변화하나, 사람은 그 모든 것에 숨어있는 통합적인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洛陽尉劉晏與府掾諸公茶集天宮寺岸道上人房」을 살펴보자.

良友呼我宿 좋은 친구 유안이 나를 불러 함께 잠자니
 月明懸天宮 달은 밝게 천궁사에 걸려 있고,
 道安風塵外 도안은 풍진 밖에 있어

洒掃青林中 푸른 숲에서 손님 맞으려 물 뿌리고 청소한다.
 削去府縣理 부현의 공무를 모두 제쳐두고
 豁然神機空 환히 마음과 정신을 비운다.
 自從三湘還 상수의 땅에서 돌아온 후
 始得今夕同 처음 오늘 저녁과 같은 때를 얻었다.
 舊居太行北 옛날 태항산의 북쪽에서 살았는데,
 遠宦滄溟東 멀리 푸른 바다 동쪽으로 벼슬 간다.
 各有四方事 각자 사방에 일이 있으나
 白雲處處通 흰 구름은 곳곳으로 통한다.

이 시는 개원 29년(741) 강녕승으로 전근 가기 직전 쓴 시로 낙양의 친구 유안이 王昌齡을 불러 부현의 관리들과 천궁사에 모인 일을 썼다. 이 때는 그가 영남에 땀적 가서 돌아온 때(自從三湘還)로 처음 친구들과 마음 편히 정신을 맑게 비우는 자연 속에 있는 감흥을 말하고 있는데, “달은 밝게 천궁사에 걸려 있고, 도안은 풍진 밖에 있다.(月明懸天宮, 道安風塵外)” 고 하여 岸道上人을 진의 고승 道安에 비유하고 있다. 또한 「素上人影塔」에서는 소상인이 죽어 “마른 나무와 같이 물화(物化)하였으나 명월주처럼 玄妙하다(物化同枯木, 希夷明月珠)” 라고 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소상인의 정신계를 찬양하고, “본래 살아있는 것은 모두 사라지는 법, 무엇이 허무인가? 세속을 초월한 방외의 경지도 다르지 않으리(本來生滅盡, 何者是虛無, 方外不應殊)” 라고 세속의 부질없음을 반문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題僧房」의 “종려꽃 선원에 가득 피고, 이끼는 한적한 선방으로 들어온다(棕櫚花滿院, 台蘚入閑房)” · “피아를 구분하는 명목과 이름 끊고, 공중에 서린 맑은 향내 맡는다(彼此名言絕, 空中聞異香).” 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전반부의 두 구가 승방의 幽玄한 경내를 묘사한 것이라면 후반부

두 구는 불교적 정신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도가적 사상의 바탕 위에 창작된 작품들을 살펴보자.

中峰青苔壁, 가운데 봉우리는 푸른 이끼 덮인 절벽
一點雲生時. 한 점 구름이 생겨나는 때.
豈意石堂里, 어찌 생각했으랴 석실 안에서
得逢焦鍊師. 초련사를 만날 줄을.
爐香淨琴案, 향로의 연기는 거문고와 책상을 맑게 씻고
松影間瑤墀. 소나무 그림자는 흰 섬돌 위에 한가하다.
拜受長年藥, 절하며 장생약을 받들고
翩翩西海期. 훨훨 날아 서해에 가리라.

위의 詩題는 「謁焦鍊師」이다. 鍊師는 덕망이 높은 도사를 말하는데 李白의 시에도 「贈嵩山焦鍊師」가 있는데, 아마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李白의 시 序文에 “송산에 신령스런 사람 초련사가 있는데 어느 곳의 여자인지 알 수 없다(嵩山有神人焦鍊師者, 不知何許婦人也).” 라고 한 것으로 초련사가 女道士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焦鍊師가 있는 먼 바깥의 경치로부터 석실과 석실 안의 광경과 초련사와의 만남을 그리는 방식으로 일정한 원근에 따른 시점을 취하고 있다. 작자는 鍊師로부터 長生不死藥을 받아 長生을 누리며 서해에 가고자 하는데, 이 시는 신선 세계에 대한 흠모의 情이 잘 드러나 있다.

齋心問易太陽宮 마음을 재계하고 태양궁에서 주역에 대해 물으니
八卦眞形一氣中 팔괘의 참 모습은 한 가지 기운 속에 있다하네.
仙老言餘鶴飛去 늙은 신선은 말을 남기고 학을 타고 날아가고

玉清壇上雨濛濛 옥청단 위에는 자욱히 비가 내리네.

무릉의 용흥관에는 용표에 펴적갈 때 들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의 황도사에게 王昌齡은 易에 대해 가르침을 청했던 모양이다. 황도사는 천지 만물의 기본요소인 팔괘의 변화가 모두 하나의 氣속에 있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一氣’는 易의 근원인 太極이며, 虛靜한 하나의 氣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도가의 견해이다. 유배 가는 작자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물었던 질문에 대한 길흉화복이 결국 하나의 도리 속에 있다는 황도사의 말로 위로받았을 것이다. 본래 옥청단의 옥청은 도가에서 삼청¹⁴⁴⁾ 가운데 하나로 성인이 오르는 경계이다. 비는 그 깨달음을 감로의 형상으로 표현한 듯하다. 王昌齡은 도교의 방술을 찾고 은거의 뜻을 나타낸 시가 많은데 일찍이 ‘만일 신선의 약을 구할 수 있다면 구름 타고 날아올라 신선과 함께 할 수 있으리’라 했는가 하면 도교의 연단술로 신선이 된다는 사상을 빌려 승산에서 일찍이 도사에게 ‘머리 조아려 연단의 책 구하고’, ‘절하며 장생약을 받들기도’ 했다. 신선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은 당시의 일반적인 정신적인 믿음이자 풍토였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도피라기보다는 정신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한 방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河上老人歌」에서도 나타난다.

河上老人坐古槎 강위의 노인이 낚은 뗏목에 앉아,
合丹只用青蓮花 연단을 모으는 데 청련화만 쓴다.
至今八十如四十 지금 나이 팔십인데 사십세 같고
口道滄溟是我家 입으로 말하기를 큰 바다가 내 집이라네.

144) 玉清壇:단의 명칭. 옥청:도가에서 말하는 三清 중의 하나. 道家書에 四人天 외에 玉清, 上清, 太清의 三清이 있는데, 玉清은 聖인이 오르는 곳이고, 진인이 오르는 상청, 선인이 오르는 태청이 있다.

이 시는 뗏목 위에서 사는 노인을 빌어 도교의 비술과 이치를 말하고 있다. 이 시가 은일만을 노래한 시가 아닌 점은 제 2·3 구에서 도교의 방술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趙十四兄見訪」에서는 『周易』을 읽고 도가의 장생불로 약을 복용하며 마치 도사처럼 생활하는 내용이 보인다.

| | |
|-----------------------|-----------------------|
| 客來舒長簟 | 손님이 왔기에 긴 대자리 펴고 |
| 開閣延清風 | 작은 문을 열어 맑은 바람 끌어들인다. |
| 但有無弦琴 | 단지 있는 것이라곤 줄 없는 거문고 |
| 共君盡尊中 | 그대와 함께 술단지 깨끗이 비운다. |
| 晚來常讀易 | 저녁에는 항상 주역을 읽고, |
| 頃者欲還嵩 | 이제 곧, 송산으로 돌아가리. |
| 世事何須道 | 세상일을 어찌 말할 필요 있으랴 |
| 黃精且養蒙 ¹⁴⁵⁾ | 황정을 복용하며 몽매함을 기를 뿐이다. |
| 嵇康殊寡識 ¹⁴⁶⁾ | 혜강은 특히 식견이 적었지만 |
| 張翰獨知終 ¹⁴⁷⁾ | 장한은 홀로 그칠 바를 알았다. |
| 忽憶鱸魚膾 | 문득 농어회가 그리워져 |
| 扁舟往江東 | 조각배 타고서 강동으로 돌아갔지. |

汜水縣尉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보이는 이 시는 조집사의 방문을 받고 자신의 최근 심정을 말한 시이다. 떠날 때 떠나지 못해 비명횡사한 혜강과

145) 黃精: 道教에서 복용하면 長生不老한다는 약. 『神仙傳』에 “(王烈)常服黃精及鉛, 年三百三十八歲, 猶有少容.”의 기록이 있다. 養蒙: 『周易蒙卦』 象傳에 나옴. ‘蒙以養正, 聖功也(몽은 바름을 기르는 것으로 성인의 공덕이다).

146) 嵇康: 竹林七賢 중 한 사람. 老莊사상 특히 養生術을 좋아하여 「養生篇」을 지었음, 魏晉 교체에 물러날 때를 몰라 죽임을 당했다.

147) 張翰: 『晉書張翰傳』의 인물로 秋風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오중의 菰菜蓴羹鱸魚膾 등을 생각하며, “人生貴得適志, 何能羈宦千里以要名爵乎”라 하며 齊王 冏의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서 冏의 죽음에 따른 화를 면하였다.

미련 없이 관직을 던져버리고 고향산천에 은둔한 張翰의 고사를 대비시켜 은둔의 뜻을 밝혔다. 이 같이 도가적 사상으로 은일에 대한 동경을 담은 시들은 王昌齡의 정신적인 지향을 대변하는 시들로 그의 사상이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그러나 그의 시 가운데는 도가와 불가의 사상이 혼재하는 내용도 적지 않은데, 「緱氏尉沈興宗置酒南溪留贈」이 그 같은 작품이다.

| | |
|-------|------------------------|
| 林色與溪古 | 숲 속과 계곡은 고색창연하고 |
| 深篁引幽翠 | 깊은 대숲은 그윽히 푸른 곳으로 이른다. |
| 山尊在漁舟 | 술잔은 고깃배에 있는데 |
| 棹月淸已醉 | 맑은 달빛에 마음은 이미 취했다. |
| 始窮淸源口 | 비로소 맑은 수원에 다다르니 |
| 壑絕人境異 | 낭떠러지 계곡은仙境이 따로 없다. |
| 春泉滴空崖 | 봄 샘물은 하늘 끝 벼랑에서 떨어지고 |
| 萌草拆陰地 | 새싹은 음지에서 솟아나온다. |
| 久之風榛寂 | 오랜 바람은 고요한 상수리나무 스치고 |
| 遠聞樵聲至 | 멀리서 초동의 노랫소리 들려온다. |
| 海雁時獨飛 | 바다 갈매기 때로 저 홀로 날고 |
| 永然滄州意 | 유연히 은거에 뜻 두는 마음. |
| 古時靑冥客 | 옛날 청산에 은거했던 나그네 |
| 滅跡淪一尉 | 그 모습 감추고 일개 현위로 추락하다니. |
| 吾子躊躇心 | 그대 마음으로 주저하면서 |
| 豈其紛埃事 | 어찌 티끌 같은 속세에 매여있는가? |
| 緱峰信所尅 | 구씨산은 실로 신선이 되는 곳 |
| 濟北余乃遂 | 나 또한 장차 신선 황석공을 쫓아가리. |

齊物意已會 제물의 뜻을 이미 깨달았으나
 息肩理猶未 어깨 펴고 쉬는 이치 아직 얻지 못한다.
 卷舒形性表 몸과 정신의 밖에서 마음을 펴고 닫으며
 脫略賢哲議 세속적인 현철의 의론 벗어나리.
 仲月期角巾 봄 이월 각건 쓰고 은거하리니
 飯僧嵩陽寺 승양사에서 스님에게 밥 공양이나 하리라.

하남부의 속현인 구씨현에서 현위로 있는 심홍중으로부터 술자리를 초대 받고 쓴 작품이다. “옛날 청산에 은거했던 나그네(古時青冥客)…구씨산은 진실로 신선이 되는 곳, 나 또한 장차 신선 황석공을 쫓아가리(緘峰信所克, 濟北余乃遂)” 라고 하여 은거하리라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끝 부분에서는 “봄 이월 각건쓰고 은거하니 승양사에서 스님에게 밥 공양이나 하리라(仲月期角巾, 飯僧嵩陽寺)”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시는 불가와 도가의 사상이 혼재하는 바탕 위에 지어진 작품이라 볼 수 있겠다.

王昌齡은 이러한 작품들은 위진 시대 성행했던 유선시나 육조시대의 도연명과 射靈運 및 謝朓의 시를 모델로 하는 山水詩를 연상케 한다. 앞서 周玘이 말했듯 ‘맑은 풍격과 한적한 정취에 오묘함이 보이고 劉昫, 儲光羲 · 常建과 함께 一格을 이루었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王昌齡의 사상적 깊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유·불·도, 삼교를 넘나드는 사상적 기초 위에서 王昌齡도 인생무상이나 자신의 懷才不遇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不老長生을 염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V. 王昌齡 邊塞詩의 내용분석과 意象의 운용

앞장에서 王昌齡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王昌齡 邊塞詩를 내용별로 살펴보고 意象의 운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王昌齡은 邊塞詩파인 高適·岑參을 비롯하여 李白·王維·王翰·王之渙 등과 당시 士人계급이라는 동류의식 속에서 교류하고 있었다. 王昌齡의 詩는 총 180여수이지만, 이 가운데 邊塞詩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은 30여 수이며 대부분 樂府題에 五言古詩와 七言絶句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30여 수를 ‘건공입업과 영웅적 기개’, ‘종군의 고뇌’, ‘反戰思想’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王昌齡은 邊塞詩 창작에 있어 어떻게 意象을 운용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내용 분석

1) 建功立業과 英雄的 氣概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당대의 文人들은 번영과 안정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빈번히 발발하는 異民族과의 전쟁이라는 객관적 현실 하에서 과거를 통해 입신양명하겠다는 사과의 경직성을 버리고 변방으로 달려가 공명의 이상을 실현해보려 하였다. 또한 當時의 전쟁은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영토확장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文人에게 있어서 종군이나 참전은 미래의 찬란한 희망과 이상을 실현하는 입신양명을 담보하는 첩경이었다. 따라서 작품에는 영웅적 기개가 느껴지고 있다. 王昌齡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작품을 통해 고찰해 보기로 하자.

「變行路難」

向晚橫吹悲, 저녁 무렵 횡취가락 구슬피 울리고,
 風動馬嘶合. 바람 불어와 말 울음소리와 어우러지네.
 前驅引旌節, 선봉대가 깃발 앞세워 나아가니,
 千里陣雲匝. 천리 밖 멀리서부터 전운이 감도는구나.
 單于下陰山, 선우가 음산에서 내려오니
 砂磧空颯颯. 모래와 자갈 어지러이 흩어지네.
 封侯取一戰, 벼슬은 한 번의 전투에 달린 것,
 豈復念閨閣! 어찌 다시 규중을 생각하라!

위 작품은 王昌齡이 河北 내지 河東에서 쓴 시이다. 「變行路難」의 變은 변격이라는 뜻이다. 『樂府詩集』 行路難解題에 “行路難은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며, ‘君不見’ 을 語頭로 시작하는 句가 많다(行路難, 備言世路艱難及離別悲傷之意, 多以君不見爲首).” 라고 되어 있고 보통 7언 가행체로 많이 지어졌다. 그러나 王昌齡의 이 작품은 7언 가행이 아닌 5언이며, 내용 또한 세상살이의 고통이나 이별의 아픔이 아니라 진취적이며, 首句를 ‘君不見’ 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체를 「變行路難」이라 한 것이다.

첫째·둘째 구에서는 저녁 무렵 구슬픈 횡취 가락과 말울음소리를 배경으로 변방의 스산한 풍경을 묘사하였다. 셋째·넷째 구에서는 천리 밖에서도 전운이 감도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다섯째·여섯째 구에서는 ‘颯颯’ 는 의성어를 사용함으로써 끝도 없이 넓은 평원에 모래가 날리고 자갈이 구르는 광풍이 한바탕 몰아닥치면서 북방 기마 민족의 위협적인 침입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마지막 두 구에서 남아로 태어나 출세는 한바탕 싸움에 달렸으니 妻子를 생각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고 있다. 앞의 여섯 구는 모두 변세의 스산스런 풍경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

는 긴박한 전쟁터의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묘사하였고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급격한 반전을 이루면서 승전을 위한 비장한 각오를 읊었다. 형식상 6:2라는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강건미와 함께 시적 의미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다음 시도 같은 맥락의 작품이다.

「少年行 二首」 제 1수

西陵俠少年, 서릉의 호쾌한 소년 협객이
 送客短長亭.¹⁴⁸⁾ 시오리 정자 길에서 나그네 전송한다.
 靑槐夾兩路, 푸른 회나무가 양옆으로 늘어선 길
 白馬如流星. 백마는 유성 같이 내달린다.
 聞道羽書急, 변방에서 온 화급한 전갈에 의하면,
 單于寇井陘. 선우가 정경관을 침공해왔다는 것.
 氣高輕赴難, 늠름하게 나라 위해 싸우러 나가는데,
 誰顧燕山銘. 燕然山의 碑에 공이 새겨지길 누가 생각하랴.

호쾌한 소년 협객의 기백을 묘사한 시이다. 첫째 구에서 넷째 구까지는 소년이 유성 같이 변새로 말을 달려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다섯째 · 여섯째 구에서는 변새로 떠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오랑캐의 침략 소식에 공을 따질 겨를 없이 변새로 달려가는 호방하고 장엄한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유협소년의 애국정신과 盛唐의 진취적인 시대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다음의 「出塞·二首」 제 2수도 장엄한 기백이 흐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騶馬新跨白玉鞍, 자색말에 백옥 안장 새로 얹어 올라타고 싸웠는데,

148) 短長亭:고대에 십리 마다 있는 역참을 장정, 오리마다 있는 역참을 단정이라 했음.

戰罷沙場月色寒. 싸움 끝난 사막에 달빛이 차갑다.
 城頭鐵鼓聲猶振, 성 앞의 쇠북소리 여전히 울리고,
 匣里金刀血未乾.匣 속의 칼은 피 아직 마르지 않았다.

이 시는 앞과 뒤의 상황이 거의 연결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한 차례의 전쟁을 치르고 난 뒤, 사막을 응시하는 장면과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출정의 징소리에 혈기 넘쳐 모든 것을 잊고 바로 나아가려는 병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갑 안의 칼에 묻은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변방의 상황과 또 다른 전쟁에 임하려는 병사들의 솟구치는 기백과 뜨거운 충정에 비장함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는 王昌齡의 애국정신과 민족의식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의 「從軍行」 역시 이러한 기상이 충만한 작품이다.

大將軍出戰, 대장군이 싸우러 나오니
 白日暗榆關. 대낮인데도 유관이 어둡다.
 三面黃金甲, 삼면을 황금 갑옷으로 포위하니
 單于破膽還. 선우는 간담이 서늘하여 도주한다.

從軍行은 본래 원정 간 병사의 고생을 주제로 노래하는 악부시의 題名이다. 이 시는 웅장한 대장군의 기개에 용기를 잃고 도주하는 異民族의 모습을 그린 시이다. 첫째·둘째 구는 대장군의 출전과 험난한 전쟁터의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묘사하였다. 대낮인데도 어둡다는 것은 모래바람과 행군하는 병사들이 일으키는 먼지로 하늘마저 어두컴컴하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을 함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상상의 공간을 훨씬 넓혀주었다. 셋째·넷째구는 오랑캐를 포위함에 三面만 포위하여

도주할 길을 열어주는 三驅之道¹⁴⁹⁾를 배품으로써 인도주의 정신까지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음에는 「從軍行 七首」 가운데 제 4수이다.

靑海長雲暗雪山¹⁵⁰⁾ 청해의 기연산은 자욱한 구름에 덮혀 어두운데,
孤城遙望玉門關¹⁵¹⁾ 외로운 성에서 아득히 먼 옥문관을 바라본다.
黃沙北戰穿金甲 누런 먼지 속에서 쇠갑옷이 뚫리도록 계속 싸울망정,
不破樓蘭終不還¹⁵²⁾ 樓蘭을 쳐부수지 않고는 끝내 돌아가지 않으리.

전반부에서는 변방의 다소 음산한 분위기를 통해 시인이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까닭을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의 주된 의도는 바로 “누란을 쳐부수지 않고는 끝내 돌아가지 않으리” 라는 투지를 과시한 후반부에 있다. 이 말은 변방을 지킴으로써 報國하겠다는 호방한 정신 가운데 비장함을 느끼게 한다.¹⁵³⁾ 여기에서 말하는 금갑옷은 수많은 전

149) 『周易·比卦』 「象傳」: “王用三驅.”

150) 靑海: 현재 청해성에 있는 청해호. 雪山: 祁連山이라고도 하며 대개 지금의 崑崙산맥의 일부본이다.

151) 玉門關: 漢武帝 때 설치한 關으로 서역으로부터 玉石을 수입해 오는 길목이었으므로 이 이름을 얻게 되었다. 故址는 지금의 甘肅省 敦煌의 서북쪽 小方盤城인데 육조 이후로 關址를 동쪽 지금의 安西縣 雙塔堡 부근으로 옮겼다.

152) 樓蘭: 漢 西域國名, 지금의 新疆維吾爾自治區. 漢昭帝 元鳳(기원전 80-75) 무렵에 나라 이름을 鄯善으로 고쳤다. 『漢書·傅介子傳』에 서한 때에 누란왕과 흉노 흉통이 여러 차례 한나라 사신을 죽였는데, 부개자가 명을 받고 사신으로 가서 피를 내어 누란왕을 찔러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장안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여기서 누란은 당나라 때 서북 변경 지방의 異民族을 범칭하는 말로 볼 수 있다.

153) 이 견해에 대해 劉先照와 劉永濟는 이견을 제시했다. 劉先照는 「評邊塞詩」에서 “마지막 구는 전쟁이 병사들에게 주는 고통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終” 자의 의미에 유의해야 한다. 이 구는 ‘누란을 물리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리’ 라고 해석하여 영웅적인 기개가 돋보이는 시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고, 劉永濟는 『唐人絕句精華』(人民文學出版社, 1981)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란을 평정하지 못하여 끝내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였다. ‘중’ 자를 이용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처연하게 한다. 대저 ‘終不還’ 은 종내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위 금갑옷을 입었다는 것과 연관하여 그것을 본다면 오랜 수자리의 고통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만일 적을 물리치어 공을 세우고 돌아간다고 이해한다면 시인의 본의를 저버리는 것이다(寫思歸之情而曰 ‘不破樓蘭終不還’, 用一 ‘終’ 字而使人讀之悽然. 蓋 ‘終不還’ 者, 終不得還也, 連上句金甲着穿觀之, 久戍之苦益明, 如以爲思破敵立功而歸,

쟁에서 누런 모래 바람으로 인한 고통의 갑옷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을 물리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당시 병사들의 굳은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음 「從軍行」 제 5수에서는 드디어 출전하고 이어 승전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大漠風塵日色昏, 사막의 먼지바람에 햇빛도 어둡고
紅旗半卷出轅門.¹⁵⁴⁾ 붉은 깃발 반쯤 접힌 채 군영의 문을 나선다.
前軍夜戰洮河北,¹⁵⁵⁾ 앞선 군대가 洮河 북쪽에서 밤새 싸웠는데,
已報生擒吐谷渾.¹⁵⁶⁾ 벌써 吐谷渾의 생포를 알려온다.

아무리 굳은 결의를 다져도 출전 직전의 마음은 어둡고 불안하기 마련이다. 이 시의 전반부에서 이러한 심정이 경물 묘사 속에 담겨 있다. 먼지바람, 어두운 햇빛, 바람에 휘말리는 붉은 깃발 등이 출전하는 군사들의 어둡고 불안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후반부에 와서 다시 급전한다. 전군이 승리했다는 희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반부의 어두움과 대비되며, 마지막 구의 ‘已’ 자를 통해 속도감과 승리의 기쁨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상승적 분위기는 「從軍行」의 여섯 번째 시에서는 자신감이 넘쳐흐른다.

則非詩人之本意矣.)” 라고 하였다.

154) 轅門:군영의 문.

155) 洮河:巴爾西河라고도 하며 지금의 青海省 서쪽 傾山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굽이치다가 감숙성 민현임조현을 통과해서 황하로 흘러든다.

156) 吐谷渾:고대 중국 서부의 소수민족의 이름. 진나라 때 鮮卑族 慕容氏의 후예라고 전한다. 『新唐書·西域傳』에 “토곡혼은 감송산의 남쪽 洮河水 서쪽에 살면서 남으로 백단과 이르렀으며 땅이 수천 리에 이르렀다(吐谷渾居甘松山之陽, 洮河水之西, 南抵白蘭, 地數千里.)” 고 한다. 당나라 초기에 수차례 서쪽 변경의 우환이 되었는데 高宗 때에 唐과 吐蕃 연합군에 의해 패배했다. 또한 널리 邊疆의 적을 가리키는 말로도 볼 수 있다.

胡瓶落膊紫薄汗,¹⁵⁷⁾ 胡瓶 어깨에 매고 자줏빛 薄汗馬를 탔는데,
 碎葉城西秋月圓,¹⁵⁸⁾ 碎葉城 서쪽에 가을달이 둥글다.
 明敕星馳封寶劍, 밝은 칙명은 별처럼 달려 보검을 내리니,
 辭君一夜取樓蘭. 임금님께 하직하고 오늘 밤 안으로 樓蘭을 취하리라.

마음이 무겁고 불안할 때는 앞의 작품에서처럼 어두운 雪山이나 黃沙 등에 눈이 갓지만 자신감이 생기니 군장도 가볍고 타고 있는 말도 빛나 보이며, 시름에만 잠기게 하던 가을 달도 둥글게만 보인다. 거기다가 황제의 칙명까지 떨어졌으니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 밤으로 누란을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변방을 안정시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호쾌한 정회를 나타냄으로써 목숨을 돌보지 않는 보국정신과 정의를 위해 주저 없이 나아가는 영웅적 기개를 느낄 수 있다.

2) 從軍의 苦惱

진취적 기상이나 공명심은 盛唐 시기의 일반적인 풍조였다. 그러나 공명심도 출세욕도 변세에서 느끼는 고뇌 즉 이별, 고향생각, 규방에 대한 그리움은 이내 후회로 이어져 전쟁에 대한 무상함이나 혐오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從軍行 七首」 제 1수

烽火城西百尺樓, 봉화대 서쪽 백 척의 누각,

157) 胡瓶:어깨에 매는 물을 담은 기구.

落膊:落은 絡의 뜻. 박은 어깨 팔 또는 포, 말린 고기, 건조한 식량 등을 뜻한다. 그래서 ‘어깨에 매고’ 또는 육포를 묶고 ‘의 뜻으로 볼 수 있다.

薄汗:蕃 땅에서 나는 大馬.

158) 碎葉城:지금의 중앙아시아 바이칼호 서쪽에 있으며 북으로 碎葉水(지금의 楚河)를 임하고 있어서 이 같은 이름을 얻었다.

黃昏獨坐海風秋. 황혼에 홀로 오르니 청해에서 가을바람 불어온다.
 更吹羌笛關山月, 게다가 오랑캐 피리는 관산월을 부니,
 無那金閨萬里愁. 어찌할까 만 리 밖 규방을 향한 시름을.

첫째 구에서 봉화대가 있는 성의 서쪽 백 척의 누각을 배경으로 웅장한 출발을 하고 있다. 둘째 구에서는 첫째 구의 웅장한 출발과는 달리 황혼녘에 그 누각에 오르고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서 고독감과 쓸쓸함으로 詩想이 변화한다. 이런 상황에 이별을 슬퍼하는 곡 관산월이 오랑캐 피리로 연주되어 들려온다. ‘更’이라는 말 속에 쓸쓸함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鍾惺은 “更吹·無那에 轉折이 있다. 이 시의 묘미는 뒤의 두 구에 있으며 무한한 향수를 표출하고 있다(更吹·無那有轉折. 此詩妙味, 在後二句, 表出無限鄉愁).” 라고 평하였고, 沈德潛은 ‘만 리 밖의 금규에 생각이 미치니 시름이 없을 수 있겠는가(萬里之外, 念及金閨, 能無愁乎)? “라고 하였다.¹⁵⁹⁾ ‘萬里’ 라는 두 글자는 변새에서 규중까지의 거리만큼 시름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 시는 짧은 네 구절 속에 매 구마다 시상이 변화하고 정감이 심화되는 구조 속에 웅건한 기개에서 애절한 시름으로 정서의 극한을 왕래하고 있다. 다음의 「從軍行·七首」 제 2수에서 시름은 한층 깊어진다.

琵琶起舞換新聲, 비파 가락에 일어나 춤추며 새 노래로 바꾸어 불러도
 總是關山舊別情. 결국 관산에서 지난날 이별하던 정이구나.
 撩亂邊愁聽不盡, 심란한 마음, 슬픔에 노랫가락 차마 들을 수 없는데,
 高高秋月照長城. 높디높은 가을 달은 장성을 비춘다.

전반부에서는 기분전환을 시도하여 시름을 극복해보려 하지만 끝내 벗어

159) 李國勝, 『王昌齡詩校注』, 文史哲出版社, 臺北, 1973, 191쪽.

날 수 없는 정황을 말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변방의 시름 때문에 가슴을 아프게 하는 노래들을 차마 다 들을 수 없어 長城에 높이 뜬 가을달에 주목한다. 술한 사연을 간직한 장성을 말없이 비추는 가을달, 그 높이(高高)만큼 시름도 높지만 가을 달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비추고 있다. 唐汝詢은 “음악이 연주되자 즐거운 마음에 춤이 시작되려는데 비파가 다시 새로운 곡을 연주하는데 본래는 즐거운 곡이던 이 곡도 모두 이별의 정이 되어 버린다. 들려오는 변세의 소리만도 이미 견딜 수 없는데 달이 장성을 비추고 있으니 어이하리! 들리고 보이는 것 모두가 변방의 시름이다.”¹⁶⁰⁾라고 하고 또 “景중에 情이 함축되어 있으니 더욱 슬프다(景中含情更慘).” 고 하였다. 黃叔燦은 “‘撩亂邊愁’는 ‘聽不盡’ 세 글자에서 절정을 이루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이 이미 마음을 모두 표현한 것이다. ‘高高秋月照長城’은 景에 情을 의탁한 것이며 생각이 아득해지면서 벗어난 듯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부합하였으니 시에 있어서 최상의 경지이다.¹⁶¹⁾” 라고 하였듯이 적극적 몸부림보다 이러한 소극적 행동의 묘사 속에 시름의 표현이 한층 깊이를 획득한 경우이다. 다음은 「從軍行 二首」 중의 제 2수이다.

秋草馬蹄輕 가을 풀에 스치는 말발굽 소리 가볍고
 角弓持弦急 뿔장식 활에 화살 하나 급히 재우네.
 去爲龍城戰 용성 싸움에 나가보니
 正值胡兵襲 때마침 오랑캐의 습격을 받고 있네.
 軍氣橫大荒 군사들의 기세는 사막을 가로지르고
 戰酣日將入 전투는 한창인데 해는 저물려 한다.
 長風金鼓動 세찬 바람에 징과 북 흔들리고

160) 唐汝詢, 『唐詩解』 권26: “奏樂所以娛心, 今我起舞而琵琶更奏新聲本以相樂也. 然總之爲離別之情. 邊聲已不堪聞, 其奈月照長城乎! 入耳目者皆邊愁也.”

161) 黃叔燦, 『唐詩箋注』: “‘撩亂邊愁’而結之以‘聽不盡’三字, 下无語可續, 言情已到盡頭矣. ‘高高秋月照長城’妙在即景以托之, 思入微茫, 似脫實粘, 詩之最上乘也.”

白露鐵衣濕 흰 이슬에 쇠갑옷이 젖는다.
 四起愁邊聲 사방에서 시름찬 변방의 소리 일어나니
 南庭時佇立¹⁶²⁾ 남정에서 때로 우두커니 서 있다.
 斷蓬孤自轉 잘려진 쭉대 외로이 구르고
 寒雁飛相及 찬 기러기 줄지어 날아간다.
 萬里雲沙漲 만리에 구름과 모래 가득 차 있고
 平原冰霰澀 평원은 진눈깨비 쌓여 길이 험난하다.
 惟聞漢使還 한나라 사신 돌아간다는 말에
 獨向刀環泣¹⁶³⁾ 칼고리를 보면서 홀로 울었다.

이 시의 앞부분에서는 胡兵의 습격을 받아 싸우고 있는 전쟁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해는 저가고 저녁 이슬은 갑옷을 적시니 작자에게는 멀리서 들려오는 씩씩한 함성도 서글프게만 느껴질 뿐이다. 따라서 11구에 보이는 잘려진 쭉대는 고독한 王昌齡 자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날아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러기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 16 구에는 漢나라 李陵의 고사를 사용한 것으로 環과 還은 쌍관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표현한 것이다. 오랜 전쟁에서 오는 고달픔과 향수로 인해 눈물짓는 가련한 병사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王昌齡은 아군 뿐 아니라 적군인 오랑캐들을 묘사의 주체로 삼음으로써 아군이나 적군이나 인간의 고뇌는 같음 것임을 「胡笳曲」을 통해 나타내었다.

城南虜已合 성의 남쪽에 오랑캐 병사 모여들어

162) 南庭:번새 가까이에 있었던 南匈奴의 王庭.

163) 『漢書·李廣蘇建傳』, “...見陵, 未得私語, 卽目視陵, 而數數自循其刀環, 握足, 陰諭之, 言可歸還也.” 여기서 陵은 이릉을 말함.

| | |
|-------|-------------------------------|
| 一夜幾重圍 | 하룻밤에 성을 몇 겹으로 에워쌓네 |
| 自有金笳引 | 본래 (이 성에는) 첫대의 곡을 잘 부는 사람이 있어 |
| 能沾出塞衣 | 변방에 나온 병사들의 옷을 흥건히 적실 수 있다네 |
| 聽臨關月苦 | 들으면 관새(關塞)의 달을 두고 가슴에 사무치고 |
| 清入海風微 | 맑은 소리는 호수 바람에 실려와 부드럽네 |
| 三奏高樓曉 | 날 썰 때까지 높은 누대에 올라 세 번 연주하니 |
| 胡人掩涕歸 | 오랑캐 병사들 모두 눈물 훔치며 고향으로 돌아가네 |

이 시는 개원 11년(723) 병주에서 객거할 때 지은 것으로 변방에서 異民族의 대군과 싸운 진의 장수 劉琨이 호가곡을 불어 적을 물러가게 한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¹⁶⁴⁾ 처음 변방으로 달려왔을 때의 기개와 희망은 사라지고 종군에 지쳐 급기야 후회하기에 이른다. 다음의 시는 그러한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從軍行 二首」 제 2수

| | |
|--------|---------------------------|
| 向夕臨大荒, | 저녁 무렵 변방에 이르니 |
| 朔風軫歸慮. | 삭풍에 돌아가고픈 마음만 생기는 구나. |
| 平沙萬里餘, | 끝없는 사막은 만여 리나 되고, |
| 飛馬宿何處. | 비마는 어느 곳에서 머무르는가? |
| 虜騎獵長原, | 오랑캐는 평원을 달리며 사냥을 하고는 |
| 翩翩傍河去. | 홀쩍 강가로 간다. |
| 邊聲搖白草, | 변방의 바람소리는 못 풀들을 흔들고 |
| 海氣生黃霧. | 호수의 기운은 누런 안개를 피워낸다. |
| 百戰苦風塵, | 술한 전쟁을 치르느라 바람먼지 속에서 고생했고 |

164) 『世說新語·雅量』: “劉琨爲并州刺史, 胡騎圍之數重. 琨夕乘月登樓清嘯, 賊聞之淒然長嘆, 中夜奏胡笳, 賊皆流涕, 人有懷上之思. 向晚又嘆之, 賊竝棄圍奔走.”

十年履霜露. 십 년이나 서리와 이슬을 밟았다.

雖投定遠筆,¹⁶⁵⁾ 비록 정원(반초)처럼 붓을 던지고 전쟁터에 나왔지만

未坐將軍樹.¹⁶⁶⁾ 아직 장군의 공을 세우지도 못했다.

早知行路難, 전쟁터의 고통을 진작 알았더라면

悔不理章句. 경서 읽어 과거 보지 않았음을 후회한다.

전반부에서 십 년간 변방에서 보아온 ‘朔風’, ‘平沙’, ‘白草’ ‘黃霧’ 등을 통해 변세의 황량함을 나타냄으로써 병사들의 고통을 암시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 ‘百戰苦風塵, 十年履霜露.’ 바람먼지와 전쟁터에 나가느라 십년 동안 이슬과 서리를 밟았음에도 처음 건공입업의 희망을 품고 기개 있게 변방으로 달려왔지만 建功의 길은 멀기만 하고 고통만 더할 뿐이다. 차라리 과거시험을 통해 출세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후회만 엄습하고 자포자기하기에 이른다. 다음의 「從軍行 七首」 제 7수는 현실의 막막함과 불안감을 묘사하고 있다.

玉門山嶂幾千重, 옥문의 산봉우리는 몇 천 겹인가

山北山南總是烽. 산 북쪽 산 남쪽 온통 봉화대뿐이다.

人依遠戍須看火, 병사들은 먼 망루에 의지해 봉화불을 보지만

馬踏深山不見蹤. 말이 깊은 산을 지나가니 자취를 볼 수 없구나.

옥문관의 첩첩 산봉우리와 온 산에 있는 봉화대가 다시 시선을 끈다. 막막하고 긴장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담겨있는데 이는 후반부에

165) 『後漢書·班超傳』: “(超)家貧, 常爲官傭書以供養. 久勞苦, 嘗輟業投筆嘆曰: ‘大丈夫無它志略, 猶當效傅介子·張騫立功異域, 以取封侯, 安能久事筆硯間乎?’” 그 뒤 마침내 서역을 정벌하는 공을 세워 定遠侯에 봉해졌다.

166) 『後漢書·馮異傳』: “(劉秀部將馮異)爲人謙退不伐···每所止舍, 諸將并坐論功, 異常獨屏樹下, 軍中號曰 ‘大樹將軍.’”

서 좀더 구체화된다. 병사들은 언제 타오를지 모르는 봉화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고, 깊은 산속이라 말의 자취조차 볼 수 없으므로 잘못 접어들면 길을 쉽게 잃을 뿐만 아니라 적이 쳐들어 와도 간파하기가 또한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한 변방의 경물묘사인 듯하지만 이 속에 병사들의 막막함과 불안감을 담고 있다.

「大梁途中作」

怏怏步長道 울적하게 아득히 먼 길을 걸어가니
 客行渺無端 나그네 행로 아득히 끝이 없어라
 郊原欲下雪 들판에는 눈이 내리려는지
 天地稜稜寒 천지가 꿈꿈 얼어붙었다.
 當時每酣醉 당시에는 매번 술에 취해
 不覺行路難 行路의 어려움 몰랐었다
 今日無酒錢 오늘은 술 마실 돈도 없으니
 淒惶向誰嘆 처량한 신세 누구에게 한탄하라

병사들이 겪는 시름은 아니지만 王昌齡이 대량으로 가면서 변방의 거칠고 막막한 길에서의 시름을 묘사하고 있다. 변방 병사들의 시름과 원망이야 조정으로 향하기 마련이지만 여기서는 고달픔을 원망할 대상도 없다. 바로 자신에 대한 원망이자 한탄인 것이다. 넷째 구까지는 변방 지역의 험난한 환경을 묘사하고, 오구·육구·칠구에서는 힘들 때 벗이 되어주던 술조차 마실 수 없는 처량한 신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시름은 어쩌면 변방 병사들의 시름만큼이나 혹독할 것이다.

邊塞詩에서 다루고 있는 변방 관련 문제는 병사들이 느끼는 외로움,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어서 오는 것이 전쟁의

무상함이다. 이는 변세의 처량하고 풍정과 함께 邊塞詩의 비장미를 형성시켜주는 요인이 된다.

3) 人道主義에 기인한 反戰思想

從軍을 통해 공을 세우는 것이 당시의 풍조였지만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결국은 전쟁의 참혹성과 잔인성의 깨달음으로 귀결된다. 이 전쟁의 참혹함과 잔인함은 곧 반전사상으로 직결되고 변방정책의 불합리 즉 邊將의 부패, 상벌의 불공정을 고발하고 심지어 변방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代扶風主人答」의 全篇이다. 王昌齡 任官 전의 初期詩에 해당된다. 이 시는 탄탄한 서사적 구조를 바탕으로 전쟁이 가져온 비극을 부풍주막 주인의 입을 빌려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 | |
|--------|----------------------------|
| 殺氣凝不流, | 살기는 응어리져 흠어지지 않고 |
| 風悲日彩寒. | 차가운 햇살 아래 바람은 슬피운다. |
| 浮埃起四遠, | 휘날리는 먼지 사방에서 일어나니 |
| 游子彌不歡. | 나그네는 더욱 서글프네. |
| 依然宿扶風, | 오늘도 여전히 扶風의 주막에 머물며 |
| 沽酒聊自寬. | 애오라지 술잔 들며 답답한 마음을 달랜다. |
| 寸心亦未理, |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 |
| 長鋏誰能彈. | 내 어찌 풍훤처럼 긴 칼을 두드릴 수 있으리오. |
| 主人就我飲, | 주인도 나와 함께 술잔을 들이키며 |
| 對我還慨嘆. | 불우한 신세를 개탄하더니 |
| 便泣數行淚, | 이내 눈물을 줄줄 흘리며 |
| 因歌行路難. | 인생살이 고달픈 노래 부른다. |

十五役邊城, 열다섯에 변방 전쟁터에 나가
 三回討樓蘭. 세 차례나 누란을 토벌했었지.
 連年不解甲, 여러 해 동안 군장을 풀지 못했고
 積日無所食. 여러 날을 끼니도 잇지 못했소.
 將軍降匈奴, 장군은 흉노에 투항을 했고
 國使沒桑乾. 사신은 상견하에서 목숨을 잃었소.
 去時三十萬, 떠날 때는 삼십 만이었는데
 獨自還長安. 나만 살아서 장안으로 돌아왔소.
 不信沙場苦, 전쟁터의 고통이 믿기지 않는다면
 君看刀箭瘢. 칼과 화살에 다친 흉터를 보시오.
 鄉親悉零落, 고향의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冢墓亦摧殘. 무덤 또한 아니 돌봐 파손되었소.
 仰攀青松枝, 솔가지 부여잡고 하늘을 우러러 보니
 慟絕傷心肝. 복받치는 서러움에 역장이 무너졌소.
 禽獸悲不去, 짐승들조차 슬퍼 떠나지 못하는데
 路傍誰忍看. 길에서 누군들 참고 보겠는가!
 幸逢休明代, 다행히 밝은 세상을 맞아
 寶宇靜波瀾. 천하의 파란이 멈추었도다.
 老馬思伏櫪, 늙은 말은 마구에 엮드려 쉬고 싶은 생각 뿐
 長鳴力已殫. 오랜 세월 달리느라 기력 이미 다하였네.
 少年與運會, 소년은 운 좋게 좋은 시대 만났건만
 何事發悲端. 어인 일로 슬픈 기색 내보이는가?
 天子初封禪, 천자께서 처음으로 봉선을 올리시고
 賢良刷羽翰. 어지신 신하들 심기일전하였네.
 三邊悉如此, 변방이 모두 이와 같으니

否泰亦須觀.¹⁶⁷⁾ 앞날의 길흉을 점칠 수 있으리.

위 詩題의 扶風은 지금의 陝西省 鳳翔縣이다. 종군의 어려움과 전쟁의 참상을 부풍 주막 주인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15 세에 종군을 시작하여 종군을 통한 建功이 얼마나 고되고 험난한 길인가를 깨닫고 의기소침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老병사는 전쟁터에서 싸움과 굶주림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냈고, 또한 패전으로 인해 동료 병사들이 모두 죽고 겨우 살아 돌아왔지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쟁터 못지 않은 고향의 피폐함이니 “慟絕”이란 표현이 그야말로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슬픔 속에 이제 안정되었어도 이미 자신의 몸은 지쳤음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 천자가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고 훌륭한 신하들이 보좌하니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열심히 분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시의 말미는 이렇듯 낙관적이지만 시의 대부분이 전쟁의 고통과 폐해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의 중심은 역시 반전의식에 있다. 시 전편을 통해 전쟁에 반대한다는 말은 한 곳도 없지만 객관적 사실을 성실하게 묘사하여 독자로 하여금 반전의식을 갖게 해준다. 변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문제의 지적 및 이에 대한 대안은 다음 시에서도 보인다.

「宿灊上寄侍御瓊弟」

.....

昨聞羽書飛, 어제 들으니 긴급한 전갈이 날아들어
兵氣連朔塞. 전쟁의 기운이 북방 변세에 잇달아 있다고
諸將多失律, 여러 장수들은 규율을 잃고
廟堂始追悔. 조정에서는 비로소 후회한다고

167) 否泰:주역의 괘명. 否卦와 泰卦를 말함. 천지 교합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泰라 하고 천지의 교합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否라 한다. 여기서는 運의 通塞를 말함.

安能召書生, 어떻게 하면 훌륭한 선비를 모셔다
 願得論要害. 시국의 요해를 논할 수 있을까?
 戎夷非草木, 오랑캐는 초목같이 나약하지 않으니
 侵逐使狼狽. 선불리 침략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雖有屠城功, 비록 적지의 성을 쳐부수는 공도 있었으나
 亦有降虜輩. 또한 적에게 항복하는 무리도 있었다
 兵糧如山積, 군량은 산더미 같이 쌓이고
 恩澤如雨霏. 임금의 은택은 큰 비 같이 내린다.
 羸卒不可興, 파리한 병사는 전쟁터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積地無足愛. 사막지대는 아까워할 만한 것이 없다.
 若用匹夫策, 만약 필부의 계책을 쓴다면
 坐令軍圍潰. 앉아서 호령하여 군대를 붕괴시킨다.
 不費黃金資, 황금을 투자하지 않고서,
 寧求白璧賚. 어찌 백옥의 위로를 구할 수 있을 손가.
 明主憂既遠, 명철하신 우리 임금 생각이 심원하니,
 邊事亦可大. 변방의 일 또한 태평하리라

이 작품은 「宿灞上寄侍御璵弟」의 일부를 節錄한 것이다. 천보 2년 (743) 봄 그가 장안의 동남쪽 灞上에 있을 때 동생에게 부친 시이다. 동생인 왕여는 肅宗 때 재상이 되었지만 당시는 方士로 侍御의 지위에 있었다. 이 시에서 王昌齡은 동생을 통하여 변방정책에 문제가 많음을 간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변방 장수들의 무능함(諸將多失律)과 戎夷를 경계해야 한다는(戎夷非草木) 점과 변방의 공과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雖有屠城功, 亦有降虜輩)을 알리고 있다. 그 다음은 “만일 필부의 계책을 쓴다

면 앉아서 호령으로 군대를 붕괴시켜, 황금과 재물을 쓰지 않았는데, 어찌 보물을 하사받기를 구하겠는가! 명철하신 우리 임금 생각이 심원하시니, 변방의 일 또한 태평하리라(若用匹夫策, 坐令軍圍潰, 不費黃金資, 寧求白璧賚. 明主憂既遠, 邊事亦可大).”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획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잦은 변방의 전쟁으로 야기된 諸 폐해에 대한 제언은 만년의 작품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箜篌引」

| | |
|--------------------------|-----------------------------|
| 盧溪郡南夜泊舟, | 노계군 남쪽에 밤배를 대니 |
| 夜聞兩岸羌戎謳. | 밤에 들려오는 강가의 오랑캐 노랫소리 |
| 其時月黑猿啾啾, | 그 때 달은 어둡고 원숭이 울음소리 짝씩 |
| 微雨沾衣令人愁. | 가랑비에 젖은 옷 사람을 시름겹게 한다. |
| 有一遷客登高樓, | 유배 온 나그네 높은 누대에 올라 |
| 不言不寐彈箜篌. | 말없이 자지도 않고 공후를 뜬다. |
| 彈作薊門桑葉秋, ¹⁶⁸⁾ | 통겨 짓는 곡은 계문 상업의 가을 |
| 風沙颯颯青塚頭. | 모래 바람은 왕소군의 푸른 무덤 머리에 서걱거린다 |
| 將軍鐵驄汗血流, | 장군의 철갑 두른 말은 피땀이 흐르건만, |
| 深入匈奴戰未休. | 흉노 땅 깊숙이 들어가 싸우느라 쉴 틈이 없다. |
| 黃旗一點兵馬收, | 천자의 깃발 아래 병마를 거두면 |
| 亂殺胡人積如丘. | 어지럽게 오랑캐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다. |
| 瘡病驅來配邊州, | 병든 몸 이끌고 변방으로 나와 |
| 仍披漠北羔羊裘. | 사막 북쪽에서 양 가죽 옷을 입고 지낸다. |
| 顏色飢枯掩面羞, | 얼굴은 굵주려 말라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는데 |

168) ‘薊門桑葉秋’는 당시 시인들에 있어 어느 정도 보편적인 이미지로 보이는데 庾信的「燕歌行」에 “寒雁邕邕渡潦水, 桑葉紛紛落薊門”의 句가 있고 唐太宗의「儀鸞殿早秋」에도 “寒鸞薊門葉, 秋發小山枝”의 句가 있다. 曲名이라기 보다는 연주하는 곡의 정취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 |
|--------------------------|-------------------------------------|
| 眼眶淚滴深兩眸. | 눈자위에는 눈물이 떨어지고 눈은 뺨하니 들어갔네. |
| 思還本鄉食犛牛, | 고향으로 돌아가 소고기 먹고 싶은데 |
| 欲言不得指咽喉 | 말을 하려해도 하지 못하고 목구멍을 가리킨다. |
| 或有強壯能咿嗶, | 혹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탄식이라도 하면서 |
| 意說被他邊將仇. | 속마음을 말했다간 장교에게 보복 당한다. |
| 五世屬藩漢主留, | 오대에 걸쳐 藩州에 속해 천자의 은덕 속에서 |
| 碧毛氈帳河曲游. | 푸른 천막집에 살며 황하가 구비치는 서북방에서 머물렀다. |
| 橐駝五萬部落稠, | 낙타 오만에 부락이 뻗뻗했고 |
| 敕賜飛鳳金兜鍪. | 천자께서 봉황새긴 금 투구도 하사하셨다. |
| 爲君百戰如過籌, | 임금 위해 백 번 싸우기 산가지 세듯 했고 |
| 靜掃陰山無鳥投. | 음산의 적을 소탕해서 새 그림자도 날아들지 못할 정도였으나 |
| 家藏鐵券特承優, ¹⁶⁹⁾ | 집에 철권을 가진 장군들만 특히 우대를 받으며 |
| 黃金千斤不稱求. | 황금 천근을 가져도 충분치 않다고 한다 |
| 九族分離作楚囚, | 내 일가친척은 모두 흩어지고 옥에 갇혔다 |
| 深溪寂寞弦苦幽, | 깊은 계곡 적막한데 공후의 현은 괴롭고 쓸쓸하니 |
| 草木悲感聲颯颯. | 초목도 슬퍼서 바람에 서걱서걱 소리 내어 울고 |
| 僕本東山爲國憂, | 나는 『빈풍·동산』 詩를 본받아 나라를 위해 근심하 고, |
| 明光殿前論九疇. | 명광전 앞에서 치세의 대도를 논했다 |
| 籠讀兵書盡冥搜, | 병서를 독파하여 깊은 생각을 다하고 |
| 爲君掌上施權謀. | 천자를 위해 손바닥에서 권모를 펼치면 |
| 洞曉山川無與儔, | 산천을 환히 알아 더불어 겨룰 자 없었다 |

169) 鐵券:조정에서 공신에게 예우하여 주는 信物.

| | |
|----------|----------------------------|
| 紫宸詔發遠懷柔. | 자신궁에서 멀리 회유의 조서를 발하려 |
| 搖筆飛霜如奪鉤, | 붓 흔들면 서리가 날고 칼 빛을 다투는 듯 |
| 鬼剩不得知其由. | 귀신도 그 유래를 알지 못할 정도. |
| 憐愛蒼生比蚍蜉, | 백성이 개미같이 어렵게 살아감을 가없이 여기서 |
| 朔河屯兵須漸抽. | 북방과 하북의 병사를 점차 줄여야 한다. |
| 盡遣將來拜御溝, | 모든 번국이 항복해 와 궁궐에서 배알하게 하고 |
| 便令海內休戈矛. | 천하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
| 何用班超定遠侯, | 어떻게 하면 정원후 반초 같은 장군의 일을 |
| 史臣書之得已不. | 사관이 역사책에 기록하는 걸 그만둘 수 있을까? |

天寶 7년(748) 龍標로 폼적가면서 쓴 시이다. 전체 45 구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시중 가장 긴 작품으로 만년의 역작이다. 龍標로 가는 도중 盧谿에서 머물며 먼 북방을 생각하며 타는 篋篋의 곡이 작품의 동기가 되었다.

이 시는 4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 제 8 구까지(盧溪郡南夜泊舟~風沙颯颯青塚頭)로 폼적되어 가는 도중 공후를 뜯게 된 동기를 나타내었다. 둘째 단락은 제 9 구에서 제 20 구(將軍鐵驄汗血流 ~意說被他邊將仇)까지 전쟁터 병사들의 어려움을 그리고 있다. 셋째 단락은 제 21 구에서 제 32 구(五世屬藩漢主留~草木悲感聲颯颯)까지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지만 결과는 비참하게 된 신세를 고백 투로 그리고 있다. 넷째 단락은 제 33 구에서 끝(僕本東山爲國憂~史臣書之得已不)까지로 평화적인 정책을 펴 전쟁을 그만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만년에 유적지로 가는 도중 변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병사의 일을 예시하면서 심각하게 그리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잦은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언덕과 같이 쌓인 시체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병사들의 고통스런 생활로 극명하게 나타내었고 그 대안으로 평화적인 변경정책을 제안하면서 끝을 맺었다.

「塞下曲 四首」 제 1수

蟬鳴空桑林 매미가 빈 뽕나무 숲에서 우는
八月蕭關道¹⁷⁰⁾ 8월의 蕭關 길.
出塞復入塞 변세를 나와도 다시 들어가도
處處黃蘆草 곳곳에 누런 갈대풀
從來幽并客 예부터 유주와 병주의 나그네는
皆共塵沙老 모두 전장의 먼지와 함께 늙었다.
莫學游俠兒 배우지 말게나
矜誇紫驪好¹⁷¹⁾ 자주색 준마를 자랑이나 하는 험객을.

첫째 · 셋째 구에서는 가을날의 零落한 장면이 펼쳐지고 다음 두 구절은 첫 구를 이어서 황량한 갈대밭의 쓸쓸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게다가 셋째 구는 시간의 유구함을, 넷째 구는 공간의 요원함을 부각시켜 시간과 공간 감각을 무궁무진한 감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병사들이 집을 생각하는 심정은 더욱 절박해진다. 다섯째·여섯째 구에서는 筆法이 一轉하여 체념 내지는 스스로를 위안하는 말을 사용하여 싸우다 죽는 것이 병사들의 본분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두 구에 가서는 말(馬) 자랑만 하다가 부질없이 사막에서 죽어가는 유희아가 되지 말 것을 타이르고 있어 『隋書·地理志』에 “옛날부터 용감하고 호협한 사람은 모두 병주와 유주를 으뜸으로 쳐주었다(自古言勇俠者皆推幽并).” 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사실상 자신의 중군 생활에 대한 짙은 회의이며 나아가서는 전쟁에 대한 반감이기도 하다.

「塞下曲 四首」 제 2수

170) 蕭關:고대의 4 關 가운데 하나. 현재 甘肅省 固原縣 東南쪽에 있다.
171) 紫驪:駿馬의 이름.

| | |
|------------------------|-----------------------|
| 飲馬渡秋水, | 말에 물 먹이려 가을 강을 건너니, |
| 水寒風似刀. | 물은 차고 바람은 칼날 같다. |
| 平沙日未沒, | 끝없는 사막에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아, |
| 黯黯見臨洮. ¹⁷²⁾ | 어슴푸레 임조성이 보인다. |
| 昔日長城戰, | 옛날 장성 싸움에서는 |
| 威言意氣高. | 모두들 의기가 높다고 하였는데, |
| 黃塵足今古, | 누런 먼지는 예나 지금이나 가득하고, |
| 白骨亂蓬蒿. | 백골은 잡초 속에 나뒹군다. |

변방의 가을은 중원 지역과 달라서 가을인데도 벌써부터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친다. 바람에 날리는 모래로 인해 해가 아직 지지 않았는데도 천지는 어둑어둑하다. 차가운 물, 칼바람, 모래 자욱한 하늘로써 변세지역의 혹독한 기후조건을 개괄하였다. 경련에서는 혹독한 기후 속에서 수행된 전쟁의 역사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미련에서는 지속적인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었음을 잡초 속에 나뒹구는 백골로 형상화하였다. 반전의식이 강하게 느껴지는 시다.

「塞下曲 四首」 제 3수

| | |
|--------|---------------------------|
| 奉詔甘泉宮, | 조칙을 감천궁에서 받들어 |
| 總征天下兵. | 천하의 병사를 모두 징집한다. |
| 朝廷備禮出, | 조정에서 의식을 갖추어 출병시키니 |
| 郡國豫郊迎. | 변방의 여러 郡州에서는 교외에 나와 맞이한다. |
| 紛紛幾萬人, | 분분히 전장에 나간 사람 몇 만 명인가 |
| 去者無全生. | 나간 사람 온전히 살아온 자가 없다네. |

172) 臨洮: 당 나라 때 吐蕃과 가까웠던 까닭에 변방의 요지가 되었다. 진 나라 대 축성된 장성의 서쪽이 이곳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구절에 ‘昔日長城戰’ 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臣願節宮廡,¹⁷³⁾ 신의 소망은 궁중의 말을 줄여서
分以賜邊城. 변방의 성에 나누어 주시기를

앞 네 구에서는 나라의 정책에 따라 전장으로 출정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다섯째·여섯째 구에서는 이렇게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현실을 꼬집고 있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이것이 모두 나라 살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조정의 잘못에 대한 불만 즉 조정의 말을 변방에 나누어주었다면 그렇게 많은 병사들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는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

「塞下曲 四首」 제 4수

邊頭何慘慘, 변방은 온통 슬픔에 잠겨
已葬霍將軍. 광장군을 장사 지냈다.
部曲皆相弔, 병사들은 모두 조문하고,
燕南代北聞. 그 소식은 연나라 남쪽 대나라 북쪽까지 전해졌다.
功勳多被黜, 공이 많아도 쫓겨나고
兵馬亦尋分. 군비는 계속 적어진다.
更遣黃龍戍, 또다시 황룡 땅 지키라고 파견하니
唯當哭塞雲. 오로지 변방 구름 아래서 통곡할 뿐이다.

유능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애도하고 있다. 광장군은 변세에서 공을 세운 장수를 개괄한다. 게다가 공이 있어도 쫓겨나는 현실, 설상가상으로 군비는 점점 적어져 고통을 가중시킨다. 더욱이 험한 오지로 파견되니 병사의 고뇌는 통곡으로 대변될 뿐이다. 변방에서 자행되는 부조리에 대한 폭로는

173) 『漢書昭帝紀』, “(元鳳二年)六月, 赦天下. 詔曰: ‘朕聞百姓未贍, 前年減漕三百萬石. 頗省乘輿馬及苑馬, 以補邊郡三補傳馬. …’”

그의 시가 중에 자주 보이는데 다음의 「塞上曲」도 불합리한 상벌을 고발함으로써 변방의 고질적인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塞上曲」

秋風夜渡河, 가을바람은 밤새 강을 건너
吹卻雁門桑. 안문관 뽕나무에 불어오는구나.
遙見胡地獵, 저 멀리 보인다 오랑캐 땅에서 사냥을 하다가,
輔馬宿嚴霜. 찬 서리 속에 안장 위에 앉아 잠자는 것이.
五道分兵去, 다섯 길로 병사를 나누어 출전했는데,
孤軍百戰場. 고립된 부대만 백번이나 싸우는 구나.
功多翻下獄, 공이 많아도 도리어 옥에 갇히니,
士卒但心傷. 병사들 마음만 아플 뿐이다.

이 시는 전반부에서는 변세의 경치와 서리 내리는 가운데 잠을 자야하는 고통스런 상황을 쓰고 있다. 후반부는 허술한 계획으로 싸움에 지게 되는 상황을 李陵의 「答蘇武書」에서 “다섯 장군이 길을 잃어 이릉 혼자 적을 만나 싸웠다(五將失道, 陵獨遇戰).” 라는 고사를 빌어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리가 만연하여 공을 세워도 도리어 옥에 갇히는 군부의 비리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하는 힘없는 병사들의 슬픔을 묘사하고 있다. 병사들의 고뇌는 이러한 비리로 인해 더욱 깊어지게 되며 싸울 의욕을 상실해버리게 된다. 신랄한 비판과 풍자의 뜻을 행간에 함축하여 곱씹을수록 여운이 풍부하다.

「從軍行 七首」 제 3수

關城榆葉早疏黃, 성 관문의 느릅나무 잎은 일찍 드문드문 누렇게 물
들고,

日暮雲沙古戰場。 해 저무는 구름 낀 사막은 옛 싸움터로다.
 表請回軍掩塵骨, 회군을 청하는 표를 올려 먼지 덮인 뼈를 거두리니,
 莫教兵士哭龍荒.¹⁷⁴⁾ 병사들을 용황에서 울게 하지 마소서.

가을이 일찍 찾아온 변방의 저녁, 모래 바람이 이는 옛 싸움터에서 먼지에 덮힌 채 거두지도 못한 병사들의 유골을 발견한다. 많은 병사들이 끝없이 죽어간 전쟁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병사들의 불쌍한 처지를 동정한 나머지 회군을 청하는 표를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전쟁의 치열함과 잔인함, 그로 인한 병사들의 고통, 당시의 불합리하고 소모적인 전쟁상 등이 함축되어 있다. 역시 반전사상이 강렬한 작품이라 하겠다.

「出塞 二首」 제 1수

秦時明月漢時關, 진나라 때의 밝은 달 한나라 때의 관문
 萬里長征人未還, 만리 밖 전장에 나간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구나.
 但使龍城飛將在, 다만 용성에 비장군만 있었다면
 不教胡馬度陰山. 오랑캐 군마가 음산을 넘지 못하게 했을 것을.

이 시는 唐代 칠언절구 중 압권이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¹⁷⁵⁾ 첫째 구의 ‘秦時明月漢時關’은 명사만을 나열하여 변세의 선명한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그 사이에 함축된 의미를 시인은 독자들에게 상상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秦과 漢은 시간적 심상이며, 달과 관문은 공간적 심상이다. 秦나라에서 漢나라 때까지 관산을 비추던 달은 시공을 초월하여 시인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즉 당나라의 관세도 비춘다. 그러나 전쟁터에 끌려간 병사만이 돌아오지 못한다. 秦·漢을 거론하여 마치 전쟁이 그 때부터 지속적으로

174) 龍荒: 변세의 북쪽 끝 지방. 용성은 흉노가 살았던 곳.

175) 이국승, 앞의책, 149쪽.: “李于鱗曰:唐人絕句, 當以 ‘秦時明月漢時關’ 爲壓卷.”

로 치러졌음을 느끼게 해준다. 셋째 · 넷째 구는 단순한 소망을 평이하게 서술한 듯하지만 이 속에는 비장군 같은 사람이 없음과 그러한 사람이 등용되지 못하는 부패한 군대나 정권에 대한 비판도 깔려 있다. 아울러 오랑캐의 침략과 전쟁으로 슬픈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출전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평화에 대한 갈망이 배어있어 시인의 憂國憂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은 王昌齡의 작품 중 弔邊詩를 살펴보기로 한다. 王昌齡의 弔邊詩는 弔邊의 원망을 읊은 시와 궁정생활을 하는 궁녀의 애원을 담은 시로 나눌 수 있다. 그중 弔邊의 원망을 읊은 시 중에서도 주로 변방의 전쟁터에 남편을 보내고는 못내 그리워하는 심정을 쓰고 있는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邊塞詩가 변세 지방을 소재로 해서 읊은 시라면 弔邊詩의 詩的 공간은 弔邊이며, 고통의 주체가 병사에서 병사의 연인으로 옮겨왔을 뿐이므로 邊塞詩의 범주에 넣고, 궁극적으로는 반전의 뜻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邊塞詩의 변주곡이라 하겠다.¹⁷⁶⁾

「閨怨」

閨中少婦不曾愁, 규중 새아씨 시름 모른 채,
 春日凝妝上翠樓. 봄날 단장하고 비취빛 누대에 올랐다가
 忽見陌頭楊柳色, 불현듯 길가 버들 푸른빛 보고는
 悔教夫婿覓封侯. 낭군님 벼슬길 찾아 원정 보낸 걸 후회하네.

이 시에 등장하는 弔邊의 새아씨는 근심 걱정이란 원래 없었다. 봄이 오자 그녀는 곱게 단장하고 누대에 올라 봄 경치를 감상한다. 그런데 길가에서 푸르러 가는 버드나무가 홀연히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건드린다. 길가

176) 俞炳禮, 앞의 논문.

의 버드나무는 버들가지 꺾어 남편과 이별하던 정경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와 청춘을 헛되이 저버리는 그녀의 신세에 대해 고독과 적막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하여 이 규방의 새아씨는 남편에게 출셋길 찾아 멀리 떠나보낸 것을 후회하게 된다. 이별의 슬픔을 모르던 상황에서 슬픔을 절감하게 되기까지의 갑작스런 심리변화의 계기는 ‘불현듯 길가 버들 푸른빛 보고서’이다.

古今の 意境 이론을 집대성한 王國維는 『人間詞乙稿序』에서 문학의 두 가지 기본 요소를 ‘意’와 ‘境’이라 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이 작품은 意가 境을 따라서 생긴 경우로 物境의 감화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意가 생기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촉발되어 나온 ‘意’는 일찍부터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줄곧 감지되지 못하다가 우연한 기회 즉 길가의 푸른 버들잎을 보는 순간 깨달은 것이다.

「春 怨」

音書杜絕白狼西,¹⁷⁷⁾ 편지는 백랑산 서쪽에서 끊기고

桃李無顏黃鳥啼. 복사꽃 오얏꽃은 생기가 없는데 피꼬리가 운다.

寒雁春深歸去盡, 겨울 기러기도 봄이 깊어지니 모두 돌아가고

出門腸斷草萋萋. 문을 나서니 애간장 끊기는데 풀만 무성하구나.

변새로 간 남편이 그리워 편지를 보내지만 답장이 없던 차에 봄이 오면 님의 편지가 오려나 기다렸지만 겨울에 날아왔던 기러기도 날아가고 꽃도 이미 떨어진 나무에서 피꼬리 울음소리를 들으니 애간장만 끊어진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성한 풀 뿐이다. 여기서 무성한 풀이 의미하는 것은 남편의 연락이 끊겨 마음속에서 시퍼렇게 일어나는 슬픔을 나타낸 것으로 情景

177) 白狼:山名. 熱河省 凌源縣 東南쪽에 있으며 白鹿山이라고도 함. 漢末 曹操가 烏丸을 정벌하고 이 산에 올랐다 한다.

交融의 전형적 詩句이다. 다음은 악부제명을 사용한 「烏栖曲」을 보자.

「烏栖曲」

白馬逐朱車, 백마는 붉은 수레를 끌고,
黃昏入狹邪. 황혼녘 기방으로 간다.
柳樹烏爭宿, 버드나무의 까마귀들 잘 곳을 다투는데,
爭枝未得飛上屋. 가지를 다투다 지붕 위로 올라갔네.
東房少婦媼從軍, 신흠방 새아씨 서방님을 원정 보내고는
每聽烏啼知夜分. 매일 까마귀울음 소리를 듣고서야 밤이 깊은 줄 안다.

이 시는 악부구체를 이용했을 뿐 아니라 악부의 형식을 그대로 이용한 악부시이다. 여기서 ‘朱車’란 부잣집의 화려한 수레이며 “柳樹”는 기방, ‘烏’는 부잣집 사람을 비유한 것으로 부잣집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 반해 어린 아낙은 전쟁터에 나간 남편 걱정애 밤새는 줄 모른다. 까마귀를 방탕한 부잣집 사람들에 비유하면서 검정색에 비유하여 밤을 의미하는 비유는 王昌齡 시가 갖고 있는 함축수법이다. 이 시에 대한 후인들의 평을 보면 胡應麟은 “소백의 오서곡은 운과 신이 있어, 태백을 따를 만하다.(少伯烏栖曲, 有韻有神, 可追蹤太白)”이라 하였고, 蔣一葵는 “이 시의 묘미는 뜻이 있는 듯 없는 듯한데 있다.(此詩妙在有意無意之間)”고 하였다. 또 鍾惺은 “말구에 言外之意의 묘미가 있다.(末句之妙在言外)”라 하였고, 陳繼儒는 “용표의 유려함은 천재적이며, …단편의 오서곡 같은 것은 격이 잘 다듬어져 있고 어휘가 웅혼하니 절로 盛唐 시인 중 높은 반열에 속한다.(龍標天才流麗, …短篇如烏栖曲, 格極鎔鍊, 詞極雄渾, 自是盛唐堂上人.)”¹⁷⁸⁾라고 하

178) 李國勝, 앞의 책, 107쪽.

었다. 다음은 애절한 심정을 읊고 있는 「靑樓怨」을 보자.

香幃風動花入樓, 향기로운 휘장 바람에 흔들리고 꽃잎 누대 안으로 들어
올 제
高調鳴箏緩夜愁. 높은 가락 밤시름을 녹이네.
腸斷關山不解說, 애 끊는 관산월 가락으로 마음 풀 길 없는데
依依殘月下簾鉤. 희미한 새벽달은 주렴 아래로 진다.

휘장 안으로 바람과 함께 꽃잎도 날아 들어온다. 전전반측하던 여인은 시름 달래려 한 밤중에 일어나 쟁을 타는데 이별한 뒤의 마음이라 나오는 곡조는 애달은 관산월 뿐이다.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지는 달을 쳐다보는 고독한 여인의 내면적 슬픔을 함축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王昌齡의 邊塞詩는 「變行路難」이나 「從軍行」 등과 같이 적극적이고 진취적 기상이 나타난 작품도 있지만 「出塞」와 같이 변세의 시름을 노래한 시편 중에는 人道主義 정신이 나타난 작품들도 있다. 또 변세 군대 내부의 비리와 부조리를 고발한 작품도 있는데 이는 盛唐 시기 지식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王昌齡의 閨怨詩는 邊塞詩의 제재인 從軍 대신 규방을 제재로 함으로써 女性과 전쟁, 閨閣과 邊塞를 연결시켰으며, 규중의 그리움과 병사의 고통을 대비시킴으로써 陰柔之美로 陽強之美를 조영해내었다.

2. 意象의 운용

1) 故事를 인용한 意象

意象은 중국 고전 시가의 중요한 범주에 속하는 용어로, 객관적인 사물과 주관적인 情志가 통일을 이루어 만들어낸 산물이다. 다시 말하면, 意象은

象에다 意를 기탁하여 감정을 감지할 수 있는 형상부호로 바꾸고 감정의 객관적인 대응물을 찾아내어 구체적인 형체를 갖춤으로써 작품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조하고 감상하는 데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詩義의 각도에서 말하면 意象은 情과 志를 표현하는 시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단어로, 시가 어법 중의 단어에 해당한다.

전형적인 의상은 개성을 개괄하여 보편성을 지니며 같은 유형의 유사한 경험을 환기시켜 정서적 공명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의상은 구체적으로 이리저리한 내용을 묘사하지 않아도 심태를 총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어떤 의상은 여러 세대 반복적인 운용과 가공을 통해 여러 가지 층차의 내포적 의미를 응집시켜 풍부한 연상과 역사적 반추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히 전고가 깃든 의상은 역사적 함의의 지속적인 승계가 더욱 두드러지므로 시인들이 즐겨 사용한다. 王昌齡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예를 보도록 한다.

「少年行 二首」 제 1수

.....

氣高輕赴難, 느림하게 나라위해 싸우러 나가는데,
誰顧燕山銘. 燕然山의 碑에 공이 새겨지길 누가 생각하랴.

‘燕山銘’이란 後漢 永元 元年 竇獻이 북쪽의 單于를 격파하고 燕然山에 올라 돌에 자신의 공을 세기고 돌아왔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오랑캐의 침략으로 사적인 공로를 따질 겨를 없이 변새로 달려가야 함을 표현하고 있다.

「從軍行 二首」 제 2수

.....

惟聞漢使還 한나라 사신 돌아간다는 말에
獨向刀環泣 도환을 보고 홀로 울었다.

이 시의 앞부분에서는 胡兵의 습격을 받아 싸우고 있는 전쟁 상황이 묘사되고 있고 箠대풀에 자신을 비유하여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부러워하고 있다. 공간 이동을 자유자재로 하는 기러기와 그렇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대비시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서글픈 신세를 드러내었다. 말구의 “環泣”에서 環은 還과 諧音을 이루는 雙關語이다. 흥노에 포로로 투항한 李陵에게 漢나라의 使臣이 말없이 바라보면서 칼고리만 여러 차례 만지작거리며 한나라로 돌아갈 것을 넌지시 암시했던 전고를 사용한 것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병사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胡笳曲」

.....

自有金笳引 본래 (이 성에는) 짓대의 곡을 잘 부는 사람이 있어
能沾出塞衣 능히 변방에 나온 병사들의 옷을 적실 수 있다네
聽臨關月苦 노래 들으면 관새(關塞)의 달도 울상을 짓고
清入海風微 맑은 소리 호수에 들어가면 바람도 미풍을 일으킨다네.
三奏高樓曉 날 썰 때까지 높은 누대에 올라 세 번 연주하니
胡人掩涕歸 오랑캐 병사들 모두 눈물 훔치며 고향으로 돌아가네.

이 시는 王昌齡이 并州에서 지은 것이다. 위의 시구는 晉의 장수 劉琨(270-317)이 并州刺史로 있을 때 오랑캐에 의해 겹겹이 포위되었는데 이 때 달밤에 망루에 올라 처량하게 호가를 불자 오랑캐들은 모두 고향 생각

에 눈물 흘리며 돌아갔다는 전고를 인용한 것이다.¹⁷⁹⁾

「代扶風主人答」

寸心亦未理,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
長鋏誰能彈. 내 어찌 풍훤처럼 긴 칼을 두드릴 수 있으리오.

.....

將軍降匈奴, 장군은 흉노에 투항을 했고
國使沒桑乾. 사신은 상건하에서 목숨을 잃었소.

위의 “내 어찌 풍훤처럼 긴 칼을 두드릴 수 있으리오.(長鋏誰能彈)”는馮驩이 ‘孟嘗君이 손님 대접을 후하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더니 그를 쳐다보지도 않자, 칼을 두드리며 노래를 했다는¹⁸⁰⁾ 고사를 인용하여 懷才不遇의 심경을 드러냄과 동시에知音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아래 시구 ‘將軍降匈奴’는 漢나라 貳師將軍 李廣利가 군대를 이끌고 大宛을 공격하여 양마 3천 필을 획득하였으나 후에 흉노를 공격하다 패해 항복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¹⁸¹⁾

「塞下曲 四首」 제 3수

臣願節宮廡¹⁸²⁾ 신의 소망은 궁중의 말을 줄여서
分以賜邊城 나누어 변방의 성에 하사하기를

179) 『世說新語·雅量』: “劉琨爲并州刺史, 胡騎圍之數重. 琨夕乘月登樓清嘯, 賊聞之淒然長嘆, 中夜奏胡笛, 賊皆流涕, 人有懷上之思. 向晚又嘆之, 賊竝棄圍奔走.”

180) 『史記·孟嘗君列傳』: “馮驩聞孟嘗君好客, 躡屣而見之. 孟嘗君置傳舍, 彈其劍而歌曰, ‘長鋏歸來乎食無魚’.”

181) 『史記·匈奴列傳』: “貳師將軍廣利降匈奴.”

182) 『漢書·昭帝紀』, “(元鳳二年)六月, 赦天下. 詔曰: ‘朕閔百姓未贍, 前年減漕三百萬石. 頗省乘輿馬及苑馬, 以補邊郡三輔傳馬...’”

이 구절은 시의 마지막 구절이다. 漢 昭帝가 백성들을 궁핍히 여겨 곡식을 나눠주고 말을 변방 지역으로 보내도록 하라는 조칙을 내렸던 고사를 인용하여 변방의 어려움과 조정에 대한 불만 즉 조정의 말을 변방에 나누어주었다면 그렇게 많은 병사들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塞上曲」

.....

五道分兵去, 다섯 길로 병사를 나누어 출전했는데,
 孤軍百戰場. 한 부대만 백번이나 싸우는 구나.
 功多翻下獄, 공이 많아도 도리어 옥에 갇히니,
 士卒但心傷. 병사들 마음만 아플 뿐이다.

이 시의 앞부분은 주로 변세의 경치와 병사들의 고통스런 상황을 묘사하였다. 후반부에서 예시한 부분은 억울한 처지를 부각시켜 조정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였다. 漢 무제가 李陵에게 군사 5천을 내려 흉노족을 정벌하러 갔을 때, 다섯 장군이 길을 잃은 상태에서 이릉 홀로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¹⁸³⁾ 고사를 빌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으나 조정에서는 승패로 만상벌의 기준으로 삼아 억울한 처분을 받았던 당시의 第一, 第二의 이릉 같은 장군의 억울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전고는 王昌齡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학식이나 자랑하고 재주만 뽐내며 문자의 유희만을 일삼으려던 의도는 아니었다. 전고성 의상의 특징을 살려 ‘촌철살인’의 기법을 사용, 시적 의미를 강화시켜 무궁무진한

183) 『文選李少卿答蘇武書』: “昔先帝授陵步卒五千, 出征絕域, 五將失道, 陵獨遇戰.”

여운을 남기려는 수법이였다.

2) 意象의 나열

王昌齡의 작품 가운데는 술어의 역할을 하는 동사나 형용사 등이 없이 의상만을 즉 명사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邊塞詩 중에서는 七絶의 壓卷이라고 평가받는 「出塞 二首」 제 1수와 「從軍行 七首」 제 1수가 그러한 경우이다.

「出塞 二首」 제 1수

秦時明月漢時關, 진나라 때의 밝은 달 한나라 때의 관문
萬里長征人未還. 만리 밖 전장에 나간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구나.
但使龍城飛將在, 하지만 용성에 비장군이 있다면
不教胡馬度陰山. 오랑캐 군마가 음산을 넘지 못하게 했을 것을.

「從軍行 七首」 제 1수

烽火城西百尺樓, 봉화대 서쪽 백 척의 누각,
黃昏獨坐海風秋. 황혼에 홀로 오르니 청해에서 가을바람 불어온다.
更吹羌笛關山月, 계다가 오랑캐 피리는 관산월을 부니,
無那金閨萬里愁. 어찌할까 만 리 밖 규방을 향한 시름을.

意象과 意象을 연결시켜 주는 형식상의 관련 語詞가 결여된 채 意象만 늘어놓아 의상간의 명확한 논리적 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상은 내재된 감정의 논리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합하여 變換할 수 있으므로 의상간의 연계가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함의는 분명히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지는 의상과 의상을 연결시키는 외재적 연결매체가 결핍되어 있어 오히려 일정한 탄력성을 갖게 된다. 예컨대 위의

시 ‘秦時明月漢時關’이라는 명사구 자체만의 의미는 ‘진 나라 때의 명월과 한나라 때의 관문’으로 선명하지만 연결고리가 없는 관계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허용되며 독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따라서 吳戰壘는 『唐詩學의 理解』에서 “의상의 조합에서 개개의 의상은 마치 진주알이 흩어져 있는 것과 같으며 이 흩어진 진주알을 꿰는 역할은 최종적으로 독자의 몫”¹⁸⁴⁾이라고 하였다. 또 이러한 경우 어떤 각도에서 의상의 조합을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미가 난해해져 모호성의 증가를 불러오게 되었다. 이 시가 지어진 시기는 唐나라 때이고 秦·漢 시대와 더불어 세 개의 시간대가 얽혀 있어 단순히 시의 배경으로 보기에선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한 까닭에 역대에 걸쳐 많은 견해가 나왔는데 몇 가지만 보면 다음과 같다.

楊慎: “이 詩는 神品에 들어갈 만하다. ‘秦時明月’ 녀 자는 신묘한 표현이라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侍御였던 李中溪가 나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내가 답하길, 揚子雲의 賦에 ‘攬槍은 성문이고 명월은 봉화대이다’라고 했는데, 이 시에서 그런 글자를 차용했지만 담긴 의미가 심오하다. 대개 秦나라 때에는 원정을 가더라도 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단지 달 밝은 곳에 머물 뿐이어서 그래도 行役에 때를 넘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漢나라 때에는 관문이 설치되어 지키니 원정 간 이들은 돌아올 기약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의지할 바는 그저 李廣 같은 명장 밖에 없다는 뜻이다.”¹⁸⁵⁾

唐汝詢: “달을 秦에 연결시키고 關을 漢에 연결시킨 것은 호문으로 이해

184) 吳戰壘 著 俞炳禮 譯, 『唐詩學의 理解』, 태학사, 2003., 62-63쪽.

185) 明, 楊慎, 『升庵詩話』: “秦時明月四字, 橫空盤硬語, 人所難解. 李中溪侍御嘗問余, 余曰, 揚子雲賦: ‘攬槍為闕, 明月為堠’, 此詩借用其字, 而用意深矣. 蓋言秦時雖遠征, 而未設關, 但在明月之地, 猶有行役不逾時之意. 漢則設關而戍守之, 徵人無有還期矣, 所賴飛將御邊而已.”

가 같 듯 말 듯하게 말한 것이 아니다.” 186)

沈德潛: “변방을 막기 위해 성을 쌓는 것은 秦漢代에 시작되었는데 明月을 秦에 연결시키고 關을 漢에 연결시킨 것은 互文이다. 병사들이 노력을 다했음에도 공을 이루지 못한 것은 그 장군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비장군을 생각하는 것이다.” 187)

王文濡: “진의 달이 한의 관문을 비춘다는 것은 군사들이 오랜 동안 수 자리에서 돌아갈 기약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장군이 있었다면 오랑캐 말이 감히 음산을 넘겠는가?’ 라는 말은 名將이란 백성이나 국가에 있어 이와 같은 것이다.” 188)

劉逸生: “首句에서 이곳은 漢代에는 關塞이고 明月은 오히려 秦나라 때의 것이라는 말이다. 시대는 비록 변했지만 형세는 또한 종전보다 못하니, 지금은 옛날과 같지 않다는 탄식이 있는 것이다. 秦을 말하고 漢을 말함은 文義가 서로 번갈아 들며 전적으로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189)

黃牧邨: “‘秦時明月漢時關’ 일곱 자는 하늘이 만들고 땅이 설정한 것이라 訓話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구절로 뜻이 다하며, 아래에서 바로 그것을 밝히고 있다. 大意는 秦代에 長城을 쌓고 漢代에 또한 지키는데 關

186) 明, 唐汝詢 『唐詩歸』: “以月屬秦, 以關屬漢者, 交互其文而非可解不可解之謂也.”

187) 沈德潛, 『唐詩別裁』: “備胡築城, 起于秦漢. 明月屬秦, 關屬漢, 互文也. 師勞力竭而功不成, 由將非其人之故, 故思飛將軍云.”

188) 李國勝, 앞의 책, 149쪽: “秦時之月, 照漢時之關, 軍士久戍, 不得瓜代. 使飛將而在, 彼胡馬豈敢度陰山乎? 名將之關於人家國如此.”

189) 劉逸生, 『唐詩小札』: “首句是說此地 在漢是關塞, 明月猶是秦時. 時代雖變, 形勢亦非從前可比, 有今不如古之嘆. 言秦言漢, 文義錯舉互見, 并非專屬.”

山明月이 이와 함께 슬프며, 만 리로 원정 간 이들은 끝내 돌아올 날이 없다는 것이다.” 190)

楊慎은 이 句가 난해한 바가 있다고 하였고 唐汝詢은 互文이라 하였다. 沈德潛과 劉逸生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였으며 특히 劉逸生은 시대가 흘러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탄식이 들어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한편 黃牧邨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여 天衣無縫이므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끊이지 않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것은 意象만 나열함으로써 상상력을 유도하고 함축성이 심화되긴 했지만 반면에 모호성 또한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施補華는 이 시에 대해 “백 번 읽어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191)고 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작품 「從軍行 七首」 제 1수의 “봉화대 서쪽 백 척의 누각(烽火城西百尺樓)” 도 명사구만 나열한 경우지만 다음 구와 바로 연결되면서 모호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의상간의 조합은 因果·承繼·漸進 등의 논리적 연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법은 고도로 응련되고 張力이 넘치는 특수한 구조를 형성하므로 詩의 함의를 무한히 넓히고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3) 즐겨 사용한 意象

意象은 意境 형성의 필연적 요소이고, 192) 意象群이 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 意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意象이 주관적 情志와 객관적 物象의 개별적 융합이라 한다면 意境은 이 두 가지의 총체적 융합이라 할 수 있

190) 清, 黃牧邨, 『唐詩箋注』卷8: “‘秦時明月漢時關’, 七字天造地設, 訓詁不得, 只此一句, 意已盡, 下句乃申明之. 大意謂秦築長城, 漢亦戍守, 關山明月, 同此悲涼; 萬里征人, 終無還日.”

191) 清, 施補華, 『峴備說詩』: “‘秦詩明月’一首, …… , 百讀不厭也.”

192) 吳戰壘 著俞炳禮 譯, 앞의 책, 62-63쪽.

다. 더욱이 意境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王昌齡¹⁹³⁾인만큼 본 장에서는 그가 邊塞詩 창작에 어떠한 의상을 사용하여 意境을 형성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며, 주로 앞 절에서 텍스트로 삼았던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겠다. 아래 표는 가장 많이 사용된 의상을 순서대로 분류한 것이다.

| 주제 \ 의상 | 馬 | 風 | 雲 | 山 | 城 | 草 | 月 | 夜 |
|-----------|----|----|---|----|----|---|---|---|
| 영웅적 기개(7) | 3 | 2 | 2 | | 3 | | 2 | 2 |
| 종군의 고뇌(7) | 3 | 5 | 1 | 4 | 2 | 2 | 3 | 1 |
| 반전사상(15) | 8 | 5 | 3 | 7 | 5 | 5 | 4 | 4 |
| 합계 | 14 | 12 | 6 | 11 | 10 | 7 | 9 | 7 |

위의 표에서 주제 옆의 괄호 안의 숫자는 작품 수이다. 의상의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馬·風·山·城·月·草·夜·雲이다. 이 의상 가운데 山·城과 風·雲, 月, 말(馬)·밤(夜)에 대해 살펴보겠다.

① 山과 城

山과 城은 王昌齡이 즐겨 사용한 地理 意象인데, 山이라 할지라도 보통 명사로 쓰였을 때와 고유명사로 쓰였을 때의 이미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보통 명사로 쓰인 山의 이미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從軍行 七首」 제 7수

玉門山嶂幾千重, 옥문의 산봉우리는 몇 천 겹인가

山北山南總是烽. 산 북쪽 산 남쪽 온통 봉화대뿐이다.

193) 王昌齡은 『詩格』에서 “詩에는 세 가지의 경계가 있는데 즉 物境, 情境, 意境이라 했다.

人依遠戍須看火, 병사들은 먼 망루에 의지해 봉화불을 보지만
馬踏深山不見蹤. 말이 깊은 산을 지나가니 자취를 볼 수 없구나.

위의 시에서 山의 이미지는 장애물, 단절, 고독을 나타낸다. 시인은 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변새에 갇힌 병사들의 숨 막히는 긴장감과 고독감, 불안감을 함축적으로 드러내어 언외의 뜻을 심화시켰다. 山이 고유명사로 쓰였을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誰顧燕山銘: 燕然山의 碑에 공이 새겨지길 누가 생각하랴.

「少年行 二首」 제 1수

單于下陰山: 선우가 음산에서 내려오니 「變行路難」

青海長云暗雪山: 청해의 기연산은 자욱한 구름에 덮혀 어두운데,

「從軍行 七首」 제 4수

위에서 예시한 시구 이외에도 燕山, 陰山, 雪山이 쓰인 시는 많다.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다. 고유명사로서의 山은 주로 燕山, 陰山, 雪山 등 변방 異民族 지역에 있는 山을 지칭한다. 王昌齡은 이를 이용하여 주로 異民族의 침략을 나타내거나 異民族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말겠다는 병사들의 각오를 함축적으로 드러내었다. 다음은 城의 意象을 사용한 시구들이다.

城頭鐵鼓聲猶振: 성 앞의 북소리 여전히 천하를 울리고,

「出塞 二首」 제 2수

孤城遙望玉門關: 외로운 성에서 아득히 먼 옥문관을 바라본다.

「從軍行 七首」 제 4수

碎葉城西秋月團: 碎葉城 서쪽에 가을달이 둥글다. 「從軍行 七首」 제 6수

烽火城西百尺樓: 봉화불은 성 서쪽 백 척의 누각에서 타오르고,

「從軍行 七首」 제 1수

高高秋月照長城: 높이높은 가을 달은 장성을 비춘다.

「從軍行 七首」 제 2수

去爲龍城戰: 용성 싸움터에 나가보니 「從軍行 二首」 제 2수

城南虜已合: 성의 남쪽에 오랑캐 병사 이미 모였다. 「胡笳曲」

雖有屠城功: 비록 적지의 성을 쳐부수는 공도 있었으나

「宿灞上寄侍御璵弟」

昔日長城戰: 옛날 장성 싸움에서는 「塞下曲 四首」 제 2수

分以賜邊城: 변방의 성에 나누어 주시기를 「塞下曲 四首」 제 3수

城은 변방의 요새지역에 설치하여 적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곳이다. 城을 쌓는 목적이 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던 만큼, 城의 원초적 이미지는 전쟁이다. 하지만 城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 그것이 주는 이미지는 다소 다르다. 예컨대 孤城은 접전이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의 이미지가 아니라 휴전 상태에서 느끼는 병사의 긴장감과 고독감을 드러낸다.

② 바람(風)과 구름(雲)

日氣에 대한 의상으로는 風·雲을 사용하여 맑은 날씨보다는 사막의 바람과 짙은 구름을 사용함으로써 변세의 풍광을 더욱 삭막하게 표현하였다. 風·雲을 사용한 시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青海長雲暗雪山: 청해의 기연산은 자욱한 구름에 덮혀 어두운데,

「從軍行 七首」 제 4수

大漠風塵日色昏: 사막의 먼지바람에 햇빛도 어둡고

「從軍行 七首」 제 5수

風動馬嘶合: 바람부니 말 울음소리와 어우러지네. 「變行路難」

黃昏獨坐海風秋: 황혼에 홀로 오르니 청해에서 가을바람 불어온다.

「從軍行 七首」 제 1수

長風金鼓動: 세찬 바람에 징과 북 흔들리고

萬里雲沙漲: 만리에 구름과 모래 가득 차 있고 「從軍行 二首」 제 2수

清入海風微: 맑은 소리는 호수 바람에 실려와 부드럽네 「胡笳曲」

朔風軫歸慮: 삭풍에 돌아가고픈 마음만 생기는 구나.

百戰苦風塵: 술한 전쟁을 치르느라 바람먼지 속에서 고생했고

「從軍行 二首」 제 1수

風悲日彩寒: 차가운 햇살 아래 바람은 슬피운다. 「代扶風主人答」

風沙颯颯青塚頭: 모래 바람은 왕소군의 푸른 무덤 머리에 서걱거린다

「箜篌引」

水寒風似刀: 물은 차고 바람은 칼날 같다. 「塞下曲 四首」 제 2수

唯當哭塞雲: 오로지 변방 구름 아래서 통곡할 뿐이다.

「塞下曲 四首」 제 4수

秋風夜渡河: 가을바람은 밤새 강을 건너 「塞上曲」

日暮雲沙古戰場: 저물녘 구름 낀 사막은 옛 싸움터로다.

「從軍行 七首」 제 3수

영웅적 기개를 주제로 한 「從軍行 七首」 제 4수 · 제 5수와 「變行路難」에서는 자욱한 구름(長雲), 먼지바람(風塵), 바람불다(風動) 등 전운이 감도는 전장을 묘사하여 긴장감이 팽배한 전장의 분위기와 병사들의

비장한 심리상태를, 그 외에 종군의 고통을 묘사하여 반전사상을 드러낸 작품에서는 주로 가을바람(秋風) · 겨울바람(朔風) · 세찬 바람(長風) · 슬피우는 바람(風悲) · 먼지바람(風沙) · 칼바람(風似刀)과 같은 이미지를 써서 적과 싸우기도 전에 먼저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하는 병사들의 이중고를 함축적으로 묘사하였다.

③ 달(月)

意象 중 ‘月’은 王昌齡 邊塞詩에서 빈번하게 출현한 의미 있는 意象으로 오랫동안 반복적인 운용과 현실생활에 대한 깊은 체득을 통해 의미가 누적되어 함축된 의미와 상징은 무궁하다. 달에 의상에 있어서 王昌齡은 총 작품 183首 중 70여首에나 ‘月’을 사용했¹⁹⁴⁾ 정도로 즐겨 사용된 의상이다. 역시 여기서는 邊塞詩만을 보기로 한다. 「從軍行 七首」 제 2수에 운용된 ‘月’의 경우를 보자.

琵琶起舞換新聲, 비파 가락에 일어나 춤추며 새 노래로 바꾸어 불러도
 總是關山舊別情. 결국 관산에서 지난날 이별하던 정이구나.
 撩亂邊愁聽不盡, 심란한 마음, 슬픔에 노랫가락 차마 들을 수 없는데,
 高高秋月照長城. 높디높은 가을 달은 장성을 비춘다.

‘明月’이나 ‘關’은 변새 악부시에 자주 보이는 단어이다. 시의 앞세 구는 서정으로 시작하여 서경으로 끝맺고 있다. 술한 사연을 간직한 ‘秋月’은 시름만큼이나 높다. ‘聽不盡’ 세 글자를 사용하여 시름 때문에 더 이상 노랫가락을 들을 수 없음을 묘사하였고, 마지막 구에서 景을 情과 결합시켜 정점에 달한 변새의 모든 시름을 秋月 속에 흡수시켜

194) 索祖翠, 「論王昌齡詩中的月亮意象」, 『欽州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제 19권 제 2기, 2004. 6.

버렸다. 이 시에서 月은 변방의 시름을 함축하고 청각적인 의상을 시각적으로 전환하면서 한 폭의 여운이 풍부한 정물화를 연상케 하였다. 다음은 「靑樓怨」의 ‘月’을 보자.

香幃風動花入樓, 향기로운 휘장 바람에 흔들리고 꽃잎 누대 안으로 들어
을 제

高調鳴箏緩夜愁. 아쟁의 높은 가락 밤시름을 녹이려한다.

腸斷關山不解說, 애절한 관산월 가락으로도 마음 풀 길 없는데

依依殘月下簾鉤. 희미한 새벽달은 주렴 아래로 진다.

위의 시는 규방 새 아가씨의 원망을 통해 변세의 전쟁이 가져온 비극을 읊었다. “바람”, “꽃잎”, “슬픈 노랫가락”, “밤”, “새벽달”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깊은 밤을 지새우며 변방에 있는 님을 그리워하는 규방 새 아가씨의 슬픔을 형상화했다. 여기서 殘月은 밤새도록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 쓸쓸함, 처량함을 상징한 것이다. 다음은 「出塞 二首」 제 1수에 운용된 ‘月’을 보기로 하자.

秦時明月漢時關, 진나라 때의 밝은 달 한나라 때의 관문
萬里長征人未還, 만리 밖 전장에 나간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구나.
但使龍城飛將在, 하지만 용성에 비장군이 있다면
不教胡馬度陰山. 오랑캐 군마가 음산을 넘지 못하게 했을 것을.

이 작품에서는 ‘明月’과 ‘關’ 두 단어 앞에 秦과 漢이라는 시간의 한정사를 붙여 천 년 전에서부터 그리고 만 리 밖에서 웅혼하고 아득한 독특한 意境을 형성하였다. 말없고 무정한 달빛 아래서 시인은 시공을 초

월하여 만감이 교차한 것이다. 이 감정은 달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시인은 다시 그러한 감정을 달에 기탁하였다. 秦代에 축조한 장성은 오랑캐와 벌였던 전쟁의 유구한 역사를 연상시키고, 秦·漢 이래 세세대대로 비친 강산을 비취온 明月은 비극의 증인이며, 수많은 정인들의 폐부에 스미는 슬픔이 내포되어 있다.

물론 위와 같은 통계가 주제별로 작품 수가 다르고 시형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같은 意象이라 하더라도 작품의 주제에 따라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다르기도 하다.

‘月’의 경우 영웅적 기개를 드러내는 작품인 「從軍行七首·其六」에서는 ‘가을달이 둥글다(秋月圓)’라고 표현함으로써 가볍고 밝아 푸근함마저 느끼게 한다. 그러나 「從軍行七首·其二」의 ‘높디높은 가을 달은 장성을 비춘다.(高高秋月照長城)’에서의 달은 변방의 모든 시름을 머금고 있는 슬픈 달이다. 「箜篌引」의 ‘그 때 달은 어둡고 원숭이는 짹 짹 울어대네(其時月黑猿啾啾)’의 달은 음산하고도 슬프며 불행함이고, 규원시인 「靑樓怨」의 ‘새벽달(殘月)’도 전달되는 의미는 처량함·안타까움·그리움·쓸쓸함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말(馬)과 밤(夜)

말(馬)은 邊塞詩에서 자주 사용되는 동물 이미지이며, 주로 전쟁을 수행하는 중요한 兵器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는 邊塞詩를 제외한 다른 시가에서 말 관상을 잘 보았던 백락(伯樂)의 고사를 이용하여, 주로 懷才不遇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과는 사뭇 다르다.

한편 王昌齡의 邊塞詩에는 시간 의상을 나타내는 夜가 자주 사용된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국경의 戰線은 낮보다는 밤에 긴장감이 더 감돌고,

병사들은 경계 태세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從軍의 고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전선의 밤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말(馬)과 밤(夜)의 의상을 사용한 시구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風動馬嘶合: 바람부니 말 울음소리와 어우러지네. 「變行路難」
白馬如流星: 백마는 유성 같이 내달린다. 「少年行 二首」 제 1수
騮馬新跨白玉鞍: 자색말에 백옥 안장 새로 엮어 올라타고 싸웠는데,
「出塞 二首」 제 2수
秋草馬蹄輕: 가을 풀에 스치는 말발굽 소리 가볍고
「從軍行 二首」 제 2수
飛馬宿何處: 비마는 어느 곳에서 머무르는가? 「從軍行 二首」 제 1수
老馬思伏櫪: 늙은 말은 마구에 엮드려 쉬고 싶은 생각 뿐
「代扶風主人答」
黃旗一點兵馬收: 천자의 깃발 아래 병마를 거두면 「箜篌引」
輔馬宿嚴霜: 찬 서리 속에 안장 위에 앉아 잠자는 것이. 「塞上曲」
不教胡馬度陰山: 오랑캐 군마가 음산을 넘지 못하게 했을 것을.
「出塞 二首」 제 1수
前軍夜戰洮河北: 앞선 군대가 洮河 북쪽에서 밤새 싸웠는데,
「從軍行 七首」 제 5수
辭君一夜取樓蘭: 임금님께 하직하고 오늘 밤 안으로 樓蘭을 취하리라.
「從軍行 七首」 제 6수
一夜幾重圍: 하룻밤에 성을 몇 겹으로 에워쌓네. 「胡笳曲」
盧溪郡南夜泊舟: 노계군 남쪽에 밤배를 대니
夜聞兩岸羌戎謳: 밤에 들려오는 강가의 오랑캐 노랫소리 「箜篌引」
秋風夜渡河: 가을바람은 밤새 강을 건너 「塞上曲」

이상에서 예시한 말(馬)의 이미지와 관련된 시구 중, 유일하게 시인의 지치고 고된 삶을 형상화한 “老馬思伏櫪” 이외에는 모두가 치열한 전쟁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王昌齡은 위에서 거론한 意象群을 사용하여 때로는 황량한 전장에 감도는 비장한 분위기를, 때로는 비장하면서도 호탕한 기세를 잃지 않고 忠君愛國하고자 하는 병사들의 장쾌한 뜻을, 때로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면서 반전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3. 기타 邊塞詩人과의 비교

盛唐 邊塞詩에 있어서 청신한 시어 · 웅혼한 기상 · 비장한 정조는 사실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상호보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그 중 특히 ‘悲壯’은 ‘悲’와 ‘壯’의 요소가 결합된 것인데, 여기서는 이 悲壯한 정조가 王昌齡을 비롯한 기타 邊塞詩인들에게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풍격이 비슷한 高適·岑參의 비장미와 王昌齡·高適·岑參이 즐겨 사용한 詩型에 대해 살펴보고, 同時代 시인으로 교유관계에 있었던 王維와 李頎의 작품에 보이는 悲壯한 정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王昌齡은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직접 중군한 경력은 없지만 建功立業의 의지에서 변방으로 향했으며, 초기에는 唐 玄宗의 변방확장정책에 찬동하여 「從軍行」 · 「變行路難」 · 「從軍行七首·其四」 · 「從軍行七首·其五」 · 「出塞 二首」 제 2수 등의 작품에서처럼 주로 전쟁의 승리와 병사들의 용맹스런 모습을 열정적으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이들 작품에서는 호방하고 영웅적인 기개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영웅적인 기개를 묘사했다고 해서 결코 전쟁의 艱苦를 간과했던 것은 아니었다. 변방 병사들의 늪름한

기백 裏面에는 대부분 변방 생활의 艱苦가 內含되어 있다. 특히 「從軍行 七首」 제 4수는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첫째·둘째 句의 “청해의 긴 구름이 운산을 어둡게 하는데, 외로운 성에서 멀리 옥문관을 바라본다.(青海長雲暗雪山, 孤城遙望玉門關.)”는 황량한 변세에 대한 大局的인 묘사 속에는 변방생활의 모든 고초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변방수호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책임감·자긍심을 가질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넷째 두 구의 “누런 모래 날리는 사막에서 수백 번 싸워 쇠갑옷이 뚫어지도록 싸웠노라, 누란을 쳐부수지 않고는 끝내 돌아가지 않으리.(黃沙百戰穿金甲, 不破樓蘭終不還.)”는 戰時의 상황을 잘 모르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다. 작자는 이러한 의도를 정련된 시어로 표현하여 웅혼한 가운데 비장함을 함축하여 숭고함마저 느끼게 한다. 또 「出塞 二首」 제 2수 마지막 두 구의 “성 앞의 쇠북소리 여전히 울리고, 匣 속의 칼에 묻은 피 아직 마르지 않았다(城頭鐵鼓聲猶振, 匣里金刀血未乾.)”는 피가 묻은 번쩍이는 칼이 마치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전쟁의 격렬함과 강건한 병사들의 의지에서 비장함을 넘어서 숭고함마저 느껴진다. 또 그가 天寶 6년(747) 평적지인 龍標로 가는 도중 潯陽(지금의 江西省 九江市)에서 지은 「九江口作」에서는 愛國忠君의 비장함을 느낄 수 있다. “어떻게 군주의 은덕을 보답하리오, 선우의 머리를 베어오리(何當報君恩, 卻系單于頭.)”¹⁹⁵⁾는 비록 평적지로 향하는 몸이지만 밝은 시대가 오면 다시 쓰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임금에게 보은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치 출전하는 장병처럼 의기가 드높아 웅혼한 가운데 비장함을 느끼게 한다. 또 王昌齡의 ‘悲壯’한 정조의 표출은 전쟁의 잔혹함과 잘못된 변방정책에 분개하는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다. 王昌齡과 거의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시인으로서 공통된 관심사를 지니고 邊塞詩를 많이 창작했던 高

195) 王昌齡, 「九江口作」

適과 岑參, 王維, 李頎 등 기타 邊塞詩인들은 어떠한 풍격을 드러내고 있으며 각 작가 간에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1) 高適 · 岑參

흔히 高適(702?-765)과 岑參(715-770)을 高岑이라고 하지만 高適은 岑參보다 십여 살 연상이며 盛唐시인 중에서 가장 출세하였던 사람이다. 출세의 꿈을 변재를 통해서 이루었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高適은 귀족 관료 가정 출신이었다.¹⁹⁶⁾ 高適의 家世에 대해선 周勛初의 『高適年譜』에 의하면 高適의 증조부 高佑는 隋代에 左散騎常侍를 지냈고 唐代에 들어서는 宥州別駕를 지냈다. 祖父는 高宗 때의 명장으로 右道持節大總管·安東都護 등의 벼슬을 지낸 후에 平原郡 開國公에 봉해졌고 죽은 후에는 左衛大將軍에 追贈되었고 부친 高崇文은 韶州長史를 지냈다. 그러나 어려서 부친이 세상을 뜨자 경제적으로 궁핍했으며, 사회적으로 냉대를 감수하면서 울분을 가슴속에 지니고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거리낌이 없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항상 학문에 매진하면서 功名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 高適은 부친이 세상을 뜬 후 북쪽으로 梁宋(지금의 河南 商丘)으로 돌아와 유랑하면서 구걸로 연명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입신공명의 염원을 품고 학문에 매진했으나 기회는 뜻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20세가 되던 해 高適은 文武를 갈고 닦은 후, 長安으로 가면 자신의 포부를 펼칠 기회가 주어지리라는 생각으로 長安으로 향했지만 그의 열망은 近臣들만이 총애를 받는 현실로 인해, 한 순간에 실망하고 말았다. 가난 때문에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또 다시 타향인 梁宋을 유랑해야 했다.

양송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오랜 기간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학문에

196) 高適과 岑參의 생애는 최경진의 논문 「高適岑參의 邊塞詩 비교연구」를 참조하였음.

계속 정진했다. 그러던 중 開元 18년(730), 唐과 契丹의 전쟁이 발발한 이듬해 高適은 변방 薊門으로 향했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 없이 開元 21년(733) 梁宋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開元 23년(735) 高適은 과거에 응시했지만 낙방하고 이듬해 宋州로 돌아와 생활하였다. 天寶 3년(744) 그는 單父에서 李白, 杜甫와 만나 梁宋을 유람하면서 그들은 조정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백성들의 현실과 前途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따라서 그 후의 작품, 예를 들면 「東平路中遇大水」·「苦雨寄房四昆季」·「自淇沙黃河十三首」 등은 백성들의 고통스런 생활을 비교적 전면적이고도 진실하게 반영하고 깊은 동정을 표하고 있어 杜甫 사회시의 선구라 할 수 있으며, 杜甫와 격조가 흡사한 면이 있다는 평을 받는다.

天寶 8년(749), 高適은 長安으로 가서 睢陽 태수인 張九臯의 천거로 ‘有道科’에 급제했으나 李林甫의 전횡으로 고작 封丘縣尉에 임명되어 실망이 컸으나 별 방법이 없었다. 변방에 부임하여 직접 목도한 변방의 현실에 대한 실망과 安祿山의 행동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급기야는 天寶 11년(752), 벼슬을 그만두고 다시 長安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長安으로 돌아온 그는 杜甫·岑參·儲光羲(707-760?)·薛據(?-?) 등과 만나 자신이 국가를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다.

天寶 12년(753)은 哥舒翰의 막부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일생의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 이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입신할 수 있는 계기였으며, 安祿山이 范陽에서 난을 일으킨 天寶 14년(755) 11월까지 계속되었다.

岑參의 家世에 대해 “황제가 六代 바뀌는 동안 우리 가문은 세 번 재상을 지냈다. 江陵公은 中書丞이 되어 太宗을 보필했으며, 鄧國公은 文昌右相이 되어 高宗을 보필했다. 그리고 汝南公은 侍中이 되어 睿宗을 보필했다” 197)라는 구절은 岑參이 29세에 자신의 家世와 當時까지의 행적에 대

해 서술한 내용 중 일부이다. 위에서 江陵公은 증조부인 岑文本이며 尙狐德찬(583-666)과 『北周書』를 편찬하면서 史論은 그가 거의 집필했을 정도로 문필에 능했다. 鄧國公은 백조부인 岑長倩으로 그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岑文本에 의해 양육되었다. 高宗 永淳 연간(682-683)에 兵部侍郎 등의 관직을 역임했으며 武后 아래에서는 文昌右相을 지냈다. 天授 2년(691)에 武承嗣를 태자로 옹립하는 일에 반대하여 武則天의 미움을 사 피살당했다. 汝南公은 백부인 岑羲로, 睿宗 景雲 연간(710-711)에 戶部尙書를 거쳐 侍中이 되었다. 岑羲 역시 太平公主와 李隆基(뒤의 玄宗)의 정권 쟁탈에 끼어 太平公主를 옹호하다가 피살당했다. 그의 부친인 岑植은 弱冠에 明經科에 급제하여 同州參軍·蒲州司戶參軍 등을 거쳐 仙州와 晉州의 刺史를 지냈으나 불행히도 岑參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다. 이렇듯이 그는 몰락한 관료 가정 출신으로 부친마저 일찍 여의게 된 것이 그의 일생에 영향을 미쳤다. 즉 당시의 실의를 떨쳐버리고 옛날 화려했던 자기 가문의 영화를 되살리려는 염원으로 학문에 매진하였다.

岑參의 생애를 出塞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開元 3년(715)에 河南 仙州(지금의 河南 許昌 부근)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의 부친은 그곳의 刺史로 재임하고 있었다. 開元 8년(720) 부친이 仙州刺史에서 晉州刺史로 부임하자 그 역시 晉州로 가서 생활하였다. 開元 12년(724) 전후에 부친이 세상을 뜨고 나서도 開元 17년(729)에 嵩陽(지금의 河南 登封縣)에 은거할 때까지 계속 그곳에서 살았고, 開元 20년(732)에 다시 穎陽으로 옮겨 5년을 살았다. 그곳에서 經書와 史書를 두루 섭렵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학문에 있어 중요한 기초를 닦았다. 이 시기는 자신의 애국과 공명에 대한 열망을 싹트게 했던 시기이며, 이것들에 대한 준비를 착수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는 開元 22년(734)에 長安으로 와서 조정에 글을 바치기도 하고 10여

197) 「感舊賦序」참고.

년 동안 長安·洛陽 사이를 여러 차례 오가며 王昌齡(698-757) 등과도 폭넓게 교우 관계를 맺으며 학문과 견문을 넓혔다. 이와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30이 다 되어가도록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실의와 위대한 남아가 되고자 하는 염원을 가슴 가득 지녔다. 이러한 염원을 지니고 노력을 거듭하여 그는 天寶 3년(744) 進士試에 급제하였다. 벼슬길로 들어선 이후 자신의 염원을 성취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여러 관직만을 전전하던 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志氣를 펼칠 기회가 왔다. 두 차례의 종군이 바로 그것인데 처음은 天寶 8년(749)부터 10년(751)까지 安西四鎮節度使 高仙芝의 掌書記가 되어 安西에 부임하였고, 두 번째는 3년 후인 天寶 13년(754)부터 15년(756)까지 安西北庭節度判官에 임명되어 封常清을 보좌하였다.

高適·岑參 시의 풍격에 대해서 嚴羽가 “高適과 岑參의 시는 비장하여 그들의 시를 읽으면 강개함을 느끼게 한다(高岑之詩悲壯, 讀之使人感慨.)” 198)라고 평한 이후 明代까지 이와 유사한 평들로 199) 인해 이들 시의 풍격이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清代 王士禛은 이에 대한 異論을 제기했다.

“당대 시인들 중 이름을 다튼, 沈佺期·宋之問·王維·孟浩然·錢起·劉長卿·元稹·白居易·皮日休·陸龜蒙 등은 서로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李白·杜甫·高適·岑

198) 嚴羽, 『滄浪詩話詩評』

199) 辛文房, 『唐才子傳·岑參傳』: “(岑參은) 高適과 풍골이 자못 같아서 그의 시를 읽으면 강개함을 느끼게 한다. 한 편의 시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여 돌려가며 감상했다.(與高適風骨頗同, 讀之令人慷慨懷感. 每篇絕筆, 人輒傳味.)”

胡震亨, 『唐音癸籤』 卷 2: “王勃·楊炯의 流麗, 沈佺期, 宋之問의 豐蔚, 高適·岑參의 悲壯, 李白·杜甫의 雄大가 있는데 그들의 재주를 모두 淸으로 개괄하여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格調·思에는 淸하지 않음이 없었다(王·楊之流麗, 沈·宋之豐蔚, 高岑之悲壯, 李·杜之雄大, 其才不可概以淸言, 其格與調與思, 則無不淸者.)”

胡應麟, 『詩藪·內編』: “高適·岑參은 悲壯을 宗으로 삼고, 王維와 孟浩然是 閑談으로 자처하였는데 그 격조는 같았다(高岑悲壯爲宗, 王孟閑談自得, 其格調一也.)”

高樞, 『唐詩品彙·總序』: “개원·천보 연간에는 …高適·岑參의 비장이 있었다(開元天寶間卽…有高適·岑參之悲壯)…”

參은 매우 다른데 高適은 悲壯하면서도 渾厚했고 岑參은 奇逸하면서도 특이했다. 鍾惺은 ‘高適과 岑參의 시가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 똑같다’ 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 된 것이다.” 200)

王士禎은 이와 같이 高適·岑參의 작품에 대해 高適은 悲壯하면서 敦厚하고, 岑參은 悲壯한 가운데 기이한 특징을 들어 둘의 풍격을 구분하였다. 余正松도 “悲壯만으로 高適 邊塞詩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므로 壯은 雄壯·豪放으로 悲는 沈鬱·悲涼으로 개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고 하였다. 201)

高適은 建功立業의 결의를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壯’의 일면을 드러내고 병사들의 고뇌·장수들의 탐욕과 용렬함을 폭로하는 부분에서는 ‘悲’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의 「燕歌行」은 高適의 작품 중 비장한 풍격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 | |
|----------|----------------------------|
| 漢家煙塵在東北, | 한나라 봉화가 동북쪽에서 피어오르니 |
| 漢將辭家破殘賊. | 한나라 장수 남은 적을 쳐부수러 집을 떠나네. |
| 男兒本自重橫行, | 남아는 본시 천하를 중횡하는 걸 중히 여기나니, |
| 天子非常賜顏色. | 천자께서 각별히 격려의 광채를 내려주신다. |
| 摐金伐鼓下榆關, | 종 치고 북을 두드리며 유관을 내려가고, |
| 旌旆逶迤碣石間. | 깃발 줄이어 구불구불 갈석산으로 올라간다. |
| 校尉羽書飛瀚海, | 교위의 급한 서신 넓은 사막에서 날아오니, |
| 單于獵火照狼山. | 선우의 횃불 낭산을 비춘다. |
| 山川蕭條極邊土, | 쓸쓸한 산천이 변방까지 뻗어 |
| 胡騎憑陵雜風雨. | 오랑캐 말 비바람에 뒤섞여 침범하였다. |

200) 王士禎, 「師友詩傳續錄」, 第 57 期: “唐人齊名, 如沈宋王孟錢劉元白皮陸, 皆約略相似, 唯李杜高岑迥別, 高悲壯而厚, 岑奇逸而峭, 鍾伯敬謂高岑詩如出一手, 大謬矣.”

201) 金福姬, 『高適 邊塞詩 研究』, 성대 석사논문, 2004년. 66쪽 참조.

戰士軍前半死生, 전사들은 싸우다 반이나 죽었는데,
 美人帳下猶歌舞, 미인은 장막에서 오히려 춤추고 노래한다.
 大漠窮秋塞草腓, 막막한 사막엔 가을이 가고 변방의 풀 이미 시들고
 孤城落日斗兵稀, 외로운 성엔 해는 지고 싸울 병사 드물다.
 身當恩遇恒輕敵, 장군 은총 입어 항상 적을 업신여겼으나,
 力盡關山未解圍, 사력을 다해 싸워도 전쟁터의 포위망 아직 뚫지 못했
 네.
 鐵衣遠戍辛勤久, 갑옷 입고 멀리 변방 지키느라 고생한 지 오래되었고
 玉箸應啼別離后, 이별 후 눈물 떨구며 울었으리라.
 少婦城南欲斷腸, 새아씨 장안성 아래서 애 끊어지고,
 征人薊北空回首, 전쟁 나간 병사는 계북에서 쓸쓸히 고개 돌려 고향길
 바라본다.
 邊庭飄飄那可度, 아득히 멀고 먼 변방 바람 나부끼니 어찌 넘어갈 수
 있으며,
 絕域蒼茫更何有, 천해고도, 아득히 먼 곳 또 무엇이 있을까?
 殺氣三時作陣雲, 살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운이 감돌고,
 寒聲一夜傳刁斗, 한밤중엔 조두의 차가운 소리 전해온다.
 相看白刃血紛紛, 흰 칼날에 떨어진 피를 바라보고
 死節從來豈顧勛, 절개를 지키다 죽어도 어찌 훈공을 바라겠는가.
 君不見沙場征戰苦,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사막의 고통스런 전쟁터에서
 는,
 至今猶憶李將軍, 지금도 여전히 李廣 장군 그리워하는 것을.

전반부의 여덟째 구까지는 전쟁이 임박하여 비분강개하며 변방으로 향하
 는 병사들을 묘사하였다. 아홉째 구부터는 변세에서의 전투에 임하는 병사

들의 고통과 오랜 변방생활로 인해 지치고 시름에 잠긴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에서는 이런 고통 속에서 전쟁을 치르며 죽어가는 병사들의 처절한 모습과 이에 반해 장막에서 기녀들의 노래와 춤을 즐기고 있는 장군들의 모습을 극적으로 대조시켜 날카롭게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 작품에서 가장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계층간의 참여한 갈등이 잠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이 전투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高適은 은연중에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후반부 여덟 구는 대체로 변방생활을 하고 있는 병사의 시각에서 밤에도 편히 쉬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하였다. 마지막 네 구는 시인이 직접 느낀 것을 기술한 것으로 변방 병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어려운 전투 속에서도 勳功을 바라지 않는 점을 칭찬하고, 마지막으로 漢代의 李廣 같은 어진 장군이 나타나서 오랑캐를 무찌르고 평화와 안정을 되찾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이 작품에 대해 左雲霖은 “장수와 사병들 간의 고락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 생활과 변방 전쟁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었다. 당시 변방생활의 실제 상황을 어느 정도 개괄하였기 때문에 사상과 내용이 비교적 깊고 광범위하다” 202)고 평가했으며, 高海夫는 “高適이 마치 정치가와 군사가와 같은 관찰로써 변방을 살피었다.” 203)라고 하였고, 殷璠도 “高適의 기골과 가슴에 품은 뜻이 드러나는 작품” 204)이라고 총평하였다.

다음은 高適이 높은 이상을 품고 있지만 이상을 펼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데 대한 실의를 드러낸 「塞上」이다.

202) 左雲霖, 『高適傳論』,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5. “揭露了統帥和士兵苦樂懸殊的生活和對邊戰截然不同的態度, 一定程度上概括了當時邊塞生活的實際, 思想內容比較深廣.”

203) 高海夫, 「高適의 審美情趣」, 西安, 『陝西師大學報』, 1986년 4월, “在邊塞詩中……而似乎常常是以一個政治家或軍事家的眼光來觀察塞上的事事物物.”

204) 殷璠, 『河嶽英靈集』, 卷上, “適詩多胸臆語, 兼有氣骨, 故朝野通賞其文. 至如『燕歌行』等篇, 甚有奇句.”

惟昔李將軍, 오직 그 옛날 이장군만이,
 按節臨此都. 명을 받들어 머나먼 변방까지 왔었지.
 總戎掃大漠, 군대를 이끌고 광활한 사막을 휩쓸며,
 一戰擒單于. 단숨에 선우를 사로잡았지.
 常懷感激心, 늘 감격에 차 이장군을 그리워하며,
 願效縱橫謨. 종횡무진 전쟁터를 누비길 원했었지.
 倚劍欲誰語, 검에 기대어 누구에게 이 심정을 이야기 한단 말인가?
 關河空鬱紆. 관하에서 부질없이 우울해하노라.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우고자 하는 강렬한 애국심과 懷才不遇한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어 비장한 정조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이밖에 「薊門五首」其四·「薊中作」·「金城北樓」등도 비장한 정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岑參은 비슷한 환경에서도 특출한 영웅주의와 헌신적인 정신으로 발휘해서 高適과 달리 웅장하고도 기려한 풍격을 드러낸다. 다음의 「走馬川行奉送出師西征」은 岑參의 풍격을 대표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

輪臺九月風夜吼, 운대 구월 바람은 밤에 울부짖고,
 一川碎石大如斗, 온 시내의 자갈은 주먹만 한데,
 隨風滿地石亂走. 광풍에 이리저리 나뒹군다.

.....

將軍金甲夜不脫, 장군은 밤이 되어도 갑옷을 벗지 않고,
 半夜軍行戈相撥, 한밤 행군에 창은 부딪혀 울리고,
 風頭如刀面如割. 갈같이 매서운 바람은 얼굴을 할퀴네.

.....

虜騎聞之應膽懼， 적의 기마병은 이를 듣고 간담이 서늘하여,
料知短兵不敢接， 감히 접전을 벌이려하지 않으니,
軍師西門佇獻捷. 우리 군사는 서문에서 승전보를 기다리노라.

변방은 九月임에도 벌써 커다란 돌을 굴릴 정도로 광풍이 휘몰아친다는 표현이 암시하는 바는 바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병사들의 고통스러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조는 뒤에 가면 완전히 사라지고 끝내는 병사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작자의 축원과 믿음만이 흘러넘치고 있다. 혹한 속에서 두려워하는 병사들의 모습과 전쟁에 대한 비관적인 정서가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 다만 이러한 환경을 이겨내는 병사들의 모습이 경물과 조화를 이루어 더욱 웅장하게 다가설 뿐이다. 이렇듯 岑參의 시는 대부분 분발하는 호매한 정조가 충만하다. 「輪臺歌奉送封大夫出師西征」·「武威送劉單判官赴安西行營便呈高開府」·「獻封大夫破播仙凱歌六章」 등의 작품에서도 황량한 변방과 잔혹한 전쟁 중임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코자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岑參의 이러한 태도는 무엇보다도 공명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岑參은 이렇게 ‘雄壯’한 가운데 奇麗한 풍격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오랜 변세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세의 기이한 풍광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洪亮吉은 岑參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 “詩가 奇하면서 理에 들어가야 奇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奇하면서 理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奇가 아니다. ……詩가 奇하면서도 理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岑參 뿐이었다.” 205)라고 하였다. 여기서 理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 상황과 부

205) 洪亮吉, 『洪北江詩話』 卷五: “詩奇而入理, 乃謂之奇. 若奇而不入理, 非奇也. …… 詩之奇而入理者, 其惟岑嘉州.”

합하는 것으로 현실에 입각한 岑參의 ‘奇’ 를 잘 지적인 말이다.²⁰⁶⁾

岑參의 ‘奇’ 한 면은 체재 방면과 표현수법, 두 방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앞에 언급했듯이 체재 방면은 중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괴한 경물로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부분으로, 다음의 시구들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北風卷地白草折, 북풍은 땅을 말아 백초를 끊고,
胡天八月即飛雪. 변방엔 팔월이 되자 눈이 날리네.²⁰⁷⁾

北風夜卷赤亭口, 북풍은 야밤에 적정구를 말아올리고
一夜天山雪更厚. 밤새도록 천산엔 눈만 쌓이네.²⁰⁸⁾

蒸沙爍石燃虜雲, 찌는 모래 뜨거운 돌은 오랑캐의 구름을 태우고,
沸浪炎波煎漢月. 끓는 파도는 한나라의 달을 삶는다.²⁰⁹⁾

赤焰燒虜雲, 붉은 화염은 오랑캐의 구름을 태우고,
炎氛蒸塞空. 숨 막히는 열기는 변방을 폭폭 찌다.²¹⁰⁾

표현기법에 있어서 岑參의 시는 신선하고 기이하여 진부하지 않다. 기이한 상상과 비유 등 다양한 수사법은 시의 풍격마저 신기하게 만들었다. 다음의 시구들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206) 廖立, 「岑參邊塞詩的風格特色」, 『鄭州大學學報』, 1986. 2.

207) 「走馬川行奉送出師西征」

208) 「天山雪歌送蕭治歸京」

209) 「熱海行送崔侍御還京」

210) 「經火山」

忽如一夜春風來, 간밤에 홀연히 봄바람이 불어와,
千樹萬樹梨花開. 온갖 나무마다 배꽃을 피웠는가.²¹¹⁾

漢月垂鄉淚, 한나라 달은 고향생각에 눈물짓게 만들고,
胡沙費馬蹄. 오랑캐 땅 모래는 말발굽을 닳게 하네.²¹²⁾

隴山鸚鵡能言語, 농산의 앵무새는 말을 할 줄 안다니,
爲報家人數寄書. 식구에게 자주 편지하라 알려주게나.²¹³⁾

雪中何以贈君別, 흰눈 속에 그대에게 무엇을 주어 보낼까?
惟有青青松樹枝. 단지 푸른 소나무 가지만 줄 뿐이네.²¹⁴⁾

「白雪歌送武判官歸京」에서는 변방에 눈 내린 모습을 따듯한 봄의 ‘梨花’로 비유한 발상이 무척 신기하다. 「磧西頭送李判官入京」과 「赴北庭度隴思家」에서는 漢나라의 달로 인해 촉발된 향수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묘사하였다. 「天山雪歌送蕭治歸京」에서는 친구와 이별하면서 푸른 소나무 가지를 꺾어주는 것을 묘사하였다. 이전의 시가에서는 흔히 이별할 때 버들가지 꺾어 작별을 하는 게 상례였다. 岑參은 이러한 관습을 뒤엎고 소나무로써 이별의 정을 나타낸 것이다. 버드나무의 이별은 단장의 슬픔을 드러낸다면 소나무의 이별은 초지일관 변치 않는 우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호방하고 장쾌한 풍격을 드러내었다.

이상으로 高適과 岑參 邊塞詩의 비장한 정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

211) 「白雪歌送武判官歸京」

212) 「磧西頭送李判官入京」

213) 「赴北庭度隴思家」

214) 「天山雪歌送蕭治歸京」

으로 말하면 高適은 기이한 면이 岑參에 비해 결여되기는 했지만 鍾嶸이 『詩品·卷上』에서 “섬세한 기교를 구하지 않고, 맑고 명확한 언어를 구사하는데 뛰어났다.”²¹⁵⁾라고 했듯이 시어가 질박하고 豪放한 가운데 悲壯한 특징이 있으며, 岑參은 오랜 변방생활의 경험으로 ‘悲’의 일면을 사실적으로 펼치면서 흔들리지 않는 戰士의 강건한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壯’의 일면을 느끼게 하였다. 岑參은 悲壯美를 표현함에 있어서 제재·표현기법상의 기이함과 清新한 시어를 운용한 특징이 있다.

다음은 王昌齡·高適·岑參의 邊塞詩를 시형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 詩 型 | 5언 고시 | | 7언 고시 | | 5언 율시 | | 7언 율시 | | 5언 배율 | | 5언 절구 | | 7언 절구 | | 합 계 |
|--------|----------|-----------|----------|-----------|----------|-----------|----------|-----------|----------|-----------|----------|-----------|----------|-----------|--------|
| | 작품 수 | 비율 (%) | 작품 수 | 비율 (%) | 작품 수 | 비율 (%) | 작품 수 | 비율 (%) | 작품 수 | 비율 (%) | 작품 수 | 비율 (%) | 작품 수 | 비율 (%) | |
| 王昌齡 | 12 | 45 | 1 | 3 | 1 | 3 | - | - | - | - | 1 | 3 | 12 | 45 | 27 |
| 高適 | 30 | 46 | 6 | 9 | 10 | 15 | 2 | 3 | 8 | 12 | 2 | 3 | 8 | 12 | 66 |
| 岑參 | 10 | 13 | 14 | 18 | 29 | 38 | - | - | - | - | 6 | 6 | 20 | 25 | 79 |

위의 표는 王昌齡·高適·岑參의 邊塞詩를 시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王昌齡과 高適은 邊塞詩를 창작함에 있어 五古와 七絶을 즐겨 사용하였으며,²¹⁶⁾ 岑參은 五律과 七絶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체제의 사용은 구사하고자 하는 문학적 표현기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

215) 鍾嶸, 『詩品·卷上』: “不求纖細之巧, 唯取昭晰之能.”

216) 高適의 邊塞詩 중 七絶이 차지하는 비율은 8 首로 12%에 불과하지만 高適의 전체 작품 수 243 首 중 七絶이 13 首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邊塞詩를 체제로 한 七絶의 비율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다. 七絶을 선호한 것은 비흥·기탁의 수법을 운용하여 함축적으로 묘사하고자 한 경우이고, 작자가 자신의 현실에 대한 감개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자 할 경우에는 짧은 절구보다는 五古가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王昌齡·高適·岑參의 詩型에 대한 성취도를 후인의 평가를 통해 보기로 하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王昌齡의 평가는 주로 七絶에 집중되어 있으며 李白의 七絶과 함께 역대로 神品²¹⁷⁾이자 千秋의 絕技²¹⁸⁾로 높이 평가 받아왔다. 그는 邊塞詩에 있어서 복잡하고 모순된 심정을 칠절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용해 서정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러나 王昌齡은 七絶 뿐 아니라 五言에 대한 평가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맹호연, 王昌齡, 상건의 5언은 청일하여 풍격은 모두 마힐과 가까우나 편쪽은 비교적 좁다.”²¹⁹⁾

“王昌齡의 五古는 혹은 幽秀하고 혹은 豪邁하며, 혹은 참담하고, 혹은 광달하며 혹은 剛正하고 혹은 표일하여 한 가지 빛깔을 지녔다고 할 수 없다.”²²⁰⁾

“저광희와 王昌齡에 대한 말 중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집어낸다면 상건과 함께 비교한 부분으로 “저광희와 王昌齡은 심후함이 청신함을 가리고 있으나 그렇다고 청신함이 부족하지 않으며, 상건은 청신함이

217) 明代 胡震亨, 『唐音癸籤』 卷十: “왕세정은 말하길, ‘칠언절구에서 왕강녕과 이태백은 털끝만큼의 차이를 다투며 모두 신품이다’ 라고 하였다(王世貞曰, 七言絕句, 王江寧與太白爭勝毫釐, 俱是神品.).”

218) 예를 들면 明代 胡應麟은 『詩藪續編』에서 “칠언절구에서 태백과 용표 같은 이는 모두 천추의 절기다(七言絕, 如太白龍標, 皆千秋絕技).” 라고 하였다.

219) 清 施補華, 『峴傭說詩』: “孟浩然王昌齡常建五言清逸, 風格均與摩詰相近, 而篇幅較窄.”

220) 清 吳喬, 『圍爐詩話』: “王昌齡五古, 或幽秀, 或豪邁, 或慘惻, 或曠達, 或剛正, 或飄逸, 不可物色.”

그 심후함을 가리고 있으나 그렇다고 심후함이 부족하지도 않다.” 221)

위의 말은 王昌齡이든 王昌齡이든 다양한 풍격을 지니고 있으며 王昌齡의 五言은 深厚하면서도 清新함을 잃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高適은 七古에 비해 五古를 약 4배나 되는 분량을 지었는데 이에 대해 殷璠은 “자신의 가슴에서 쏟아내 진실한 말이 많다(多胸臆語).” 222)고 하였고, 徐獻忠은 “高適은 시를 지을 때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말을 직접 드러내었다(其爲詩, 直舉胸臆).” 223)라고 하였듯이 주로 현실에 대한 감각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감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데도 五古나 七古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岑參의 邊塞詩 시형 중에 五律이 가장 많은 것은 當時의 유행과 관련된 것이며, 또 五古가 많은 王昌齡·高適에 비해 七古가 많은 것이 시형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岑參의 七古에 대해 施補華는 “岑參의 칠언고시는 힘이 있고 기이하여 서리 락 하늘의 한 마리 물수리 같아 당연 邊塞詩 중의 으뜸이다(岑參七言, 勁骨奇異, 如霜天一鶚, 故施之邊塞最宜.).” 224)라는 평에서 岑參의 七古에 대한 성취도를 알 수 있다. 또 五古가 줄고 七絶이 대폭 늘어난 점은 盛唐에 들어 성행하게 된 七絶을 채용하여 새로운 형태로 창작하고자 했던 작자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며, 七絶로 시를 적다가 묘사할 내용을 七絶의 28자로 모두 표현해 낼 수 없을 때 古詩의 체재를 빌어 편폭을 늘리게 되었던 것이다. 225) 따라서 岑參의 七絶 또한 七古 만큼 성공한 체재가 된 것이다.

221) 明 鍾惺譚元春 『唐詩歸』 卷 11: “儲與王以厚掩其清, 然所不足者非清. 常建以清掩其厚, 然所不足者非厚.”

222) 殷璠, 『河嶽英靈集』

223) 徐獻忠, 『唐詩品』

224) 施補華 「峴傭說詩」

225) 胡雲, 『唐詩研究』, 臺灣宏業書局, 1972.

2) 王維

王維(701-761)²²⁶⁾는 자가 摩詰이며 太原 祈人(지금의 山西 祈縣)이다. 부친 處廉이 汾州司馬로 있을 때에, 蒲 지방(지금 山西 永濟縣)으로 이사하여 河東人이 되었다. 모친의 영향으로 佛家에 귀의하였고 開元 18년(730)에 부인을 잃은 후부터는 大德道光禪師를 따르며 좌선과 염불에 심취하였다. 『舊唐書·王維本傳』에 “형제가 모두 부처를 받들어 항상 소찬을 들면서 마늘, 파 등과 고기류를 먹지 않고 만년에는 재실에 오래 머물며 채색한 옷을 입지 않았다(兄弟俱奉佛, 居常疏食, 不茹葷血. 晚年長齋, 不衣文彩.)”라 하고, 또 “서울에서 날마다 십여 명의 명승과 식사하며 헌담으로 낙을 삼았고 재실에 아무 것도 없이 오직 차와 약 도구만 두고 탁자와 침상만 두었다. 퇴관 이후로는 분향하며 홀로 서서 선시를 암송하는 것을 일삼았다.(在京師日飯十數名僧, 以玄談爲樂, 齋中無所有, 唯茶鑪藥臼, 經案繩床而已. 退朝以後, 焚香獨立, 以禪誦爲事.)”라고 한 것으로 보아 在家佛자와 같은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肅宗 乾元 元年(758)부터 長安 교외에 있는 輞水의 藍田別墅에서 은거하면서 만년을 마쳤다. 그는 玄宗 開元 9년(721)에 과거에 급제하고 同年에 太樂丞에서부터 시작하여 開元 22년(734)에는 張九齡에 의해 右拾遺로 발탁되고, 開元 25년(737)에는 감찰어사로서 崔希逸의 막부에서²²⁷⁾ 복무하고, 開元 28년(740)에는 殿中侍御史를 지내고 玄宗 天寶 元年(742)부터 3년(744) 사이에 左補闕, 庫部員外郎, 庫部郎中 등을 역임하고, 天寶 11년(752)에는 文部郎中을, 乾元 元年에는 太子中允, 太子中庶人, 中書舍人, 綴事中을 거쳐, 이듬해인 乾元 2년(759)에는 尙書右丞(正四品下)을 역임하였다.

226) 王維의 생졸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柳晟俊 교수의 『初唐詩와 盛唐詩 研究』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227) 『舊唐書·玄宗紀』: “開元二十六年三月……癸未, 吐蕃寇河西, 左散騎常侍崔希逸擊破之.” 『王摩詰全集箋注』 卷 17에 「爲崔常侍謝賜物表」와 卷 27에 「爲崔常侍祭牙門姜將軍文」 두 편이 있다.

王維와 王昌齡의 교유 관계는 『王摩詰全集箋注』 권 11의 「靑龍寺曇壁上人兄院集序」에 “때마침 강녕의 대형이 편석을 가지고 나에게 서문을 써달라고 하였다.(時江寧大兄持片石，命維序之.)”란 문구와 또 岑參의 『岑嘉州集』 권1의 「送王大昌齡赴江寧」에서 王昌齡을 江寧大兄이라고 칭한 것으로 보아 王維는 王昌齡과 친분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王昌齡과 王維의 교유는 두 사람 모두 佛·道 양가에 의지하여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면서 동병상련의 정을 바탕으로 맺어졌다 할 수 있다.²²⁸⁾

왕유 역시 다른 文人들과 다를 바 없이 “천하의 위인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창생을 사랑한다.(達人無不可，忘己愛蒼生.)”²²⁹⁾는 정치적 포부를 품었다. 왕유는 열다섯 살의 소년기부터 이미 兩京을 유람하며 대장부로서의 원대한 꿈을 키우면서 젊은이의 호매함을 흠모하고 동경하였다. 그의 邊塞詩는 고도의 애국정신을 내포하고 강렬하게 감동시키는 힘을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시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는다.²³⁰⁾ 그의 애국정신은 영웅 전사 형상에 대한 예찬으로부터 그 열정이 용솟음쳐 오른다. 이 또한 중군 생활의 사실적인 묘사가 아닌 영웅주의 정신의 찬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왕유의 邊塞詩에는 자신감이 지나쳐 “그대 반드시 다른 나라 사신으로 하여금 우리도, 월지의 두골로 술 마실 수 있음을 알게 하시라.(須令外國使，知飲月氏頭.)”는 「送平澹然判官」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영웅적인 기백이 지나쳐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送張判官赴河西」

單車曾出塞，홀로 수레 몰고 변세에 가 보았지，

報國敢邀勳. 보국의 일념뿐 어찌 감히 공훈을 추구하였으랴.

228) 柳晟俊, 앞의 책, 493~494쪽 참조.

229) 「贈房盧氏瑄」

230) 朴三洙, 『王維詩研究』, 성대박논, 1994, 92쪽 참조.

見逐張征虜, 그대 정로장군 장비를 따르려 하니,
 今思霍冠軍. 마야흐로 관군후 괘거병을 생각하노라.
 沙平連白雪, 광활한 사막은 하이얀 백설로 연이어져 있고
 蓬卷入黃雲. 쓸대는 바람에 말려 올라가 누런 구름 속으로 들어가리라.
 慷慨倚長劍, 격양된 마음으로 장검을 허리에 차고
 高歌一送君. 목청껏 노래 불러 그대를 전송하노라.

출세하는 張判官을 전송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기세로 가득 차 처량하고 슬픈 이별의 정조는 일소되어 버렸다. 첫째 둘째 구에서 자신이 변공을 구하지 않고 다만 報國의 의지로 출세했음을 회고하면서 張判官의 깊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이어서 그에게 훌륭한 장수가 되기를 기대하며 비량한 마음을 강개하게 묘사하였다. 다섯째·여섯째 구에서는 沙平·白雪·蓬·黃雲 등 변세의 특징적인 경물을 취해 광활하고 추운 변방의 경계를 그렸다. 마지막 두 구에서 비로소 송별을 언급하는데 ‘내심 격양된 마음으로 장검을 허리에 차고, 목청껏 노래 불러 그대를 전송하노라’ 라 하여 석별의 아쉬움은커녕 자신의 장렬한 보국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 두 사람의 참된 우정은 ‘칼을 차고 목청 높여 노래하는’ 격양된 모습 속에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왕유는 또 蒼茫한 경치를 부각시키고, 적을 무찔러 승리하리라는 낙관적인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雄壯’한 정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조는 다음의 작품 「送劉司直赴安西」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

當令外國懼, 그대 마땅히 다른 나라로 하여금 우릴 두려워하여,
 不敢覓和親. 감히 화친코자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외다.

이 역시 변새로 부임해 가는 벼를 송별하며 지은 작품의 일부분이다. 크게 변공을 세워 오랑캐들이 감히 열썬도 못하게끔 격려하였다. 특히 王維는 前篇에서 匈奴가 일찍이 月氏國을 침공하여 그 왕의 머리를 잘라 술그릇으로 삼았다는 고사를 빌려 섬뜩할 정도로 오랑캐 정벌에 대한 열망과 신념을 드러내었다. 마지막 구의 “감히 화친코자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외다(不敢覓和親)”는 당시 唐나라가 突厥과 화친을 맺었으나 별 성과가 없었던 배경에서 나온 것이며, 이 말로 인해 앞부분의 이별의 슬픔은 사라져버렸다. 王維는 작품 속에서 변방을 지키는 길이 애국의 길임을 묘사하는 한편, 벼에 대한 독려를 통해 盛唐의 호탕하고 씩씩한 풍모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어려움과 험난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새로 향한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과시는 바로 王維 邊塞詩의 ‘雄壯’한 정조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왕유는 또 웅장하고 기이한 사막을 배경으로 그린 변방 병사들의 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우렁차고 豪邁한 기상이 나타나고 있다.

「從軍行」

吹角動行人, 빨피리 불어 출정 병사들 움직이니,
 喧喧行人起, 왁자지껄 떠들썩하며 병사들 일어난다.
 笳悲馬嘶亂, 호각 소리 구슬프고 말울음 어지러운데,
 爭渡金河水, 앞 다투어 금하 강물을 건넌다.
 日暮沙漠垂, 서산의 해는 사막에 드리우고
 戰聲煙塵裏, 싸움 소리 연기와 먼지 속에서 요란하다.
 盡係名王頸, 명망 있는 오랑캐 왕공대신들 목을 묶어
 歸來報天子, 돌아와 천자께 바치리.

군대의 출정·진격·전투·개선의 장면을 묘사하는 가운데 從軍報國의 영웅적

전사의 형상을 기리고 있다. 첫째·둘째 구는 출정을 알리는 피리소리에 군영은 전쟁 태세를 갖추느라 일대 소동이 일어난다. 다급하고 어지러운 가운데도 호각소리는 슬프고 戰馬는 머리를 하늘로 치켜들면서 길게 우는 혼란스런 가운데 명령소리에 순간적으로 “앞 다투어 금하 강물을 건넌다(爭渡金河水)”는 구절로 병사들이 엄격한 군대의 기율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의 ‘爭’字는 나라를 위해 출정하는 병사들의 의지와 또 한편으로는 어지러운 가운데 질서가 있어 활발하고 강건한 화풍을 연상시키고 있다. 마지막 두 구의 “명망 있는 오랑캐 왕공대신들 목을 다 묶어 돌아와 천자께 바치는 從軍立功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충군애국의 길이라고 격려하고 있다. 왕유는 이 시에서 征戰의 고통과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과 용맹스런 전사들의 찬가를 통해 建功愛國해야 한다는 의지를 비장한 정조로 나타내고 있다.

3) 李頎

李頎에 대한 전기는 『新·舊唐書』에 기록된 바는 없으며 『新唐書·藝文志』의 集部 別集類에 祖詠 시와 李頎 시가 각 1권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注에서 “함께 개원 진사에 급제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殷璠의 『河岳英靈集』에 14 수의 시가 실려 있을 뿐이었는데, 元代的 『唐才子傳』에 와서야 비로소 간략하지만 그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 李頎는 東川人으로 開元 23년에 賈季鄰이 주관한 과거시험에 급제하여 新鄉縣尉에 발령받았다. 성품은 제멋대로이고 세상일을 싫어하였다. 신선을 사모하여 단약을 먹고 신선이 되기를 바랐고, 세속 밖의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였으며 당시 명사들이 그를 모두 중히 여겼다. 시를 잘 지었는데 음조가 맑고 수사가 빼어났으며 歌行體도 모두 잘 지었다. 老莊의 道에 특히 밝아서 예교에 구속되지 않고 멋대로 호탕하게 말하였는데 사람의 마음을 잘 감동시켰다. 애석하

게도 그 우수한 재주를 가지고 단지 하급관리에만 머물렀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가에 대한 담론이 다른 여러 작가보다 홀륭하였다.²³¹⁾ 물론 이는 사실과 다른 점도 있을 수 있지만 李頎의 생평에 대한 대표적인 자료이며, 그 후에 나온 자료들이 있기는 하나 이렇다할만한 새로운 견해가 없다.²³²⁾ 다만 근래 聞一多가 李頎의 생존연대를 ‘690-751년’으로 산정했고 최근 자료로 『唐詩選』에 기록된 李頎의 생애부분을 보면 “李頎는 동천인(지금 사천성 동부)으로 어릴 적에 영양(지금 하남성 허창 부근)에 거주하였다. 개원 13년에 진사가 되어 일찍이 신항현위를 맡아서 高適, 王維, 王昌齡 등과 두루 화답하였고 殷璠에 의해 뛰어난 재사로 불리었으나 오래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고향 동천으로 돌아가 은거하였다. 그의 시는 전당시에 보인다.”²³³⁾라는 기록 정도가 있다. 그의 생평 사적은 지금까지도 재인용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연구와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李頎의 시는 『全唐詩』(권132-134)에 124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邊塞詩인으로 알려져 있는 데 대해 이견도 있지만²³⁴⁾ 본고에서는 그의 邊塞詩만을 대상으로 삼아 논하고자 한다. 李頎 시의 격조에 대해 『石洲詩話』의 기록을 보면 “高適의 혼후함과 岑參의 기이함은 각자 일가를 이뤘지만 모두 두보에 포함되었는데 이동천만은 다 그렇지 않다

231) 『唐才子傳』: “頎, 東川人. 開元二十三年, 賈季隣榜進士及第, 調新鄉縣尉. 性疏簡, 厭薄世務, 慕神仙, 服餌丹砂, 期輕舉之道, 結好塵喧之外, 一時名輩, 莫不重之. 工詩, 發調既清, 修辭亦秀, 雜歌咸善, 玄理最長, 多爲放浪之語, 足可震蕩心神, 惜其偉材只到黃綬, 故其論道家, 往往高于衆作.”

232) 『中國文學家大辭典』의 李頎 부분에도 “李頎字不詳, 東川人, 家於潁陽. 生卒年均不詳, 約唐玄宗天寶初前後在世. 性疏簡, 厭薄世事. 工詩, 長玄理, 多爲放浪之語. 開元二十三年登進士, 爲新鄉縣尉.”와 같이 辛文房的 기술과 다를 바 없는 수준임. 또한, 李攀龍의 『唐詩選評釋』권 2 「全唐詩話續編」에 “李頎, 東川人, 開元進士, 爲詩尤善七言律.”이라는 기록이 있고, 高步瀛의 『唐宋詩學要』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청대까지 이렇다할 자료가 없음.

233) 『唐詩選』上冊: “李頎(690-751), 東川(今四川省東部)人, 少年時居住潁陽(今河南省許昌附近). 開元十三年(725)中進士. 曾任新鄉縣尉, 與高適王維王昌齡均有唱酬. 被殷璠稱爲偉才, 以久不升調, 歸故鄉東川隱居. 其詩見全唐詩.”

234) 유성준의 『초당시와 盛唐시 연구』 513쪽에 그의 邊塞詩는 5수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를 전 원시나 송별 증수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邊塞詩인으로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를 邊塞詩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邊塞詩를 대상으로 해서 고찰하였다.

.” 235)라고 하였는데, 李頎의 邊塞詩는 精密과 호탕을 겸비한 면에서 高適·岑參의 위에 들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 李頎는 강개·격양된 정조로써 가행체를 이용하여 邊塞詩를 잘 썼다. 대표적인 작품은 「古從軍行」인데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白日登山望烽火, 대낮에는 산에 올라 봉화를 살피고
 黃昏飲馬傍交河. 황혼녘에는 말에 물 먹이러 교하로 간다.
 行人刁斗風沙暗, 보초병은 두드린다, 캄캄한 모랫바람 속에서 .
 公主琵琶幽怨多. 공주의 비파소리는 그윽한 원망 담고 있다.
 野雲萬里無城郭, 구름 드리운 만 리 들관 성곽도 없는데,
 雨雪紛紛連大漠. 휘날리는 진눈깨비는 넓은 사막을 덮는다.
 胡雁哀鳴夜夜飛, 변방의 기러기는 밤마다 애달게 울며 날고,
 胡兒眼淚雙雙落. 오랑캐 아이들의 눈에는 두 줄기 눈물이 흐른다.
 聞道玉門猶被遮, 옥문관의 문은 아직도 닫혀있다 하니,
 應將性命逐輕車. 목숨을 바쳐 날랜 수레 좇으리라.
 年年戰骨埋荒外, 해마다 싸우다 죽은 해골 황야에 묻히는데,
 空見葡萄入漢家. 속절없이 보이는 건 한나라로 들어가는 서역의 포도.

전체적으로 종군의 고통을 묘사하면서 후반부에서는 漢代의 전고를 빌어 통치자가 전쟁을 가볍게 여겨 병사들의 목숨을 부질없이 희생시키는 것을 풍자하고 있다. 병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고, 밤에는 보초병이 두드리는 조두소리와 원망 섞인 비파소리만 들리는 처량한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병사들의 고통을 부각시켰다. 사방을 둘러봐도 눈 덮인 사막뿐이고 밤마다 기러기는 슬피 울어대는 혹한의 추위, 혹한에 잘 견딘다는 오랑

235) 『石洲詩話』卷一: “高之渾厚, 岑之奇峭, 雖各自成家, 然俱在少陵籠罩之中, 至李東川則不盡爾也.”

캐마저도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 눈물짓는다고 하여 묘사의 중심을 오랑캐에 둠으로써 한족 병사의 고통은 言外에 기탁하였다. 측면 묘사로 정면을 부각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깊고 선명한 여운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이같이 열악한 환경과 달리 천군만마의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는 단지 포도뿐이라며 기막힌 현실을 풍자하였다. 작자는 작품 속에서 구체적인 형상 烽火, 戰馬, 刁斗, 琵琶, 野雲, 大漠, 胡雁, 葡萄 등을 운용하여 전장의 비장하고 창량한 모습과 전장에서 목숨을 잃는 병사들의 哀怨을 부각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唐 병사들 뿐 아니라 오랑캐들의 부녀자들이 남편과 아들이 아버지를 잃고 눈물짓는 모습에서 異民族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 즉 민족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는 인도주의 정신도 엿보인다. 이것은 작자의 도불 사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작품 역시 변방 생활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

「古意」

| | |
|----------|---------------------------------|
| 男兒事長征, | 남자로 태어나 멀리 전쟁터에 가는 걸 일삼으니 |
| 少小幽燕客. | 어린 나이에 변방의 유주와 연나라에 나그네가 되었다. |
| 賭勝馬蹄下, | 말발굽 아래에서 승부를 걸기에 |
| 由來輕七尺. | 칠척의 목숨을 가볍게 여겼다. |
| 殺人莫敢前, | 사람을 죽이면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
| 鬚如蝟毛磔. | 수염은 고슴도치의 털처럼 갈라졌다. |
| 黃雲隴底白雲飛, | 누런 구름은 언덕 바닥으로 깔리고 흰 구름은 높이 나는데 |
| 未得報恩不能歸. | 성은에 보답하지 못했으니 돌아갈 수 없구나. |
| 遼東小婦年十五, | 요동의 어린 새아씨는 나이 열다섯인데 |
| 慣彈琵琶解歌舞. | 비파를 잘 타고 歌舞를 잘 한다고 |

今為羌笛出塞聲, 지금은 오랑캐 피리로 변방의 노래 잘 불어
使我三軍淚如雨. 우리 삼군이 눈물을 비처럼 흘리게 하는구나.

시의 앞부분에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가를 위해 용맹스럽게 싸우는
남아를 묘사하였다. 하지만 오랜 군대생활은 철처럼 강하고 호랑이처럼 용
감했던 사나이를 노랫가락 한 소절에 눈물을 비오듯 흘리는 마음 약한 병
사로 만들어버렸다. 전쟁의 고통과 비애를 직설적으로 묘사했기 보다는 각
行 간에 기탁하여 긴긴 여운을 느끼게 해준다. 「古塞下曲」과 「塞下曲」
역시 반전사상이 보이는 작품들이다. 李頎의 邊塞詩는 高適의 시처럼 강개·
비장하지도 岑參처럼 그렇게 기려하고 호매하지도 않지만 고아한 풍자와
응혼하면서도 침울하고 운치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VI. 結論

본 논문은 邊塞詩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고찰하여 그것이 盛唐 邊塞詩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찰하는 한편, 盛唐 시기에 이르러 邊塞詩가 특히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盛唐 邊塞詩인 王昌齡 邊塞詩와 기타 邊塞詩인들과의 同異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많은 邊塞詩 작가 가운데 王昌齡을 주요 고찰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盛唐시인으로서 처음으로 「詩格」에서 意境說을 제기하여 시가의 興象과 情景交融의 중요성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邊塞詩의 연원과 발전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邊塞詩의 범주 설정에 있어 공간적 개념에서 변방을 제재로 하고, 시간적 개념으로는 秦 이후 異民族과의 대립구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규정하였다. 邊塞詩의 연원을 살펴봄에 있어 선진시대의 작품은 엄밀한 의미에서 邊塞詩가 아닌 ‘戰爭詩’로 규정되었지만 후대 邊塞詩에 영향을 미친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詩經』 戰爭詩의 특징은 전쟁에 대한 언급이 피상적이고 감정을 묘사하는데 치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편폭이 짧고 후렴구가 많아 실제로 내포된 내용의 폭은 넓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현실의 실제적인 반영은 漢·魏의 악부고시에서 비롯되었다. 『詩經』 속의 작품이 주관적인 서정과 영탄에 치중된 반면, 漢代 樂府는 객관적 서술로 사회에 대한 비판의 길을 열었다. 魏晉南北朝시기는 建安시대와 南北朝시대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建安시대에는 蔡邕의 딸인 蔡琰이 漢末 전란 중에 흉노에 붙잡혀 12년간 포로생활을 하다가 돌아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悲憤詩」에 담아내었고, 陳琳(?~217)의 「飲馬長城窟行」은 대부분의 邊塞詩가 전쟁의 참상과 병사들의 고통을 읊는데 비해, 장성 축조 현장에 끌려간 젊

은이의 입을 통해 장성 쌓기의 고통스러움을 편지 속 대화 형식으로 생생하게 고발하였다.

南北朝시기 중 南朝의 鮑照는 漢의 악부 민가를 계승하여 현실주의와 낭만주의적인 정신으로 邊塞詩의 제재를 개척하였으며, 5언보다 구식이 길고 자유분방한 7언 위주의 잡언시체를 창조하였다. 자유분방한 필체로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토로한 鮑照의 악부시는 唐代에 盧照鄰·駱賓王과 岑參·高適과 李白 등에게 영향을 미쳤다.

北朝의 주목할 만한 작가는 庾信(513-581)과 王褒(513-576)이다. 이들 두 시인에 대해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고, 화려하면서도 전아할 수 있다’는 평은 이들이 남북의 문풍을 융합하여 새로운 문풍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南北朝시대를 고찰하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南朝의 文人들 역시 100여 수의 邊塞詩를 창작하였으며 이러한 작품들이 初·盛唐 邊塞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初·盛唐 邊塞詩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남조 邊塞詩에서 慣用되던 악부고제를 사용한 점이나 시어의 활용 등으로 볼 때 南朝 邊塞詩가 初·盛唐 邊塞詩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초당 시기는 隋末부터 계속된 突厥, 吐谷, 契丹 등 변방 異民族들과의 충돌이 더욱 빈발하였고, 唐王朝는 여러 민족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 정책과 화친정책을 혼용하였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외적을 제압하고 확장을 계속하게 되자 文人들에게도 投筆從軍하여 愛國報恩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 넣어 주었다. 이러한 연유로 초당 邊塞詩 내용상의 전형적인 특징은 ‘建功立功의 바람’이다. 초당시기 邊塞詩를 창작한 文人은 唐太宗을 비롯하여 初唐四傑, 陳子昂, 張說(667-730), 李嶠 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初唐四傑과 陳子昂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四傑 詩에는 대체로 적극적인 주전의식이 보이는데 이는 그들만이 가졌던 생각이 아니라 當時 初唐 文人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었다. 사절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시인들이 변방의 생활의 경험으로 창작함으로써 邊塞詩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하나의 풍격을 형성하기에는 미흡한 시기였다.

四傑의 뒤를 이어 진정 자각적으로 齊·梁 이래로 내용 없이 걸만 화려한 악습을 일소하고 漢魏風骨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여 시가 개혁의 기치를 내건 사람이 바로 陳子昂이다. 陳子昂은 제량의 여풍을 말끔히 제거하고 사절의 성취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 이후 風骨은 당시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표식이 되었다. 陳子昂 邊塞詩의 예술적 특성은 漢魏풍골을 선양하는 동시에 흥기의 개념도 제기하였는데 그가 말한 ‘比興寄託’은 漢代 儒家의 教化說과는 달리 시가 작품에 깊이 있는 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헛되이 수식에 힘쓰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비장·강개하고 강간·질박하여 建安 시기 邊塞詩풍과 흡사한 풍격을 지니고 있다. 唐詩 발전에 있어서 陳子昂의 詩歌 창작이론은 초당 백여 년을 이어온 齊·梁의 詩風을 끊고 興象과 氣骨이 풍부한 盛唐 시풍의 막을 올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盛唐 邊塞詩의 창작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배경과 사상 및 사회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치적 배경으로는 주변 異民族과의 전쟁을 비교적 상세히 살펴보았고 사상 측면에서는 儒·佛·道 3교의 병존 외에 唐代 특히 유행한 俠客풍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俠·儒·佛·道 네 종류의 사조는 唐代 사회를 일관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각기 唐詩의 風骨·興寄·興象·文辭 등과 같은 측면에서 반영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 네 사조는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간단히 함께 결합된 것이 아니며 그것들 사이에는 여전히 서로 복잡하게 엮여 있다. 儒·俠 양자는 상반되면서도 서로 어

올려 唐人의 사상적 근간을 조합해 내었다. 立身處世의 원칙에 있어서는 儒와 俠이 일치되는 점이었다면 개성적인 인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 儒家가 예교나 도덕규범을 강조하여 개성적인 인격이 이 규범에 속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俠客정신은 개인의 의지를 신장시켜 현존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儒·俠간의 모순은 唐人의 마음에 일종의 특수한 張力을 구축하였으니 때로는 봉건적 윤리도덕의 규범에서 벗어나 예교의 속박에 반항하고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는 반항적인 경향을 드러냄으로써 시가창작에 慷慨하여 불평하는 기세와 豪邁하여 구속될 수 없는 열정을 띠게 하였다. 그러나 當時 佛·老 사상은 선비들 사이에서 공명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儒·俠보다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佛·老 사상의 중요한 공헌이라면 전통적 사유와 심미적 정취를 변혁시켰다는 데 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사조는 儒·俠을 세로축으로 佛·老를 가로축으로 하여 당나라 문화의 기반을 이루었다. 盛唐 시기 前에는 俠·儒·佛·道 관계가 상대적으로 화해와 균형을 이룬 가운데 협객의 정신이 보다 강렬하게 투사되어 시가창작에 반영되었기에 風骨·興寄·興象·文辭·聲律 제요소의 결합 역시 비교적 원만한 중에 風骨이 영도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적 배경으로는 당대 文人들의 생활습관을 살펴보았다. ‘자유로운 유람’ 과 ‘文人들의 정치참여’, 그리고 ‘과거제도’ 에 대해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盛唐 시기 邊塞詩가 흥성할 수 있었던 원인을 살펴보았다.

당대는 국가의 통일과 사회적인 풍요로움이 뒷받침되어 寒士 계급의 文人들은 일반적으로 벼슬길에 나아가기 이전에 대부분 자유로이 유람했던 경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文人의 자유로운 유람으로 새로운 예술경지를 개척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邊塞였다. 文人들은 멀리 변방까지 종군하거나 邊陳의 幕府에서 군사적인 공훈으로 신임을 얻어 벼슬길에 오

르기를 열망하였다. 邊塞詩는 바로 文人들의 유람생활의 유기적 구성 성분이 시편에 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唐代는 前代에 비해 文人들의 정치참여의 길이 자유로운 시대였다. 정치참여란 관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봉건사회 지식인들의 공통적인 출로였다. 唐代 이전에는 권문세족 출신이라는 특권만으로 아무 준비 없이 관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나 진정한 포부를 가지고 행동과 통일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대의 寒士들부터이다.

唐代 文人생활의 또 하나의 항목은 ‘科擧제도’이다. 玄宗이 재위한 開元·天寶 이후로는 進士科가 특히 성행하여 이를 통해 입신출세한 士人들은 관직을 받은 후 비교적 쉽게 영전되곤 하였다. 과거가 시가창작에 미친 영향에 대해 嚴羽는 ‘以詩取士’의 과거제도로 돌리고 있기도 하지만, 唐代 과거의 명목이 많아 시부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 점만으로 결코 시가창작의 변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唐人들은 정치참여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과거를 정치무대로 통하는 주된 관문으로 여겼으므로 자유로운 유람은 바로 과거와 정치참여를 위한 준비과정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자유로운 유람은 변세의 풍광과 전쟁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당 이전의 邊塞詩들과는 차별화된 풍격을 형성하게 하였다. 즉 남북조 시기의 邊塞詩는 의고악부의 형식을 빌린 책상머리에서 쓴 邊塞詩라면 盛唐 邊塞詩는 변세의 풍물과 전쟁의 고통을 형상적인 언어로 생생하게 묘사하여 盛唐 邊塞詩만의 독특한 풍격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王昌齡의 邊塞詩를 연구하기에 앞서 작가의 생애와 사상은 작품의 외연으로 작품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통해서 생애와 사상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王昌齡 역시 당시 文人들처럼 俠·儒·佛·道

어느 특정한 부분에 귀속되지 않았다. 더욱이나 ‘맑은 풍격과 한적한 정취에 오묘함이 보이고 劉昫虛, 儲光羲 · 常建과 함께 一格을 이루었다’라는 평을 받는 것도 王昌齡의 사상적 깊이에 의한 것이며 또 그 사상적 기초 위에 인생무상이나 자신의 懷才不遇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不老長生을 염원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은 王昌齡 邊塞詩의 내용과 형식의 특색을 살펴보고, 다른 작가와의 차이점을 고찰하는데 있었다. 王昌齡 邊塞詩를 내용별로 살펴보고 邊塞詩 창작에 있어 어떻게 의상을 운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王昌齡의 詩는 총 180여 首이지만, 이 가운데 邊塞詩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은 30여 수로, 대부분 樂府題에 五言古詩와 七言絶句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30여 수를 ‘建功立業과 英雄的 氣概’, ‘從軍의 고뇌’, ‘反戰思想’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30여 수 중 建功立業과 英雄的 氣概를 주제로 한 작품은 7 수, 從軍의 고뇌 7 수, 反戰思想을 주제로 한 작품은 15 수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王昌齡의 邊塞詩는 主戰意識보다는 反戰意識을 주제로 한 작품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王昌齡의 意象運用 부분에 있어서는 ‘故事を 인용한 意象’, 동사나 형용사 등이 없이 명사성 의상을 나열한 경우, 즐겨 사용된 의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명사만을 나열한 경우 함축적인 반면 모호성이 증가되어 독자들에게 상상의 공간을 넓혀줌으로써 곱씹을수록 많은 여운을 남겨주었음을 알 수 있다.

즐거 사용한 意象으로는 地理 意象의 山과 城, 日氣 意象에서는 바람(風)·구름(雲), 그리고 動物意象의 말(馬)과 時間意象의 밤(夜), 그리고 달(月)에 대해 살펴보았다. 山과 城의 원초적 이미지는 전쟁이지만 城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 그것이 주는 이미지가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日氣에 대한 의상으로는 風·雲을 사용하여 맑은 날씨 보다는 사막의 바람과 짙은 구름을 사용함으로써 변세의 풍광을 더욱 삭막하게 표현하였다. 달(月)은 특히 王昌齡이 전체 작품에서 즐겨 사용한 의상으로 邊塞詩에서도 앞뒤의 수식어에 따라 무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말(馬)은 邊塞詩에서 자주 사용되는 동물 이미지이며, 주로 전쟁을 수행하는 중요한 兵器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는 邊塞詩를 제외한 다른 시가에서 말 관상을 잘 보았던 백락(伯樂)의 고사를 이용하여, 주로 懷才不遇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과는 사뭇 다르다. 한편 王昌齡의 邊塞詩에는 시간 의상을 나타내는 夜가 자주 사용된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국경의 戰線은 낮보다는 밤에 긴장감이 더 감돌고, 병사들은 경계 태세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종군의 고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전선의 밤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하겠다.

기타 邊塞詩人들의 풍격과 王昌齡의 그것을 비교해 본 결과 高適은 강개함이 岑參은 기이한 특징이 있었다. 王維는 비장하면서도 자신감에 넘쳐 자만심이 엿보였고 李頎는 웅혼하면서도 침울한 특징이 있었는데, 이에 비해 王昌齡은 비장한 가운데 승고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主要參考文獻

I. 書籍類

- 四庫全書 『全唐詩』
- 四庫全書 『資治通鑑』
- 四庫全書 『論語』
- 四庫全書 『孟子』
- 四庫全書 『新唐書』
- 胡雲翼, 『唐代的戰爭文學』, 臺灣 商務印書館, 1988.
- 洪 讚, 『唐代戰爭詩研究』 文史哲출판사, 1987.
- 何寄澎, 『唐代邊塞詩初探』 聯經出版事業公司, 臺北, 1978.
- 李國勝, 『王昌齡詩校注』 文史哲出版社, 1982.
- 吳彩娥, 『王昌齡詩校注』, 五南圖書出版有限公司, 臺灣, 1999.
- 沈德潛, 『唐詩別裁集』, 中華書局, 1980.
- 更 生, 『歷朝邊塞軍旅詩』 북경, 華夏출판사, 2000.
- 馬茂元 외, 『唐詩大觀』, 상해, 上海辭書出版社(商務印書館), 1984.
- 趙運任 편저, 『古代邊塞詩』, 桂林, 廣西師範大學校出版社, 1996.
- 李珍華, 『王昌齡研究』, 西安, 太白文藝出版社, 1994.
- 李雲逸, 『王昌齡詩注』 上海古籍出版社, 1982.
- 澗 岩, 『關於唐代邊塞詩的討論綜述』, 甘肅教育出版社, 1988.
- 陳伯海 主編, 『唐詩彙評』, 浙江教育出版社, 1995.
- 陳伯海, 『唐詩學引論』, 東方出版中心.
- 黃 剛, 『邊塞詩論稿』, 黃山書社, 1996.
- 劉永濟, 『唐人絕句精華』, 人民文學出版社, 1981.

- 曾子魯, 『試論王昌齡邊塞詩中的非戰思想』, 甘肅教育出版社, 1988.
- 白 山, 『唐代閨怨詩散談』 寧夏教育學院學報, 1988.
- 張浩遜, 『唐代宮怨詩綜論』, 陰山學刊, 1989.
- 施蟄存, 『唐詩白話』, 上海古籍出版社, 1987.
- 孫全民, 『唐代邊塞詩選注』 黃山書社, 1992.
- 王向峰, 『文藝美學辭典』,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87.
- 羅根澤, 『樂府文學史』, 北京, 東方出版社, 1996.
- 成復旺, 『中國美學範疇辭典』,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5.
- 徐連達·吳浩坤·趙克堯 지, 중국사연구회 옮김, 『中國通史』, 청년사, 1989.
- 李基潤, 『戰爭과 人間』, 한샘출판사, 1992.
- 王夫之 評選, 張國星 校點, 『古詩評選』, 文化藝術出版社, 1997.
- 朱 熹, 『朱子語類』 권140, 「論文下·詩篇」, 上海古籍出版社, 2002.
- 王文進, 『南朝邊塞詩新論』, 臺北, 里仁書局, 2000.
- 蘇珊玉, 『盛唐邊塞詩的審美特質』, 臺北, 文津出版社, 2000.
- 江應梁 『中國民族史』北京, 民族出版社, 1990.
- 胡 雲, 『唐詩研究』, 臺灣宏業書局, 1972.
- 聞一多, 『唐詩雜論·四傑』
- 吳 競, 『貞觀政要』, 內蒙古人民出版社,
- 譚優學 『唐詩人行年考續編』, 巴蜀書社, 1987.
- 胡問濤, 「王昌齡年譜繫詩」, 『南允師院學報』, 哲社版, 1984.
- 左雲霖, 『高適傳論』,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5.
- 吳戰壘 著·俞炳禮 譯, 『唐詩學의 理解』, 태학사, 2003.
- 柳晟俊, 『初唐詩와 盛唐詩 研究』, 국학자료원, 2001.
- 徐連達·吳浩坤·趙克堯 지, 중국사연구회 옮김, 『中國通史』, 청년사, 1989.

서경호, 『중국문화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俞炳禮, 『唐詩30首』, 아이필드, 2003.

金學主, 『樂府詩選』, 명문당, 2002.

II. 論文類

胡大浚, 「邊塞詩之涵義與唐代邊塞詩的繁榮」, 『西北師院學報』, 1986.

肖澄宇, 「關於唐代邊塞詩評價的幾個問題」, 『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 1988.

董乃斌, 「論中晚唐的邊塞詩」, 『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 1988.

王昌猷·周小立, 「試論中唐邊塞詩」, 『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 1988.

廖立, 「岑參邊塞詩的風格特色」, 『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 1988.

譚優學, 「邊塞詩泛論」, 『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 1988.

攝文郁, 「試論初唐的邊塞詩」, 『唐代文學論叢』, 陝西人民出版社.

吳庚舜, 「談邊塞詩討論中的幾個問題」, 『文學評論』, 1981.

余正松, 「論盛唐邊塞詩的雄渾美」, 『四川師範學院學報』, 1991.

吳學恒·王綏青, 「邊塞詩派評價質疑」, 文學遺產, 1980.

劉先熙, 「評邊塞詩」, 『文學評論』 1981.

李善階, 「論邊塞詩的時代精神與歷史作用」, 山東社會科學, 1996.

霍然, 「論盛唐邊塞詩與唐人社會心態」, 江海學刊, 1996.

沈玉成, 「論盛唐的邊塞詩」, 文學遺產, 1956.

陳光, 「唐代的邊塞詩和戰爭詩」, 『中華文化復興月刊』, 1973.

回俊才, 「邊塞詩派的形成及其評價問題」, 『牡丹江師院學報』, 1981.

- 禹克坤, 「如何評價唐代邊塞詩」, 『文學評論』, 1981.
- 蘭 翠, 「論唐以前征戍詩的發展」, 『烟臺大學學報』, 1992.
- 劉敬圻, 「盛唐高峰期的西部詩歌」, 『文學評論』 1987.
- 胡問濤, 「王昌齡年譜系詩」,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1985.
- 余嘉華, 「試論唐代有關南詔的詩歌-兼談邊塞詩評價的幾個問題」, 『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 西北師範學院中文系編, 蘭州, 甘肅教育出版社, 1988.
- 索祖翠, 「論王昌齡詩中的月亮意象」, 『欽州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4.
- 高海夫, 「高適的審美情趣」, 『陝西師大學報』, 西安, 1986.
- 俞炳禮, 「邊塞詩에 나타난 反戰思想」, 『中語中文學』 第 17輯.
- 李浚植, 「中唐 邊塞詩에 나타난 反戰意識」, 『中語中文學』 제 26집.
- 安炳國, 「初唐四傑詩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92.
- 崔庚鎭, 「高適·岑參의 邊塞詩 비교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4.
- 朴三洙, 「王維詩研究」,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4.
- 田龍元, 「朱子易學研究」, 한양대 박사논문, 2006.
- 徐 盛, 「王昌齡詩研究」, 고려대 석사논문, 1993.
- 金姬廷, 「王昌齡詩研究」, 경성대 석사논문, 1995.
- 姜旼昊, 「王昌齡 七言絕句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98.
- 姜慧園, 「王昌齡詩研究」, 연세대 석사논문, 1993.
- 任元彬, 「王昌齡詩研究」, 한국외대 석사논문, 1993.
- 金志恩, 「鮑照 擬行路難 18首 研究」, 한양대 석사논문, 2005.

ABSTRACT

The Study on the age of the High Tang

Frontier Poetry

Jang Young-Soon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there were a number of composite causes for the flourish of frontier poetry in the age of the High Tang other than the direct reason of war and what the characteristics of frontier poets were. As a method, comparison was made between Wang Chang Ling and other poet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frontier poets. Heated discussions are being carried out on whether creation of frontier poetry since the 80s is the manifestation of patriotism. Some say that to have Wang Chang Ling as the focus of discussion would lack reality because he did not have the experience of serving in a war. However, because of this very reason, Wang Chang Ling was selected as the focus of discussion here under the assumption that he was the person capable of accurately and

objectively expressing conditions of the frontier in diverse and multifaceted ways with the all-directional and cool-headed thoughts produced from the perspectives of a literary man.

In Chapter 2, the origin and development courses of frontier poetry will be discussed per each time period. The concept and scope of frontier poetry is continuously being the subject of argument. Therefore, prior to examining the origin of frontier poetry, the scope of frontier poetry to be the target of this study will be confirmed. Also, frontier poetry will be examined per each time period, such as of the era of Chin, Han, Three Kingdoms and Tang.

In Chapter 3, background of frontier poetry creation in the age of the High Tang will be discussed in terms of political background, ideologies and cultural background. For political background, relationship with other neighboring nations as the direct cause of frontier poetry will be examined. For ideologies, the impact caused by chivalrous spirit and the collective spirit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on literary men will be discussed. Lastly, for cultural background, discussion will be mad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reely enjoyed sightseeing trips, state examination system and participation by literary men in politics during the period of Tang.

In Chapter 4, to promote understanding on the works of Wang Chang Ling, his life and thoughts will be briefly discussed. Then, contents of frontier poetry will be analyzed. Also, discussion will be made on utilization of the term, 'artistic state'. Since there are no detailed records available on the life of Wang Chang Ling, theses and

works produced in the past were used as reference. Wang Chang Ling's thoughts will also be discussed through his works. For the poems of Wang Chang Ling, frontier poetry and poetry to recite sorrow of women after parting among the works published in Vol. 140 ~ 143 of 『Early Tang Poetry』 were used as the bases of discussion. Also, 『Commentary on Wang Chang Ling's Poetry』 by Kee Kuk Seung, 『Verses of Wang Chang Ling』 by Lee Wun Il and 『Anthology of Wang Chang Ling』 by Oh Chae Ah were used as reference. Parting poetry and frontier poetry are like the both sides of a coin. However, most of Wang Chang Ling's parting poetry was created after his demotion and exile. Therefore, his parting poetry was excluded in this study. In terms of contents, the works were categorized into poems to recite 'performing meritorious deeds and building accomplishments' and heroic spirit, which was the drift of the time, poems to express the anguish of serving in a war and poems to represent antiwar sentiment based on humanitarianism. Wang Chang Ling was the first to come up with the term 'artistic state'. Therefore, listing of artistic states and examples of using artistic states of authentic precedents among his frontier poetry will be examined. Also, by briefly examining tragic beauty expressed in frontier poetry of Gao Shi, Cen Shen, Wang Wei and Lee Qi, the poets of frontier poetry during the age of the High Tang,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produced by these poets will be discuss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frontier poetry of Wang Chang

Ling expressed tragic beauty amid sublimity, those of Gao Shi displayed righteous indignation, those of Cen Shen expressed graceful beauty, those of Wang Wei suggested vanity and pride amid grimness and those of Lee Qi were characteristically sublime and dismal at the same time.

Keywords: Frontier poetry, poetry from the age of the High Tang, Wang Chang Ling, war